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9-000261-01

독립출판물 출판·유통 현황과 납본 활성화 방안 연구

2024. 10.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독립출판물 출판·유통 현황과 납본 활성화 방안 연구

2024. 10.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 연구기관

책과사회연구소

■ 책임연구자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연구회장)

■ 설문조사 통계 처리

(주)글로벌리서치 김영규 부장

■ 연구 자문

정연경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용완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오지은 (서울도서관 관장, 한국공공도서관협의회 회장)

■ 연구 협력

강영규 (스토리북앤필름 대표 / 인터뷰), 강지원 (탐라도서관 사서 / 자료 제공, 설문조사 협력),
고정원 (구산동도서관마을 사서 / 자료 제공), 구선아 (책방연희 대표 / 인터뷰),
김경현 (다시서점 대표 / 인터뷰), 김진엽 (대구 고산도서관 사서 / 자료 제공),
민승원 (인디팝 대표 / 인터뷰, 자료 제공), 박병주 (서울도서관 사서 / 자료 제공),
박수호 (부크크 본부장 / 자료 제공), 백민경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석사 / 해외 도서관 조사),
신현창 (책과생활 대표 / 설문조사 협력), 이상명 (가갸77페이지 대표 / 인터뷰, 자료 제공, 설문조사 협력),
정유미 (포포포매거진 대표 / 인터뷰), 진영균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과장 / 자료 제공)

<독립출판물 출판·유통 현황과 납본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일 2024년 10월 12일
발 행 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① 02-590-0500
연구기관 책과사회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102-526
① 02-722-3551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귀하

국립중앙도서관과 체결한 연구용역 「독립출판물 출판·유통 현황과 납본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12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백 원 근

목 차

요약	9
I. 연구 개요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5	
1) 연구 배경 / 15	
2) 연구 목적 / 16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6	
1) 연구 범위 / 16	
2) 연구 방법 / 17	
3. 기대 효과 / 17	
II. 독립출판물 납본에 대한 이론적 검토	19
1. 독립출판물의 개념과 특성 / 21	
1) 독립출판물의 개념 / 21	
2) 독립출판물의 특성 / 22	
III. 독립출판물의 제작·유통 현황	25
1. 국내 독립출판물 제작·유통 개황 / 27	
2. 창작자 제작 기반의 독립출판물 제작·유통·판매 / 30	
1) 제작 및 판매 / 30	
2) 도매 유통 / 31	
3) 판매(독립서점) / 33	
3. POD 출판 기반의 독립출판물 제작·유통 현황 / 36	
4. 국내외 독립출판물 페어 개최 현황 / 40	
1) 국내 독립출판물 페어 / 40	
2) 해외 독립출판물 페어(아트북페어) / 46	
3) 국내외 독립출판물 페어(아트북페어)의 차이 / 50	
IV. 독립출판물 제작·유통 종사자의 납본 관련 인식 조사	51
1. 조사 개요 / 53	
2. 독립출판물 관련 인식 / 55	

3. 독립출판물의 납본 관련 경험 / 60	
4. 독립출판물의 납본 관련 의견과 활성화 방안 / 67	
5. 조사 결과의 시사점 / 78	
V. 국내외 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 현황 및 관련 규정	79
1. 국내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 현황 및 관련 규정 / 81	
2. 해외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 및 관련 규정 / 86	
VI. 독립출판물 납본 수집 강화 방안	93
1. 독립출판물 관련 규정 개선 / 95	
2.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96	
3. 독립출판물 정보관리시스템, 아카이빙센터 구축 검토 / 97	
4. 독립출판물 납본 유공자 포상을 통한 인식 제고 / 97	
참고문헌	98
부록 : 조사표 및 기본통계표	101

■ 표 목차 ■

〈표 2-1〉 독립출판물의 성격 및 특성	23
〈표 3-1〉 전국 독립서점 증감 추세	33
〈표 3-2〉 교보문고 바로출판 POD 서비스의 개인출판(퍼플)/POD 현황	37
〈표 3-3〉 부크크의 POD 출판 종수 추이	38
〈표 3-4〉 부크크의 POD 출판 분야별 현황	39
〈표 3-5〉 세계 주요 아트북페어	47
〈표 4-1〉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59
〈표 5-1〉 광역대표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 현황	81
〈표 5-2〉 서울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구입) 현황	82
〈표 5-3〉 탐라도서관 소장 독립출판물 통계	83
〈표 5-4〉 탐라도서관 독립출판물 대출자 통계	83
〈표 5-5〉 탐라도서관 독립출판물 대출자료 통계	83
〈표 5-6〉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의 장서 현황	84

■ 그림 목차 ■

〈그림 3-1〉 자가출판 플랫폼 3개사의 등록 작가 증가 추이	28
〈그림 3-2〉 인디펍의 유통 구조 및 수익 분배 구조	31
〈그림 3-3〉 독립서점의 분야별 분포	33
〈그림 3-4〉 교보문고 바로출판 POD 서비스의 출판 분야별 발행 종수	37
〈그림 3-5〉 부크크의 POD 출판 종수 및 작가 추이	39
〈그림 4-1〉 응답자 특성	54
〈그림 4-2〉 독립출판물 관련 종사 분야	55
〈그림 4-3〉 관련 독립출판물의 분야	56
〈그림 4-4〉 독립출판물의 장점	57
〈그림 4-5〉 독립출판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유	58
〈그림 4-6〉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59
〈그림 4-7〉 납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	60
〈그림 4-8〉 납본 또는 납본을 권유한 경험	61
〈그림 4-9〉 납본 또는 납본을 권유한 이유	62
〈그림 4-10〉 납본 또는 납본을 권유하지 않은 이유	63
〈그림 4-11〉 국제표준자료번호에 대한 인지도	64
〈그림 4-12〉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착 정도	65
〈그림 4-13〉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	66
〈그림 4-14〉 현재의 독립출판물 납본 제도에 대한 만족도	67
〈그림 4-15〉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73
〈그림 4-16〉 독립출판물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정책	77
〈그림 5-1〉 탐라도서관의 독립출판 장서 코너	83

요약

■ 독립출판물의 개념과 특성

- 개념 : 기존의 여러 정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출판사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발행하는 출판물”로 정의
- 특성

요소	특성
제작 주체	출판을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개인 제작자가 집필-편집-제작-마케팅 주도
제작비	제작자 스스로가 부담(자비출판)
익명성	저자에 따라 본명 대신 익명(필명·예명)을 사용하여 표현·제작의 자유 추구
내용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저자의 경험에 기초한 대중적, 자유로운 콘텐츠
출판 분야	에세이를 필두로 한 문학, 실용서, 사진집, 아트북(아티스트북) 등
제작 정교성	교정·교열·편집, 표지·본문 디자인, 제작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도가 낮음
제작 방식	대량 제작용 오프셋 인쇄가 아닌 디지털 인쇄 또는 전자책 기반 POD 출판
발행량	수백 부 단위의 발행 (보통 1천 부 이상 발행하는 상업출판물 대비 소량)
가격·분량	비슷한 유형의 상업출판물보다 가격이 대체로 저렴하고 페이지 수가 적음
NO-ISBN	국제표준자료번호에 대한 미인지, 거부 등에 의한 비부착 사례
유통·판매	주로 독립서점과 직거래, 독립출판물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한 판매

■ 독립출판물의 제작·유통 현황

- 발행 종수 : 연간 약 1만 종으로 추정. 창작자 제작 기반 독립출판물 연간 약 2,000종 출판, 개인 POD 출판 연간 약 8,000종 출판(부크크, 교보문고, 유페이퍼 등)
- 창작자(제작자) : 10대부터 60대 이상의 전 연령층에 걸쳐 분포, POD 자가출판 포함 시 최대 10만 명의 작가군 추정, 매년 증가 추세
- 유통 경로 및 독자층 : 독립서점(판매처 약 500곳), 도매 유통 플랫폼,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유통 및 판매, 주요 독자층은 20~30대 여성
- 독립출판물 페어 : 독립출판물 창작자(제작자)와 독자가 직접 소통하는 플랫폼으로서 창작-향유 활성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 2000년대 이후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독립출판물(아트북)을 거래하는 북페어를 개최 중이며 증가 추세. 국내에서는 매년 독립출판물 제작자 200팀 이상이 참가하는 언리미티드에디션(서울아트북페어), 서울퍼블리셔스테이블에 2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대표적임. 해외에서는 세계 150여 개 도시에서 아트북페어가 운영 중이며 뉴욕 아트북페어, 도쿄 아트북페어 등이 유명함

■ 독립출판물 제작·유통 종사자의 납본 관련 인식 조사

- 지난 2년간(2022.9~2024.8) 독립출판물 발행·판매 경험이 있는 창작자, 독립서점, 출판사, 유통사 종사자 등 202명 응답(창작자 50.5%, 독립서점 31.2%, 출판사 7.4%, 유통사 6.4%, 기타 4.5% 순)
 - 조사 방법 : 독립출판물 페어 참가자, 유통사, 독립서점 등에 표준화된 웹 설문지 링크 발송, 링크 접속 자기기입식 조사
 - 응답자 특성 : 성별로는 여성(57.9%), 연령별로는 30~40대(30대 39.6%, 40대 30.2%), 거주지별로는 수도권(69%), 종사 기간별로는 1년 이상~10년 미만(1년 이상~5년 미만 37.1%, 5년 이상~10년 미만 32.2%)이 다수 차지
- 독립출판물 관련 인식
 - 관련 독립출판물 분야(복수응답) : 에세이(61.4%), 시/소설(34.7%), 실용(24.8%) 순
 - 독립출판물의 장점 : 누구나 출판 활동에 참여(28.2%), 개성적인 자기 표현(23.8%) 순
 - 독립출판물 관련 일을 하는 이유(복수응답) : 개인적 관심(73.8%), 수요(21.3%) 순
 -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가치, 다양성, 가격, 유통, 전망)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0점 평균
	%	%	%	%	%	점
1) 독립출판물은 상업출판물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	0.0	2.0	7.9	55.0	35.1	80.8
2) 독립출판물은 다양성이 풍부하다	0.0	0.5	7.9	42.6	49.0	85.0
3) 독립출판물의 가격은 낮은 편이다	6.9	36.1	47.0	8.9	1.0	40.2
4) 독립출판물의 유통은 활성화되어 있다	4.5	23.8	48.0	22.3	1.5	48.1
5) 독립출판물 발행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0.0	2.0	23.8	46.5	27.7	75.0
6) 독립출판물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0.5	3.5	27.2	43.6	25.2	72.4

- 독립출판물의 납본 관련 경험
 - 납본 제도 인지도 : 모른다(37.1%), 안다(32.2%), 보통(30.7%) 순
 - 납본 또는 납본 권유 경험 : 있다(51.9%), 없다(23.8%), 모르겠다(24.3%) 순
 - 납본하지 않은 이유 :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39.6%),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어서(20.8%), 필요성을 못 느껴서(20.8%), 납본 방법을 잘 몰라서(14.6%), 기타(4.2%) 순
 - 국제표준자료번호 인지도 : 안다(61.9%), 보통(20.8%), 모른다(17.3%) 순
 -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착 정도 : 부착(66.3%), 보통(19.3%), 비부착(14.3%) 순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 : 필요성을 못 느껴서(51.7%),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27.6%), 발급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서(13.8%) 순
- 독립출판물의 납본 관련 의견과 활성화 방안
 - 현재의 독립출판물 납본 제도에 대한 만족도 : 보통(42.6%), 잘 모르겠다(27.7%), 만족(19.8%), 불만족(9.9%) 순

- 독립출판물의 납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편리한 납본 절차(49%), 납본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31.7%), 독립출판물 납본 도서 목록 공개(13.4%), 기타(5.9%) 순
- 독립출판물의 납본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주관식 응답) : 납본 기준의 명확한 제시, 납본 홍보 강화, 납본 절차 개선, 지원책 강구, 납본 의무화 반대 등
- 독립출판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복수응답) : 독립출판물 페어/축제 지원(64.9%), 독립출판물 검색 사이트 운영(33.7%), 독립출판물 선정/시상제 운영(33.2%) 순

○ 조사 결과의 시사점

- 국제표준자료번호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부착 비율은 60%에 머무름. 창작자 중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62%로 높아 홍보 필요. 납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평균 32%(창작자는 25%)로 매우 낮음
- 창작자가 제작·유통·판매 경로에서 자연스럽게 납본 의무를 인지하고, 편리하게 납본할 수 있도록 납본 안내 강화 필요
- 독립출판물 페어와 연계된 납본의 홍보와 이해 증진 방안 모색 필요

■ 국내외 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 현황 및 관련 규정

- 국내 17개 광역대표도서관 전수조사 결과, 독립출판물 수집과 관련된 규정은 모두 없으며, 서울도서관(지난 8년간 883권 구입) 등 일부에서만 독립출판물을 수집하여 서비스함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와 일본의 국립도서관 독립출판물 수집 현황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미국 의회도서관(LC)과 국립의학도서관(NLM)에 독립출판물 수집 장서개발 보조 지침이 있으며 수집 대상은 자료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제한함
- 호주 국립도서관은 독립출판 발행자를 위한 홈페이지 가이드가 충실하며, ISBN의 장점을 소개하고 자연스러운 납본을 유도함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자비출판물을 납본 대상으로 명시함. 초판 발행 부수가 정해지지 않은 POD출판물 등은 15부가 실제로 배포되었는지가 기준

■ 독립출판물 납본 수집 강화 방안

- 독립출판물 관련 규정 개선
- 도서관자료인 상업출판물과 독립출판물의 외형 및 내용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상당수의 독립출판물이 이미 납본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별 수집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기보다는 수집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과 납본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의 제2조 정의에서 “발행처”를 “발행자”로 수정하고 그 범위에 ‘개인’을 포함하여 독립출판물 발행자 개인이 납본 대상임을 명확히 표현하고 강조
-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독립잡지의 발행 종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잡지 발행자의 유통·판매를 위한 ISSN·ISBN 중복 발급 요청에 대해 규정 완화 검토 및 대안 마련 필요

○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납본 의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특히 새로 독립출판물을 발행하고자 하거나 발행한 신규 창작자(제작자) 대상의 홍보 강화가 매우 필요함. 국가 장서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한다는 납본의 기본 취지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해야 함
- 독립출판물 관련 생산자, 유통·판매자들의 단일 조직이 없는 상황이므로 도·소매,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활용한 홍보 추진이 효과적임. 연관 업계 자문회의체를 구축하고, 독립출판물 페어 후원을 통한 납본 홍보 추진
- 전국 각지에서 발행되는 독립출판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에서 발행된 독립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을 위한 홍보와 수집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의 협력 활동 강화가 모색되어야 함

○ 독립출판물 정보관리시스템, 아카이빙센터 구축 검토

- 독립출판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독립출판물의 등록, 목록, 통계 등 정보 포털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활용을 통한 효율화 도모
- 소량으로 제작·유통된 후 사라지는 개인 창작자 제작 기반 독립출판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용·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내 독립출판물 아카이빙센터 건립·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독립출판물 납본 유공자 포상을 통한 인식 제고

- 국가 장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독립출판물의 납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거나 독립출판물의 납본에 대한 인식 제고·확산에 기여한 제작자(출판사) 등을 납본 사업 유공자 범위에 포함하여 추천·표창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00년대 이후 디지털 사회 환경이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기존 출판사가 아닌 개인도 종이·디지털 출판물을 제작하기 쉬운 출판·제작 환경이 발달하고, 아트북 및 아티스트북에 대한 관심 고조, 아마존 킨들 다이렉트 출판(KDP)의 성공, 책 출판을 통한 자기표현 욕구의 증대,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독립서점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을 배경으로 국내에서 독립출판물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개인 창작자가 주도적으로 제작하는 독립출판물(독립도서 및 독립잡지)의 출판-유통-판매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음
 - 독립출판물 생태계의 성장 배경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책의 내용, ‘작가되기’ 욕구(만인 저자 시대, 이력서 등 경력 활용, 타인과의 경험 공유), 손쉽게 책을 펴낼 수 있는 환경(디지털화에 따른 편집·인쇄의 편의성, 주문형 인쇄(Print on Demand) 및 전자책 발행),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채널 확대 및 홍보 방식(SNS, 유튜브)의 다각화, 익명(필명, 예명 등) 사용에 의한 부담감 해소, 수익 성공 사례의 등장 등 출판 활동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 점이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독립출판물 북페어가 전국 각지에 생겨나는 등 대중적인 책 축제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음. 기존 도서전은 독서대전 개최 도시나 책 축제를 개최하는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출판사와 서점 참여), 독립출판물 북페어는 특정 지역에서 개최하고 전국의 독립출판물 제작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가하는 양상임
- 발행되는 독립출판물 중에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부여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착을 위해서는 출판사 등록이 필요하여 개인 창작자의 경우 출판사 신고 등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고, 납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출판사 또는 발행사가 출판 관련 기업인 경우 독립출판물의 유통과 보급을 위해 ISBN을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개인 창작자(제작자)가 독립적으로 발행할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여겨 부착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 독립출판물의 납본에 대한 별도의 수집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이 발행한 소중한 창작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송할 책무가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차원의 합리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실태 및 국내외 현황 파악, 수집 필요성에 대한 논거 확보, 납본 수집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2024.2.29.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개정 2023.11.2.),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제3판 2023.2.28.) 등에는 독립출판물의 납본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없음

2) 연구 목적

- 국내 독립출판물의 생산·유통 현황 실태 파악,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한 납본 활성화 방안 제시
-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편적 출판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독립출판물에 대한 체계적인 납본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방향 수립이 요구됨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독립적인 개인 창작자가 개인의 책임으로 출판(자가출판, 자비출판)한 독립출판물의 제작 및 유통 실태 파악
- 독립출판물의 정의 : 출판사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발행한 출판물(도서 및 잡지)
 - ※ 기존 출판사와 창작자가 출판계약(저작권료 지급 등)을 맺고 출판물을 펴내는 경우는 비해당

- 독립출판물 제작·유통 종사자의 납본 관련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 제안
- 국내외 주요 도서관의 독립출판물 관련 규정 및 수집 현황 분석
- 독립출판물의 납본 수집 강화 방안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독립출판물의 현황, 도서관 수집 관련 국내외 자료 분석
- 설문조사 : 독립출판물 창작자(제작자), 유통사, 서점 대상의 납본 인식 조사
 - 표준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웹 설문조사(웹 링크 발송 및 자가 응답 방식)
- 사례조사 : 창작자, 제작사, 도매 유통업체, 독립서점 대상 조사
- 심층인터뷰 : 관련 전문가 인터뷰로 연구 내용의 완성도 제고

3. 기대 효과

- 현황 파악이 어려운 독립출판물의 출판 및 유통 실태 파악과 창작자(제작자) 등의 납본 관련 인식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 방안 도모
- 독립출판물 납본을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II. 독립출판물 납본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독립출판물의 개념과 특성

1) 독립출판물의 개념

-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정보과학 용어집』(2013)은 개인출판(private-publishing), 자가출판(self-publishing)에 대해 “저자가(또는 발행 조직이) 출판과 배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저작물” 이라고 정의하여 출판 주체의 자기 책임성을 강조함
 -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3) defines private or self-publishing as publishing “by a person or firm who assumes the expense of having a book or other document manufactured and the responsibility for distributing it by public sale in order to ensure its issue and/or to oversee the quality of its production.” Related terms include independent publishing and vanity publishing.(미국 의회도서관 홈페이지)
 - 유사 용어로 Indie Publishing(독립출판), Print on Demand(주문형 인쇄출판), Vanity Publishing(자비출판)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출판 주체의 성격, 출판 (제작) 방식, 제작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에 방점을 찍는 개념들임
-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독립출판물에 대해 “기존 출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 등의 다양한 소재를 자유로운 형태로 출간한 출판물” 로 정의(김보일, 2019)
- 기성 출판사와 서점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는 출판 활동이 독립출판(Indie Publishing)이며, 개인과 소수 그룹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펴내는 콘텐츠를 독립출판물로 봄. 상업성을 떠나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출판 분야의 인디(Indie) 문화가 독립출판으로 발전함(류영호, 2018.3.)
- 독립출판물 제작 출판사 겸 독립서점에서는 “책을 만든 사람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는가, 독립출판의 기획·제작·인쇄·유통 등 일련의 과정을 한 사람 또는 혹은 한 팀이 도맡아서 운영했는가” 의 여부를 독립출판물의 요건으로 중시함(마이크·김현경, 2023). 이 관점에서는 원고만 주면 제작해주는 책을 독립출판으로 보지 않으며, 그 이유는 원고만 다르고 제작 방식은 천편일률적인 책

은 다양한 형식과 형태를 가진 독립출판의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에 있음.

- 독립출판의 중요한 특성이자 윤리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DIY(Do It Yourself = 직접 기획·제작·유통하라)의 정신, 생산자와 소비자는 구분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함(임경용, 2024.9.)

- 독립출판물 전문 도매 유통업체인 인디펍(INDIEPUB)에서는 “독립출판물이란, 상업성을 떠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내용을 주제로 작가 개인이 기획하고 완성하는 저작물” 이라고 정의함(인디펍 홈페이지)
- 위의 여러 정의를 참조하고, 다양한 출판물의 형태와 제작 방식, 제작자의 성격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개념 사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출판물은 출판사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발행하는 출판물(도서 및 잡지, 이에 준하는 전자출판물)” 로 정의함
 - 여기서 “출판사에 의존하지 않는다” 함은 출판기획, 창작(원고의 작성), 편집(교정·교열), 디자인(표지 및 본문 디자인), 자비(自費)출판(인쇄제본), 판매 마케팅(광고·홍보) 등 일련의 출판 과정의 대부분을 창작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뜻함. 즉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주면 해당 출판사가 제작-유통-판매를 전담하고 저작권료(인세)를 저자(창작자)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기존의 상업출판 방식과는 구별되는 창작자 개인에 의한 자가(自家)출판 방식을 말함

2) 독립출판물의 특성

- 독립출판물의 특징에 대한 논의
 - 이건웅·고민정(2018)은 전통적인 출판과 독립출판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유권, 편집권, 마케팅 측면에서의 특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소유권 문제 : 전통적인 출판에서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지만, 출판권은 계약에 따라 출판사에 있으며, 2차 저작권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대개 출판사가 갖게 됨. 반면에 독립출판은 모든 저작권을 저자가 소유권을 갖는 게 일반적임
 - 편집권 : 전통적인 출판에서는 편집권을 출판사가 가짐. 이 부분이 출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정수임. 전통적인 출판은 출판사가 편집권을 갖고 원고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함. 편집자는 저자의 원고를 교정·교열하는 수준이 아니라 목차를 변경하거나 원고를 재배열하기도 하며 원고의 내용을 추가·첨삭을 하는 등 원고 편집에 전체적으로 관여함. 물론 저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러한 편집 과정을 거침.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초고 원고와 다른 원고가 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독립출판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편집 과정이 모두 생략됨

- 마케팅 : 전통적인 출판에서는 대량 생산과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기 때문에 도 소매 서점을 모두 활용하며, 광고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해 판매를 활성화함. 반면 독립출판은 직접 판매하거나 지역서점 혹은 독립서점에 소량 판매하는 형태를 띰. 주문형 생산 방식에서는 온라인서점이나 독립서점 등의 주문이 있는 경우 소량으로 생산해 납품하는 방식을 가짐. 독립출판물 중에는 ISBN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존의 유통과정은 물론 도서관 납품에도 한계가 있음
- 한편, 구선아·장원호(2018)는 독립출판의 특징을 저항성, 창조성, 고유성, 자주성 4가지로 구분함.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과 기존 질서에 대한 반동을 담은 콘텐츠이며, 개인의 창작을 존중하고, 다른 창작물과 다른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봄. 마지막으로 기존 출판의 기획·제작·유통·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이 독립출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봄

- 외형과 내용의 특징으로 보면 상업출판물(기존 출판물)과 독립출판물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이나 척도로서 개인출판(비기업출판), 자가(自家)출판, 자비(自費)출판, 소량출판, 익명출판 등의 개념 및 요소가 두루 활용될 수 있음

<표 2-1> 독립출판물의 성격 및 특성

요소	특성
제작 주체	출판을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개인 제작자가 집필-편집-제작-마케팅 주도
제작비	제작자 스스로가 부담(자비출판)
익명성	저자에 따라 본명 대신 익명(필명·예명)을 사용하여 표현·제작의 자유 추구
내용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저자의 경험에 기초한 대중적, 자유로운 콘텐츠
출판 분야	에세이를 필두로 한 문학, 실용서, 사진집, 아트북(아티스트북) 등
제작 정교성	교정·교열·편집, 표지·본문 디자인, 제작 등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도가 낮음
제작 방식	대량 제작용 오프셋 인쇄가 아닌 디지털 인쇄 또는 전자책 기반 POD 출판
발행량	수백 부 단위의 발행 (보통 1천 부 이상 발행하는 상업출판물 대비 소량)
가격·분량	비슷한 유형의 상업출판물보다 가격이 대체로 저렴하고 페이지 수가 적음
NO-ISBN	국제표준자료번호에 대한 미인지, 거부 등에 의한 비부착 사례
유통·판매	주로 독립서점과 직거래, 독립출판물 유통 플랫폼 등을 통한 판매

III. 독립출판물의 제작·유통 현황

1. 국내 독립출판물 제작·유통 개황

- POD 출판물을 포함 연간 최대 1만 종, 제외 시 2천 종 내외 출판(추정)
 - 창작자 제작 기반 독립출판물 연간 약 2,000종 출판
 - 개인 POD(Print on Demand) 출판 연간 약 8,000종 출판
 - 개인 제작 독립출판물의 경우 독립서점마다 창작자(제작자) 직거래 방식으로 연간 수백 종의 각기 다른 독립출판물이 입고되어 정확한 집계 불가능함. 주요 독립서점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입고 문의가 매일 10종 내외일 정도로 많고(입고 승인 비율은 10% 이하) 전국적으로 독립서점이 분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정함
- ※ 2017년에 발간된 『INDIE BOOK INDEX 2016』에는 2007~2016년에 발간된 독립출판물 1,746종(창작자 696명/팀)이 수록되어 있음. 서지사항은 제목, 제작자, 판형, 페이지, 발행 연도, 분야 표기에 이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함. 분야는 시, 에세이, 소설, 여행기, 사진집, 일러스트북, 잡지로 구분. 목록 공모를 통한 수록 방식으로, 해당 기간의 전체 출판 목록으로는 보기 어려움
- ※ 현재 주요 독립서점의 판매 도서는 스토리북앤필름 5,464종, 가가77페이지 2,815종, 이후북스 2,453종 등임(각각 품질 도서 포함, 스마트스토어 판매 목록, 2024년 9월 기준)
- ※ 국내서와 해외 원서를 취급하는 더북소사이어티(미디어버스)의 분야별 종수는 미술(513종), 예술일반(369종), 디자인(244종), 문화이론(238종), 건축(121종), 사진(114종), 지역출판(99종), 액티비즘(94종), 정기간행물(93종), 영상(87종), NO-ISBN(64종), 철학(63종), 출판(책에 대한 책 59종), 사회과학(59종), 문학(55종), 환경(47종), 젠더(46종), 과학(19종), 일러스트레이션(18종), 만화(11종) 순임
- 창작자(제작자)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
 - 독립출판물 창작자는 자가출판 플랫폼 이용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매년 신규 진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 후 주문에 따라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자가출판 플랫폼인 부크크, 교보문고(바로출판 POD), 유페이퍼 등 세 곳에 등록된 작가는 2020년 3만 2,067명에서 2024년 8월에 7만 3,263명으로 지난 4년 사이에 2.3배 증가함(김광진, 2024.9.4.)

<그림 3-1> 자가출판 플랫폼 3개사의 등록 작가 증가 추이 (2020~2024)



출처 : 조선일보(2024.9.4.)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4/09/04/PPSCGQZFCSHCEZ5Z26P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독립출판물의 발행 주체는 개인 제작자, 독립서점 겸 독립출판사, 대행 제작업체 등으로 다양
- POD 출판은 부크크, 교보문고 등의 전문업체가 압도적 점유율 차지
 - ※ POD 출판물의 독립출판물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시각차 존재
 - 포함 의견 : 개인 창작물의 제작 대행 방식이고, 일반 상업출판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 출판이므로 포함되어야 함 (POD 출판 저자)
 - 비포함 의견 : 제작 과정에서 원고 제공 이외에는 제작자의 주도성이나 독창성, 예술성 등이 부재함. 전자책도 마찬가지임

○ 독립출판물 플랫폼, 인터넷서점, 독립서점 통해 유통 및 판매

- 개인 제작 독립출판물의 가장 일반적인 유통/판매 방식은 독립서점과의 직거래 형태
- 전국 단위의 독립출판물 유통 플랫폼 인디펍, 주요 인터넷서점(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거래
-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전국 독립서점은 최대 500개로 추정
 - ※ (주)동네서점 등록 독립서점 913개, 도매 플랫폼 인디펍 거래서점 978곳 중 독립출판물을 소량이라도 취급하는 곳을 포함한 추정치. 이 가운데 주로 독립출판물만 취급하는 독립출판물 전문 독립서점은 100개 내외로 추정

- 독립출판물의 주요 독자 및 구매층은 20~30대 여성
 - 일반 상업출판물의 주요 구매층이 40대 여성인 것과 달리, 독립출판물은 20~30대 여성 중심의 독자 시장 형성(주요 독립서점 인터뷰 결과 및 보도 참조)
 - 주요 판매 분야는 개성적인 에세이이며 기타 실용성과 재미가 있는 책이 인기

2. 창작자 제작 기반의 독립출판물 제작·유통·판매

1) 제작 및 판매

○ 독립출판물 제작 현황

- 독립출판물을 제작하는 주체인 창작자(저자, 제작자)는 자신만의 책을 내고 싶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함. 자신만의 콘텐츠를 책에 담아 세상에 선보이고 싶은 창작자들은 계속 증가 추세임
- 독립출판물의 발행 주체는 개인 제작자, 독립서점 겸 독립출판사, 대행 제작업체 등으로 다양
- 신규 창작자들은 여러 자료를 참조해 오로지 자기 노력만으로 출판물을 펴내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경험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예를 들어 독립출판사이자 독립서점인 스토리지북앤필름에서는 <나만의 책 만들기> 워크숍을 2014년에 시작해 2023년 1월까지 106기에 걸친 과정을 운영해 총 2,523명이 참가함(마이크·김현경, 2023). 이 교육과정은 해당 독립서점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함. 또한 워크숍 프로그램, 사회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유료 강의를 수강하거나 관련 도서, 영상(유튜브 등)을 통해 독학으로 해결하기도 함

○ 독립출판물 제작 실무

- 독립출판물의 제작은 출판기획, 글 쓰기, 편집(교정·교열), 디자인(표지, 본문), 인쇄·제본(제책), 유통·판매, 홍보(SNS) 등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 상업출판물의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제본 이후의 랩핑(비닐 포장 선택), 독립출판물 판매처와의 거래 등은 상업출판물과 차이가 있음

○ 출판 제작비

- 독립출판물마다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신규 창작자의 경우 100~200부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독립출판물 제작 출판사의 경우 500~1,000부 발행이 많음. 독립출판물의 제작비는 자비로 해결하거나 텀블벅 등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기도 함

2) 도매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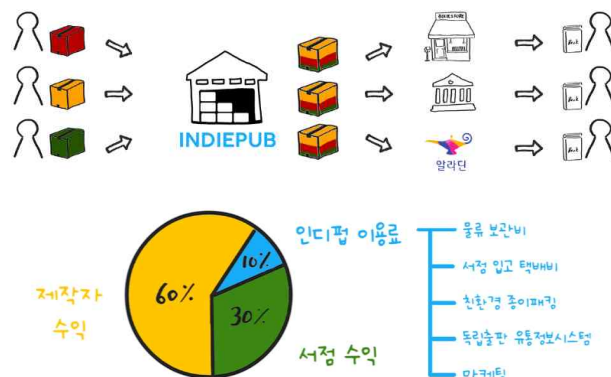
○ 일반도서의 출판 도매 유통 현황

- 한국 출판산업의 출판유통 경로는 ▲출판사-대형 소매서점(온·오프라인) 직거래 방식, ▲출판사-도매업체-지역서점(독립서점) 거래 방식으로 양분됨
- 도매업체는 전국 도매업체로 웅진북센, 교보문고, 한국출판협동조합 등의 비중이 크며, 기타 지역 도매상과 지역 총판(학습참고서, 참고서, 전집 취급) 등이 있음
- 기존 도매업체들은 대부분 상업출판물(단행본, 학습참고서 등)만을 취급하며 독립출판물의 거래는 거의 전무에 가까움(독립출판물은 독립서점과 직거래 위주)

○ 독립출판 전문 유통 플랫폼(도매업체) ‘인디펍’ 사례

- 독립출판물의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해소 목적으로 2017년 7월에 설립
- 2024년 9월 현재 1,359명의 독립출판 제작자와 전국 984곳의 독립서점 및 도서관과 제휴하여 2,922종의 독립출판물 유통(거래 중수, 거래처 수 모두 매년 25% 이상 증가 추세). 이 가운데 거래 중인 도서관 수는 10개임
- ※ 매출 비중 : 독립서점 85%, 일반 고객 10%, 도서관 5%
- 홈페이지 독립출판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고, 판매, 정산, 재고 실시간 파악
- 소량 부수 유통(단 1권의 책도 입고), 온라인서점(알라딘)에서 온라인 판매
- 제작자(출판사 포함)는 60%의 공급률로 독립출판물 유통
- 제작자 선택 사항으로 유료 ISBN 발급 대행 및 납본 대행(대한출판문화협회에 납본)
- 뉴스레터 신간 소개, SNS 마케팅 등
- 시각적 요소와 디자인이 잘 된 책, 개인의 삶을 담은 에세이, 사회적 이슈를 다룬 논픽션 작품 등이 인기

<그림 3-2> 인디펍의 유통 구조 및 수익 분배 구조



○ 해외의 독립출판물 도매 유통 및 관련 사업체 사례

- 영국의 가드너(Gardners)

영국 최대 규모의 도서 도매업체 중 하나로, 독립 출판사와 소규모 출판사의 작품을 주요 유통 채널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50만 종 이상의 도서를 취급하며, 영국 전역의 서점, 온라인 소매업체, 도서관 등에 다양한 출판물을 공급. 주목할 만한 점은 'Hive'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독립서점들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들이 지역서점을 선택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https://www.gardners.com/>, <https://www.hive.co.uk/>

- 캐나다의 북매니저(BookManager)

독립서점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업체. 독립출판사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작품이 서점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도록 지원하며, 서점들이 이러한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주문할 수 있게 지원. 또한 재고 관리 및 주문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점들이 출판사 및 유통사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 더불어 독립서점들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여 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https://www.bookmanager.com/>

- 호주의 소프 보우커(Thorpe-Bowker)

ISBN 발급과 도서 정보 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이 회사는 “Books In Print”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출판물 정보를 제공하여 도서관, 서점, 소비자들이 필요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호주의 공식 ISBN 관리 기관으로서 출판물의 식별과 유통을 위한 ISBN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며, 독립 출판인들을 위한 바코드 생성, 메타데이터 관리, 출판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제공
<https://www.thorpe.com.au/>, <https://www.myidentifiers.com.au/>

3) 판매(독립서점)

○ 전국에 산재한 독립서점 수는 약 1,000개 정도로 추정됨

- (주)동네서점 사이트에 자발적으로 등록한 독립서점 수는 2023년 말 기준 884개, 2024년 9월 기준 913개이며 증가세가 둔화하였으나, 독립서점 전체 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동네서점에 등록된 서점을 포함하여 약 500개 이상의 전국 서점에서 독립출판물을 판매 중인 것으로 추정
- 상당수의 독립서점에서는 일반도서(상업출판 단행본)와 소량의 독립출판물을 함께 취급하며, 독립출판물 위주로營業을 하는 곳은 100개 정도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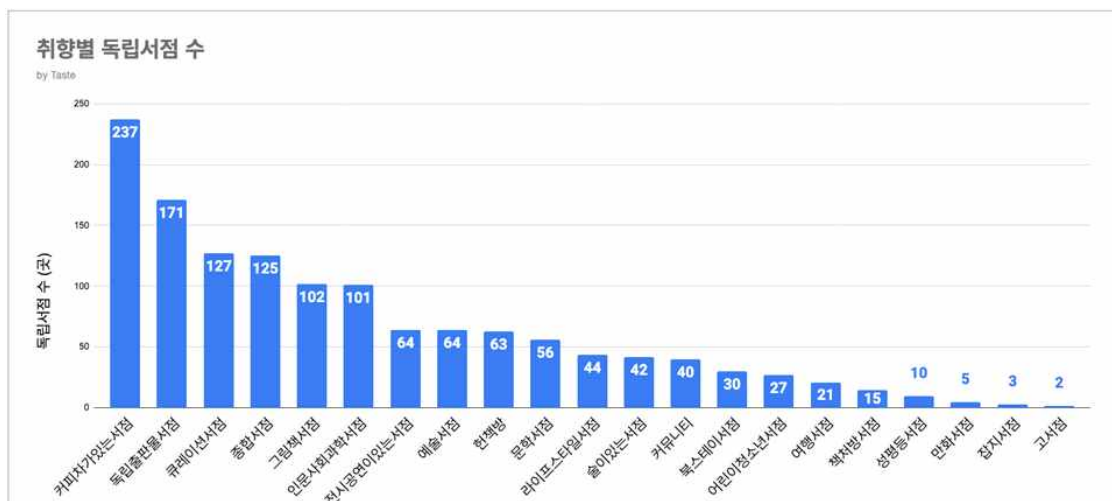
※ (주)동네서점 사이트에서는 독립서점 유형별로 ‘독립출판물 서점’이 171개임 (2022년 기준)

<표 3-1> 전국 독립서점 증감 추세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운영 중	97	180	283	416	551	634	745	815	884
연 증감 수		▲ 83	▲ 103	▲ 133	▲ 135	▲ 83	▲ 111	▲ 70	▲ 69
누적 등록	101	186	308	466	650	761	926	1031	1135
누적 휴·폐점	-4	-6	-25	-50	-99	-127	-181	-216	-251
누적 휴·폐점률		-3.2%	-8.1%	-10.7%	-15.2%	-16.7%	-19.5%	-21.0%	-22.1%

출처 : (주)동네서점(2024), 동네서점 트렌드 Bookshopmap Trend 2023. <https://www.bookshopmap.com/>

<그림 3-3> 독립서점의 분야별 분포



출처 : (주)동네서점(2023), <동네서점 트렌드 Bookshopmap Trend 2022>

○ 독립출판물 전문 독립서점 현황

- 학습참고서를 취급하지 않고 서점주의 취향과 큐레이션, 유료 강좌,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 영위하는 독립서점은 전국에 약 1,000개 분포
- 독립서점은 독립출판물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부터 일반 상업출판물을 취급하면서 친분이 있는 창작자의 책만 극소량 판매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음(소량이라도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서점은 약 500개로 추정)
- 이 가운데 독립출판물 전문 독립서점은 독립출판물, 아트북 등을 취급하며 출판 활동을 병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다시 양분됨
- 독립출판물 전문 독립서점 중 스토리지북앤필름, 가가77페이지 등은 자체 출판물을 제작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함
- 국내 대표적인 독립출판물 전문서점 중 한 곳인 스토리지북앤필름이 추천하는 전국의 독립서점은 다음과 같음

<p>서울 : 스토리지북앤필름, 유어마인드, 낮저스트북스, 스페인책방, 이라선, 헬로인디북스, 가가77페이지, 이후북스, 무엇보다책방, 아인서점, 픽셀퍼인치</p> <p>경기 : 낮설여관204호, 그런 의미에서, 브로콜리숲, 오혜, 오펜</p> <p>기타 지역 : 더폴락(대구), 다다르다(대전), 누군가의 책방(경주), 낮가리는 책방(여수), 고스트북스(대구), 동아서점(속초), 라바북스(제주)</p> <p>출처 : 마이크/김현경, 『기획에서 유통까지, 나만의 책 만들기』, 스토리지북앤필름, 2023</p>
--

○ 독립출판물의 판매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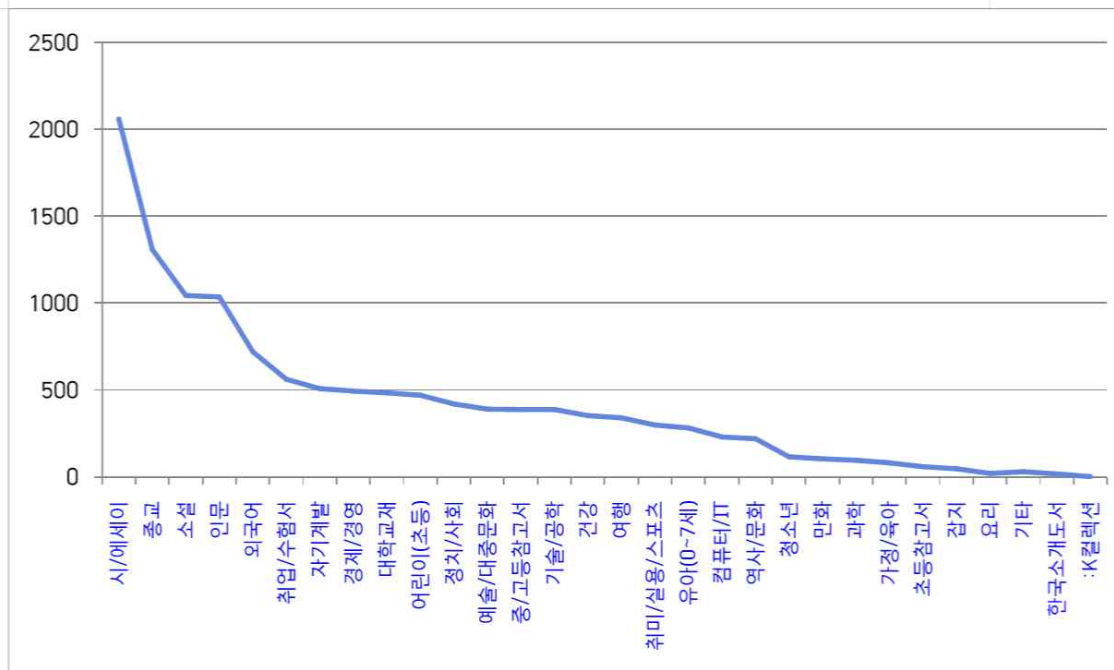
- 독립출판물의 유통 절차는 입고, 판매, 정산, 반품의 네 단계로 이루어짐(민승원, 2018.3.) 이는 일반도서의 위탁 판매 시 거래 방식과 대동소이함
- 독립출판물 제작자가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전국의 독립서점에 책을 소개하며 입고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고(흔히 ‘입고 메일’로 통칭), 독립서점으로부터 입고 승인을 받으면 창작자(제작자) 부담으로 택배 배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 전국에 산재한 독립서점에 대한 망라적인 정보는 구하기 어려우며 창작자는 (주)동네서점 사이트를 통해 서점 정보를 얻거나 신규 서점 소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함. 창작자-독립서점 직거래가 아닌 경우 독립출판물 도매업체인 인디펍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음.(dung LEE·EGOn[이보현·이곤], 2023, 67쪽). 인스타그램에 ‘독립서점입고’ 등으로 검색하여 활용하기도 함
- 해당 독립서점은 서점의 특색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의 입고 여부를 결정함. 상당수 제작자들은 입고 승인을 받지 못해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음. 제작자는 입고를 위해 별도의 입점비를 지불하기도 함. 그와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

- 독립서점이나 신생 독립서점들은 입고 문의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입고 조건은 대개 정가 대비 개인은 65% 공급률(= 서점 판매 수수료 35%) 및 출판 사업자는 70% 공급률, 위탁(반품 가능) 또는 매절(현금 구입), 정산 기간, 책 5권(또는 10권) 및 샘플 1권 송부(택배 또는 방문)가 많음
 - 판매되지 않은 책은 반품을 해야 하거나 책이 전부 판매된 경우 재입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움이 따름. 독립서점 운영자는 창작자(제작자)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품질 및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고를 요청함. 재입고 요청을 받은 창작자가 책을 발송하는 시간도 오래 걸림
 - 입고 시 택배비는 제작자가 부담하고 반품 시에는 독립서점이 부담
 - 많은 독립서점이 독립출판물 판매 시 POS(판매정보시스템) 대신 수기 장부를 이용함

3. POD 출판 기반의 독립출판물 제작·유통 현황

- 주문형 출판 방식인 POD(Publish on Demand, Print on Demand) 출판은 디지털 저작물을 미리 대량으로 제작하지 않고 주문이 있으면 소량 제작하여 판매함
- 개인출판, 독립출판에서 종이책 및 전자책의 제작 과정은 상업출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창작자가 스스로 많은 제작 과정을 진행하므로 편리함과 복잡함이 공존(류영호, 2018.3.)
 - 개인출판의 성장을 이끄는 힘은 출판 제작 기술의 변화이며, 원고 편집 소프트웨어 및 소량 주문형 인쇄출판의 발달을 상징하는 것이 POD 출판임
 - 미국 아마존닷컴의 KDP(Kindle Direct Publishing) 서비스는 개인 작가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높은 인세율을 보장하고 강력한 마케팅을 지원하며 관련 서비스의 선행 모델이 됨
- 교보문고의 바로출판 POD(퍼플)
 - 누구나 손쉽게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개인 출판 서비스로 2011년에 시작
 - 출판사에 투고되는 원고의 대부분이 거절당하는 상황에서 신인 작가, 전문 학술서 저자 등이 퍼플 서비스를 통해 종이책과 전자책 출판
 - 전용 디자인이 적용된 저작물을 활용하여 PDF 파일로 출판 원고 완성, 교보문고 온·오프라인 진열, 검색, 판매. 종이책 및 전자책 판매 시 20%의 인세 보장
 - 개인 출판 부문 총 12,567종(누적) 출간(2024.9. 현재)
 - ※ 출판사 등 B2B 이용자를 포함한 총 발행 종수는 38,415종이며, 이 가운데 개인 출판이 약 33% 차지
 - 시·에세이, 종교, 소설, 인문 분야의 비중이 높음
 - 대학 교수 등 소량 출판을 하고자 하는 전문직 이용자가 많은 편임
 - 발행 도서에 ISBN 부착 및 국립중앙도서관 직접 납본

<그림 3-4> 교보문고 바로출판 POD 서비스의 출판 분야별 발행 종수(2024.9.)



<표 3-2> 교보문고 바로출판 POD 서비스의 개인출판(퍼플)/POD 현황(2024.9.)

개인출판		POD 전체	
대분류	Record Count	대분류 (POD 전체)	Record Count
시/에세이	2,060	시/에세이	10,427
종교	1,309	소설	4,790
소설	1,044	인문	3,199
인문	1,036	종교	3,174
외국어	720	경제/경영	2,307
취업/수험서	562	예술/대중문화	1,561
자기계발	508	어린이(초등)	1,499
경제/경영	494	외국어	1,382
대학교재	484	취업/수험서	1,212
어린이(초등)	470	자기계발	1,154
정치/사회	420	중/고등참고서	909
예술/대중문화	390	정치/사회	789
중/고등참고서	388	여행	775
기술/공학	388	컴퓨터/IT	684
건강	353	대학교재	520
여행	340	역사/문화	519
취미/실용/스포츠	299	기술/공학	513
유아(0~7세)	282	청소년	499
컴퓨터/IT	230	건강	469
역사/문화	220	유아(0~7세)	442
청소년	116	취미/실용/스포츠	428
만화	104	가정/육아	387
과학	96	과학	265
가정/육아	81	만화	127
초등참고서	59	잡지	118
잡지	47	초등참고서	83
요리	20	요리	67
기타	30	한국소개도서	64
한국소개도서	17	K컬렉션	2
K컬렉션	2		
	12,567		38,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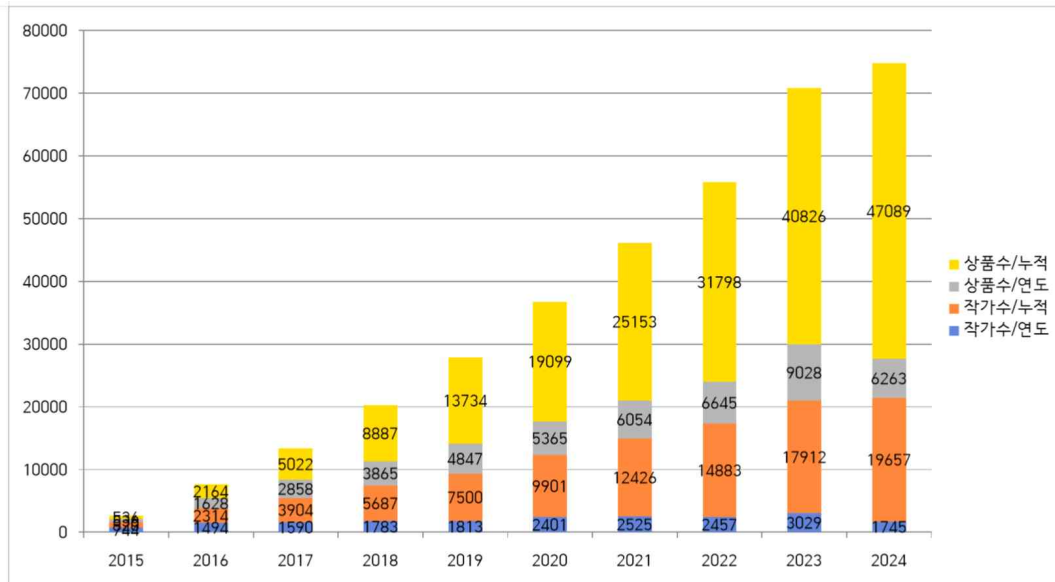
○ POD 자가출판 플랫폼 부크크(BOOKK)

- 국내 최대 POD 출판 플랫폼으로 개인 POD 출판시장의 약 80% 점유 추정
- 2015년부터 2024년 8월 말 현재까지 10년간 47,089종 출간
 - ※ 2015년 536종에서 2023년 9,028종으로 약 17배 성장
- 누적 발행 분야는 에세이(21.9%), 소설(16.9%), 시(14.5%), 교재·참고서(8%), 경제경영·자기계발(7.6%), 종교(5.6%), 어린이·청소년(4.9%), 인문(4.8%) 순이며 에세이/소설/시를 포함한 문학이 53.3%로 과반수 차지
- 누적 작가 수는 2015년 820명에서 2024년 8월 현재 19,657명으로 약 24배 성장
- 도서 형태 결정, 원고 등록(원고 서식 제공), 표지 디자인, 가격 정책, 최종 확인 등 편리한 5단계 출판 프로세스로 누구나 작가가 되도록 최적화된 지원
- 주요 인터넷서점 및 영풍문고 등과 거래, 최소 재고량(8부 제작) 유지 및 출고
- 부크크는 출판사로서 발행 도서에 ISBN을 발급,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

<표 3-3> 부크크의 POD 출판 종수 추이 (2015~2024.8.)

연도	작가수 (연도별)	작가수 (누적)	상품수 (연도별)	상품수 (누적)
2015	744	820	536	536
2016	1,494	2,314	1,628	2,164
2017	1,590	3,904	2,858	5,022
2018	1,783	5,687	3,865	8,887
2019	1,813	7,500	4,847	13,734
2020	2,401	9,901	5,365	19,099
2021	2,525	12,426	6,054	25,153
2022	2,457	14,883	6,645	31,798
2023	3,029	17,912	9,028	40,826
2024	1,745	19,657	6,263	47,089

<그림 3-5> 부크크의 POD 출판 종수 및 작가 추이 (2015~2024.8.)



<표 3-4> 부크크의 POD 출판 분야별 현황 (2015~2024.8.)

연도	에세이	시	소설	교재/참고서	어린이/청소년	경제/자기계발	종교	예술/문화	인문	과학/IT	전기/회고록	여행	가정/생활	정치/사회	역사	진진로	무로 체험
2015	64	97	162	11	23	34	26	25	30	10	12	6	12	10	8	7	-
2016	243	330	312	163	29	178	63	63	73	32	39	18	23	20	18	15	8
2017	493	393	697	277	117	232	83	91	140	69	55	64	27	48	31	38	3
2018	811	583	862	276	113	232	137	162	196	75	130	102	63	44	34	37	8
2019	1,026	771	1,017	274	143	228	352	177	254	102	94	127	44	115	37	81	6
2020	1,262	677	962	388	209	352	309	235	289	112	124	131	148	80	47	35	5
2021	1,520	890	909	466	282	383	415	242	306	115	151	101	96	88	58	28	4
2022	1,725	1,002	912	583	283	450	462	290	319	134	143	103	82	74	30	49	4
2023	2,015	1,286	1,314	715	497	931	464	438	395	315	187	143	113	111	35	61	9
2024	1,140	801	796	643	600	585	341	308	261	196	160	119	105	83	80	31	15

4. 국내외 독립출판물 페어 개최 현황

1) 국내 독립출판물 페어

○ 개요

- 국내에서는 2004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서울국제북아트전이 개최된 이래 독립출판물 제작자들이 중심이 된 언리미티드에디션(2009년 시작), 서울퍼블리셔스테이블(2013년 시작)이 개최되어 큰 인기를 누림. 이러한 흐름은 부산, 대구, 순천 등 지역 독립서점 등 민간이 주관하는 페어들로 확산 경향을 보임. 2020년 전후로 지자체와 도서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독립출판물 및 아트북 페어를 개최하는 곳들이 증가함
- 독립출판물 페어 행사장에서는 독립출판물 도서 및 아트북 전시, 판매, 강연, 세미나, 워크숍, 체험, 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2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독립출판물의 판매와 대중화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함
- 행사 운영은 대체로 지역의 독립출판물 제작자나 독립서점 경영자 등이 중심이 되어 기획운영팀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자 모집, 행사 진행
- 참가 팀은 전국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 독립서점 등 국내 참가자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과 외국 참가자가 증가 추세임

○ 효과

- 각지에서 개최하는 독립출판물 페어는 독립출판물 직거래 장터로 창작자-관람객(독자)의 소통 및 창작-향유 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함
- 지역 독립출판사 및 독립서점 주도의 기획과 행사 진행, 국내외 독립출판물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가를 통한 독립출판물 생태계의 확장에 기여함
- 전국 각지에서 독립출판물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경험 기회와 창작자 확산의 계기를 마련함
- 서울 이외 지역에서 개최하는 페어의 경우 절대 다수의 외부 참가자와 외래 관람객 유입에 따른 체류 및 관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음

○ 언리미티드에디션(서울아트북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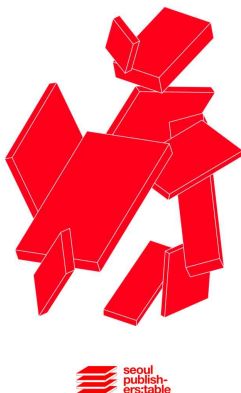
- 2009년부터 시작한 독립출판 및 아트북 페어, 2023년에 220팀 참가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의 독립출판물 전문 페어로 알려짐. 개최 장소는 초기에 당인리발전소 인근 무대륙, 복합예술공간 네모, 일민미술관 등의 공간에서 열리다가 2017년부터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고정 개최
- 주최 : 유어마인드, 서울시립미술관
-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만 명 이상 관람



○ 서울퍼블리셔스테이블

- 2013년에 시작된 독립출판 페어로 헬로인디북스와 스토리지북앤필름이 연합하여 개최하다가, 디자인스튜디오 금종각을 거쳐 스토리지북앤필름이 주최
- 서울역의 문화역 284, 한남동 디뮤지엄, 성수동 디뮤지엄, 홍대 무신사 테라스 등의 공간에서 개최하다가 2024년은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개최
- 주최 : 스토리지북앤필름
- 2024년 10월 행사에 230팀 참가 예정
- 관람객 : 2019년 약 2만 명, 2023년 1만 명 수준

2024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10.18.24-10.20.24
성수 S-팩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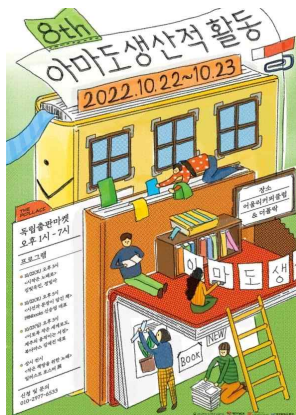


○ 리틀프레스페어

- 2015년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에서 열린 언더그라운드 마켓을 시작으로 퍼블리셔스테이블, 책보부상을 거쳐 리뉴얼(마이크·김현경, 2023)
- 스토리지북엔필름과 김현경, 장하련, 오종길 작가가 함께 만드는 페어로 2022년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려 142팀이 참가하고 워크숍 등 진행. 2023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2회 행사 개최. 2024년에는 국립극장과 함께 페어를 만들어 개인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 동네 책방 등 50여 팀이 참여하여 출판물과 굿즈 등 판매

○ 아마도 생산적 활동

- 대구의 독립책방 더폴락이 운영하는 독립출판 및 음반 페스티벌로 2024년에 제10회 행사 개최. 40팀 내외 참여. 2024년 행사장은 대구 제임스레코드이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광역시 후원
- 1년에 한 번씩 독립출판물 주제로 열리는 소규모 축제로 독립출판물 판매, 창작자 토크 및 제작 음반, 중고 음반 판매, 뮤지션 공연 등 행사 진행



○ 프롬더메이커즈(부산아트북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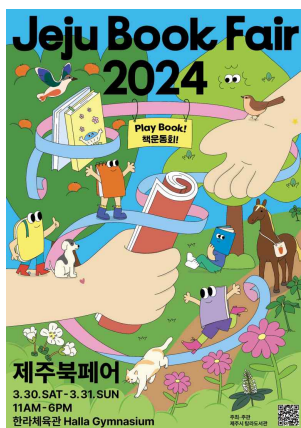
- 2016년 부산의 책방 샵메이커즈와 프롬이 만든 아트북 페어로 2017년에 제2회, 2019년에 제3회를 개최하였고 매회 100여 팀이 참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열리는 첫 아트북 페어
- 2021년에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2021 부산아트북페어 - 프롬더메이커즈’가 열려 각 분야에서 5년 이상 출판 활동을 지속한 30팀이 참여하여 대표작을 전시·판매함

○ 순천아트북페어-자란다

- 2018년 전남 순천의 독립책방 책방심다에서 ‘독립출판씨앗학교’ 프로그램(순천시 청년도전 역량강화 공모사업 선정)의 일환으로 진행한 독립출판 축제로 시작. 순천시 청년센터 꿈꾸는청춘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책과 아트 상품 판매, 강연과 공연 행사 개최. 전국 43팀 참가
- 2021년에 호남 지역 대표 독립출판 축제인 ‘제4회 순천아트북페어 자란다’를 책방심다 등의 주최로 개최. 독립출판 마켓(91팀이 온라인 참여), 순천기적의도서관에서의 특별전시,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 등 행사 운영

○ 제주북페어

- 2018년에 열린 ‘탐라 전국지역출판도서전’ 행사를 발판 삼아 2019년에 탐라도서관 주최로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1회 제주북페어 - 책운동회’를 연 이래 2024년에 제4회 행사를 개최함
- ※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개최하는 독립출판물 북페어임
- 제1회 행사에 참가한 200팀 중 63%가 제주도 이외 지역의 참가자일 만큼 외부 비중이 높음
- 주최·주관 : 탐라도서관
- 독립출판물 제작자, 출판사, 독립서점 등 200팀 참가(440팀 참가 신청)
- 북페어, 전시, 세미나,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장점(특징) : 빠른 개최 시기 및 벚꽃 명소라는 장소, 프로그램의 다양성(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팝업 놀이터 및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세미나, 북토크), 쓰레기 없는 행사장, 포토존, 참가팀을 배려한 운영(강지원, 2024.9.)



○ 인천아트북페어

- 2024년에 제5회 개최, 160팀 참가
- 주최 : 인천광역시(2024년 주관 : 북극서점)



○ 부산마우스북페어

- 2023년에 첫 회 개최, 창작자 125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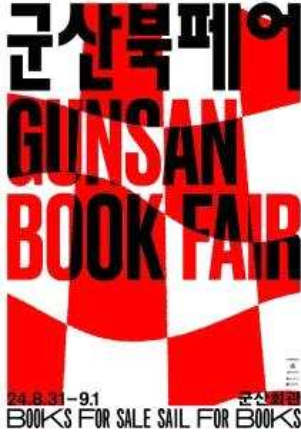
○ 전주책쾌(독립출판 북페어)

- 2023년에 시작, 2024년에 제2회 개최 89팀 참가
- 주최 : 전주시, 주관 : 전주시도서관
(기획·운영 : 물결서사, 에이커북스토어, 책만들기실험실, 공간 리허설 등의 대표)
- 설문조사 결과, 방문자는 20대 46.2%, 30대 29.8%, 40대 13% 순으로 전체 방문자의 76%가 20대~30대이며, 방문자의 거주지는 전주 63%, 전주 이외 전북 14.4%, 전북 이외 타 도시 22.6%로 나타남



○ 군산북페어

- 2024년에 제1회 개최, 100팀 참가
- 독립출판물 판매, 강연회 등 프로그램 운영
- 주최 : 군산시, 군산시립도서관, 소통협력센터 군산, 주관 : 군산책문화발전소



○ 서울국제도서전

- 2004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제1회 서울세계북아트전 개최(11개국 50팀 참여)
※ 국내에서 최초로 ‘북아트’ 명칭을 사용한 국제 행사
- 주최 : 대한출판문화협회
- 매년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독립출판물 코너 ‘책마을’ 운영(2024년 서울국제도서전 관람객 15만 명)



○ 기타

- 대개 1년에 1회 정례적으로 열리는 북페어 이외에도 전국에서 다양한 주최자들의 기획으로 일회적 전시·판매 행사가 수시로 열리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행사 내용이 공유됨

2) 해외 독립출판물 페어(아트북 페어)



- 전 세계 아트북페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대략 세계 150여 개 도시에서 아트북페어 또는 유사한 독립출판 북페어가 운영되고 있음(임경용, 2024.9.)
 -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세계의 모든 대륙을 아우름
 -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로 상징되는 북페어(도서전)의 역사는 매우 길지만, 예술가가 만든 아티스트북과 개인이나 공동체가 만든 소규모 독립출판을 대상으로 하는 아트북 페어 형식이 자리잡은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임
 - 아트북 페어의 역할은 출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며 지속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음
 - 일반적인 북페어가 출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산업의 외연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며 보급하는 역할에 치중했다면, 아트북 페어와 같은 독립출판 북페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책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

- 그렇지만 실험적으로 제작한 상업출판물이 나오고 상업출판물과 내·외형에서 차이가 없는 독립출판물이 다수 발간되면서 양자 간의 경계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북페어와 독립출판 북페어(아트북 페어)의 경계도 엄밀하지는 않음. 기존 상업출판사 중심의 북페어와 개인 창작자(제작자) 중심의 페어라는 참가자 특성이 가장 큰 특성으로 볼 수 있음

○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독립출판물이 포함된 ‘아트북페어’를 개최함

- 오스트리아 빈 아트북페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4년에 지구촌에서 개최하는 주요 아트북페어만 36개 소개. 한국은 ‘언리미티드에디션’ 포함
- 미국 : 뉴욕 아트북페어, 로스앤젤레스 아트북페어 등 미국 주요 도시 개최
- 유럽 : 런던 아티스트북페어, 요크셔 할리팩스 아티스트북페어, 빈 아트북페어 등
- 아시아 : 도쿄, 후쿠오카, 싱가포르, 상하이, 방콕, 타이베이 등의 아트북페어
- 독립출판물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트북을 중심으로 독립출판 도서와 잡지 판매, 관련 전시 및 강연 행사 등 개최

<표 3-5> 세계의 주요 아트북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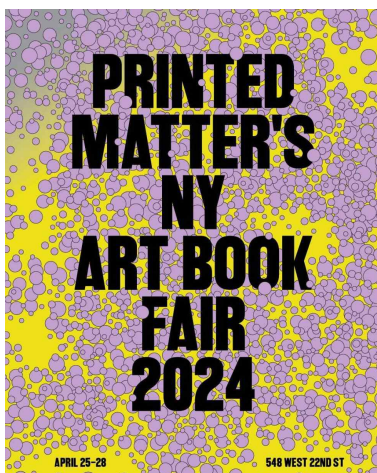
November 2024	28-30 Tokyo Art Book Fair, Tokyo, Japan 22-24 Taipei Art Book Fair, Taipei 16-17 Volumes, Zürich, Switzerland 15-17 Unlimited Edition. Seoul Art Book Fair, Seoul, South Korea tba Super Books, Munich, Germany
October 2024	25-27 Singapore Art Book Fair, Singapore 11-13 MISS READ: Berlin Art Book Festival, Berlin, Germany 04-06 Athens Art Book Fair, Athens, Greece 05 Chicago Zine Fest, Chicago, IL, USA
September 2024	06-08 Indiecon, Hamburg, Germany 12-15 IABF @Ca' Bucciari, Venice, Italy 14-15 GHMP Art Book Fair, Prague, Czech Republic
August 2024	31 Zincinnati, Cincinnati, OH, USA
July 2024	18-21 SF Art Book Fair, San Francisco, USA
June 2024	12-15 I Never Read Art Book Fair Basel, Basel, Switzerland 08 Mini Volumes, Zurich, Switzerland
May 2024	23-26 Reykjavik Art Book Fair, Reykjavik, Island 17-19 Offprint London Book Fair, London, UK 17-19 Paris Ass Book Fair, Paris, France 11-26 Booked, Helsinki, Finland 11-12 Ghent Art Book Fair, Ghent, Belgium 10-12 Fanzineist, Vienna, Austria 03-05 border_less ARTBOOK DAYS, Istanbul, Turkey
April 2024	25-28 Printed Matter's NY Art Book Fair, New York City, USA 26-28 Madrid Art Book Fair, Madrid, Spain

March 2024	20		MZF Milwaukee Zinefest, Milwaukee, Wisconsin, USA
	12-14		Bergen Art Book Fair, Bergen, Norway
	06-07		Capital Art Book Fair, Washington DC, USA
February 2024	30-31		Trafic #2 Salon de l' édition indépendante, Marseille, France
	23		It's a book. Independent Publishing Fair, Leipzig, Germany
	06-10		ArtsLibris - ARCOmadrid, Madrid, Spain
January 2024	18-19		Edinburgh Zine Festival, Edinburgh, UK
	02-04		P.A.G.E.S., Geneva, Switzerland
	18-21		Index Art Book Fair, Mexico City, Mexico

출처 : 오스트리아 빈 아트북페어 홈페이지 <https://daskunstbuch.at/art-book-fairs-2020/>

○ 뉴욕 아트북페어

-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북페어이며, 1976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자 서점인 프린티트 매터(Printed Matter)의 주관으로 2006년에 시작된 독립출판 페어¹⁾
- ※ 프린티트 매터는 연간 45,000종의 아트북과 독립출판물을 유통·판매하는 서점으로 뉴욕커들의 사랑을 받음
- 매년 30개국 이상에서 370팀 이상 참가, 4만 명 이상 관람
- 2024년 행사에 31개국 참가(한국에서 더북소사이어티, 닷프레스 참가)
- 2013년부터는 LA 아트북페어도 병행 개최
- 예술가들의 책을 발견하고 예술출판을 경험하는 장으로 활용
- 무료 입장, 후원자들의 기부금 받음
- 판매 전시회, 공연,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자유로운 표현, 비판적 성찰, 커뮤니티를 중시함



<https://nyabf2024.printedmatterartbookfairs.org/about>

1) 서점 오너인 마커스 캠벨은 1990년대부터 런던 아티스트북페어를 운영했으며, 당시 디렉터였던 브론슨이 예술가, 출판사, 컬렉터, 딜러, 유통업자, 기관 등 80명을 한곳에 모아 시작(버나드 셀라·레오 판다이센·아그네스 블라하, 2024, pp.276~279)



2024 뉴욕 아트북페어에 참가한 한국의 더북소사이어티/미디어버스 부스
<https://www.thebooksociety.org/?q=YToxOntzOjEyOjZlZXI3b3JkX3R5cGU6ImZlYXNpdj98bm9keS121439437&t=board>

○ 도쿄 아트북페어

- 2009년에 시작된 아트북, 아티스트북, 진(zine, 잡지) 등을 제작하는 개인, 그룹, 기업 등이 독립출판물을 판매하고 특별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최대 규모 아트북페어의 위상
- 일본 국내외 개인 아티스트, 갤러리 등 350개 팀 참가, 2만 명 이상 관람
- 2023년의 경우 11월의 4일간 도쿄현대미술관에서 개최
- 주빈국 개념의 게스트 컨트리를 선정하여 운영. 2023년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 초청
- 2개의 아카이브 특별 전시 및 진 특별 전시
- 입장료 1,000엔
- 주최 : 사단법인 도쿄아트북페어, 도쿄현대미술관
- 행사는 전시 분야와 공모 부스 분야로 구분하여 개최
- 2023년부터 서울의 아트북 페어인 언리미티드에디션과 신진 작가 양성 목적의 부스 초대(교환) 프로그램 운영



<https://tokyoartbookfair.com/archives/>

3) 국내외 독립출판물 페어(아트북페어)의 차이

- 독립출판물 도서전(아트북페어)은 2000년 이후 국내외에서 시간차를 거의 두지 않고 동시에 발전하는 양상이며, 기존 상업출판 도서전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림
- 해외 북페어는 민간 단체 등이 주도하는 경향이거나, 국내의 경우 독립출판물 전문서점 주최,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주최 등 운영 주체가 민관을 아우름
 - 뉴욕 아트북페어, 도쿄 아트북페어 등은 민간 비영리기관에서 주최·주관함
 - 국내의 경우 선발 북페어인 언리미티드에디션(서울아트북페어)과 서울퍼블리셔스스테이블은 독립출판물 전문 출판사·서점이 주최하는 반면, 후발 북페어인 제주북페어, 인천아트북페어, 전주책꽂이, 군산북페어 등은 지자체·도서관이 주최
- 해외에서는 아트북페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험적인 아티스트의 독립출판물과 시각성이 강한 아트북이 중심이나, 국내에서는 개인 제작 에세이집 등 독립출판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텍스트 중심의 작품도 많아 북페어 출판 작품의 성격·내용 측면의 차이가 있음
 - 전시·판매 및 전시, 북토크,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는 큰 차이가 없음

Ⅳ. 독립출판물 제작·유통 종사자의 납본 관련 인식 조사

1. 조사 개요

○ 지난 2년 동안(2022.9.~2024.8.) 독립출판물을 발행하거나 판매한 경험이 있는 창작자, 출판사(제작사), 유통업체, 독립서점 등 독립출판물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독립출판물 관련 인식 및 납본 관련 웹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기간 : 2024.9.6.~9.30.

- 조사 방법 : 독립출판물 페어 참가자, 유통사, 독립서점 등에게 표준화된 웹 설문지 링크 발송(SMS, 이메일), 링크 접속 자기기입식 응답

- 응답 결과 : 총 202명(창작자 50.5%, 독립서점 31.2%, 출판사 7.4%, 유통사 6.4%, 기타 5.7%)

○ 설문 조사표 구성

▶ 기본사항 : 연령, 성별, 거주지역, 종사기간

▶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 독립출판물 관련 종사 분야

- 관련 독립출판물의 출판 분야

- 독립출판물의 장점

- 독립출판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유

-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 가치, 다양성 여부, 가격 정도, 유통 활성화 정도, 발행 전망, 시장 전망

▶ 납본 관련 경험

- 납본 제도 인지도

- 납본(또는 권유)경험및 납본(또는 권유)/미납본(또는 미권유)의 이유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 인지도

- 관련 독립출판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착 정도, 미부착 이유

▶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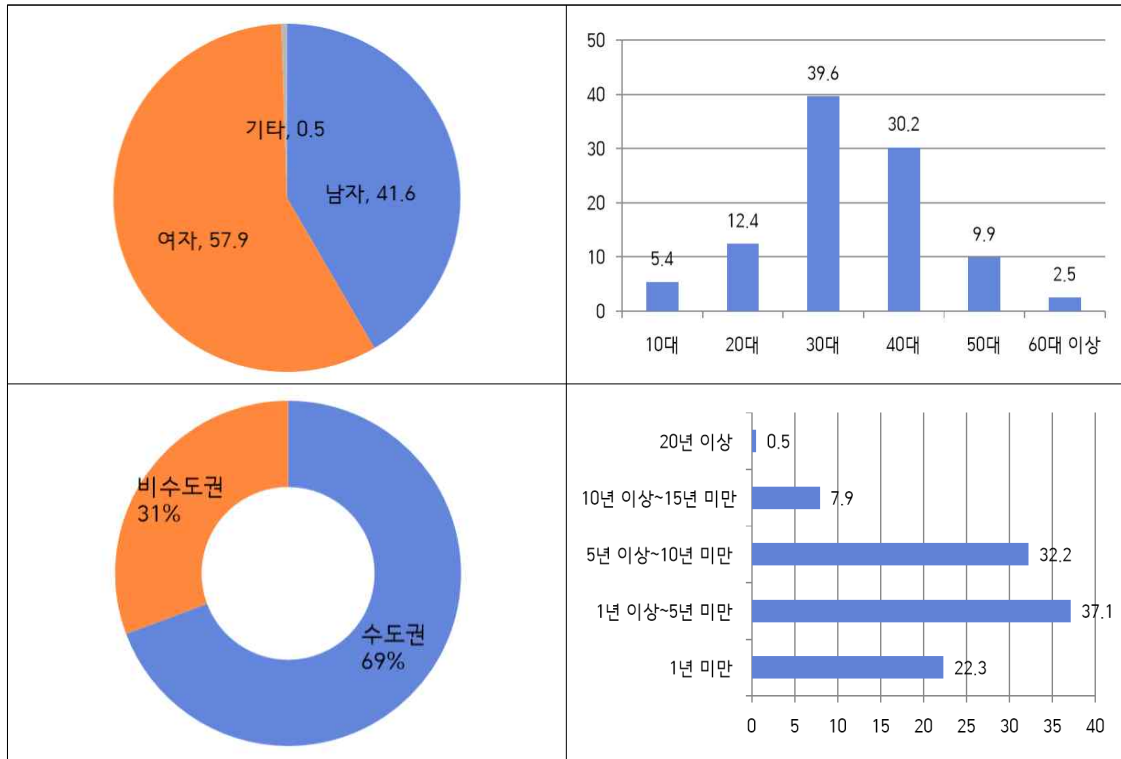
- 현행 독립출판물 납본 제도 만족도, 만족/불만족 이유

- 독립출판물의 납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바라는 점

- 독립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정책

- 응답자 특성 : 성별로 여성(57.9%), 연령별로 30~40대(69.8%), 수도권 거주자(69%), 1년 이상~10년 미만 기간의 종사자(69.3%)가 다수 차지

<그림 4-1> 응답자 특성 (성, 연령, 거주지, 종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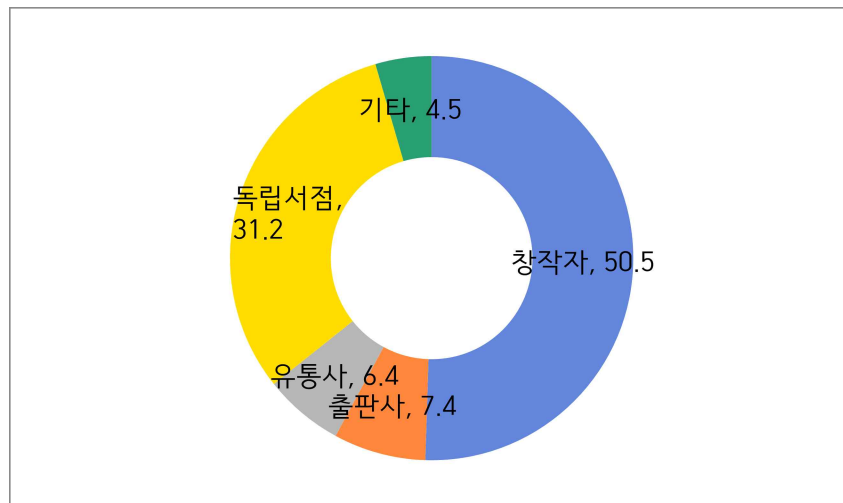


2. 독립출판물 관련 인식

1) 독립출판물 관련 종사 분야

- 응답자의 종사 분야는 ‘창작자’ 50.5%, ‘독립서점’ 31.2%, ‘출판사’ 7.4%, ‘유통사’ 6.4%, ‘기타’ 4.5% 순
- 연령별로 창작자는 10~30대 비율이 높고, 독립서점은 40~50대 비율이 높음
 - 종사 기간이 짧을수록 창작자 비율이 높고, 기간이 길수록 독립서점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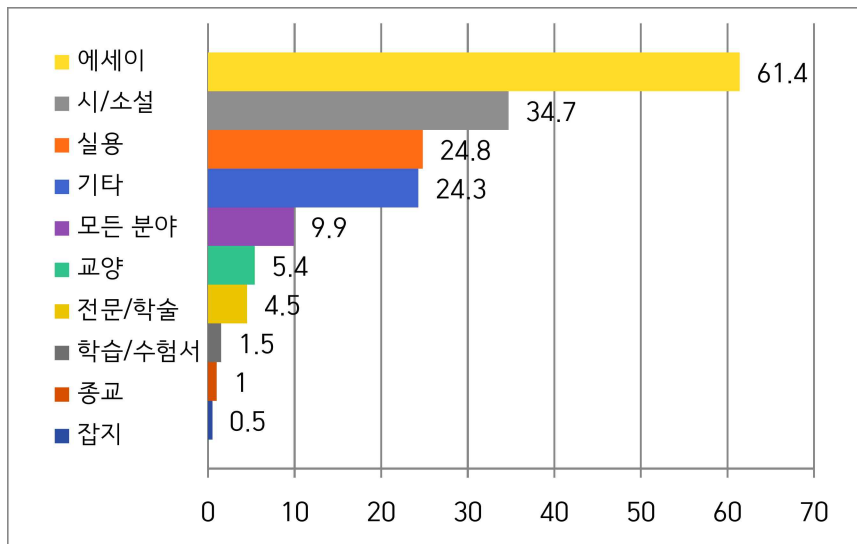
<그림 4-2> 독립출판물 관련 종사 분야 (%)



2) 관련 독립출판물의 출판 분야

- 응답자와 관련된 독립출판물 분야는 ‘에세이’ 61.4%, ‘시/소설 등 문학(에세이 제외)’ 34.7%, ‘실용’ 24.8%, ‘기타’ 24.3%, ‘모든 분야’ 9.9%, ‘교양’ 5.4%, ‘전문/학술’ 4.5%, ‘학습참고서/수험서/자격증’ 1.5%, ‘종교’ 1%, ‘잡지’ 0.5% 순
- ‘에세이’는 전 연령층에서, ‘시/소설’은 10~20대에서, ‘실용’ 분야는 3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타’ 분야는 “만화(컷툰), 동화/그림책, 번역서, 사진집, 음악 앨범북, 엽서북, 일러스트북, 마음에 위로가 되는 책, 영화 감상평, 예술, 사회적 이슈, 인문, 시민 작가 공모작” 등의 응답이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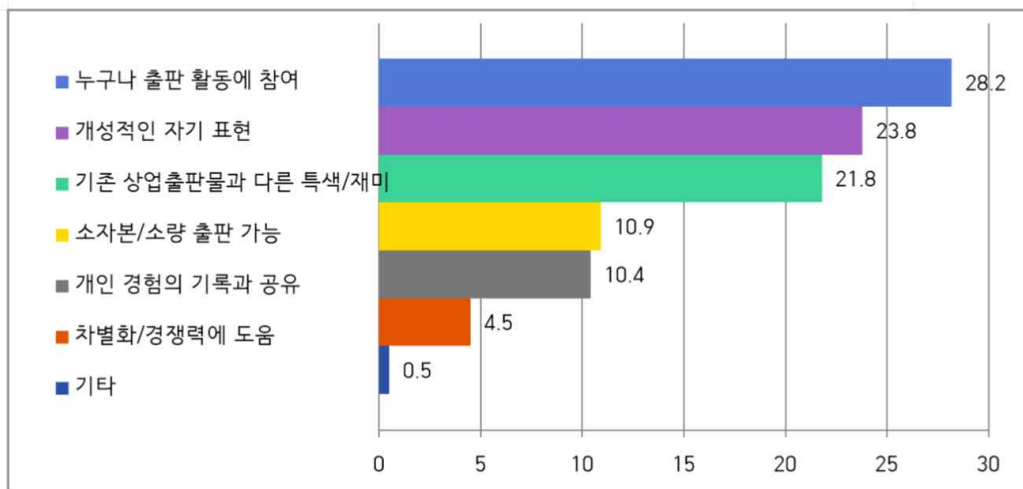
<그림 4-3> 관련 독립출판물의 분야 (2순위까지 복수응답, %)



3) 독립출판물의 장점

- 독립출판물의 장점으로서는 ‘누구나 출판 활동에 참여’ 28.2%, ‘개성적인 자기 표현’ 23.8%, ‘기존 상업출판물과 다른 특색/재미’ 21.8%, ‘소자본/소량 출판 가능’ 10.9%, ‘개인 경험의 기록과 공유’ 10.4%, ‘기타’ 0.5% 순
- 종사 분야별로는 ‘누구나 출판 활동 참여’는 창작자(32.4%), ‘기존 상업출판물과 다른 특색/재미’는 독립서점(38.1%), ‘소자본/소량 출판 가능’은 출판사(20%), ‘차별화/경쟁력에 도움’은 유통사(23.1%)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4-4> 독립출판물의 장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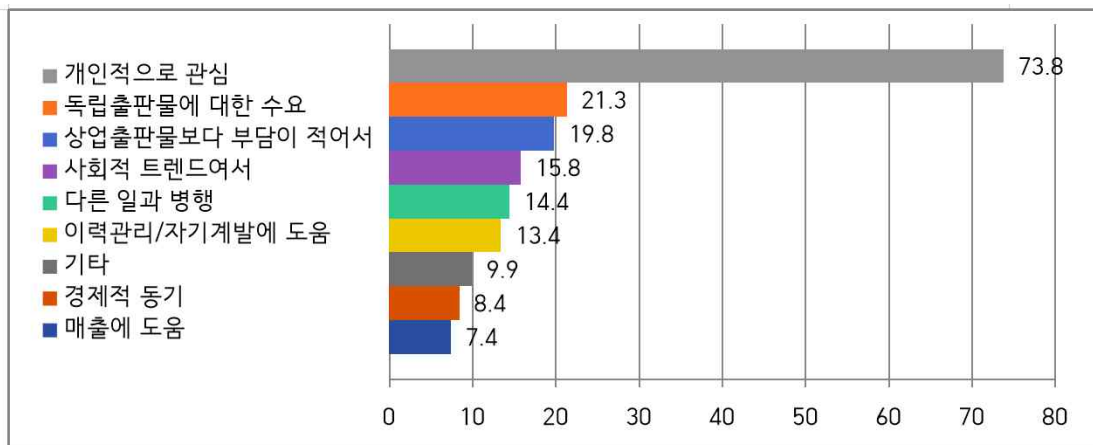


4) 독립출판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유

- 응답자들이 독립출판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유(2순위까지 복수응답)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73.8%, ‘독립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21.8%, ‘상업출판물보다 부담이 적어서’ 19.8%, ‘사회적 트렌드여서’ 15.8%,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어서’ 14.4%, ‘이력관리/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어서’ 13.4%, ‘기타’ 9.9%, ‘경제적 동기 때문에’ 8.4%, ‘매출에 도움이 되어서’ 7.4% 순임

- 창작자 : 개인적 관심, 다른 일과 병행, 이력관리/자기계발 목적이 강함
- 출판사 : 개인적 관심, 상업출판물보다 적은 부담, 독립출판물 수요가 강함
- 유통사/독립서점 : 경제적 이유(매출)에 관심이 높음
- ‘기타’ 의견 : ▲**창작 욕구 실현**(등단 절차 없이도 문학책을 엮을 수 있어서, 창작하고 싶어서,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쓸 수 있어서, 출판사 대표나 편집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 생각이나 세계관을 오롯이 녹여낼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어서, 책을 좋아하고 자본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서, 기존 것들과 달라서), ▲**다양성**(다양성을 위하여, 독립출판물이 가진 다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 다양성에 대한 고민 계기 부여, 세상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특한 책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어서), ▲**자아실현**(자아실현, 건강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주체적인 삶 모색, 나만의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어서), ▲**소통**(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해서), ▲**계기가 있어서**(대학 과제로 동화책 독립출판을 해서) 등

<그림 4-5> 독립출판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유 (2순위까지 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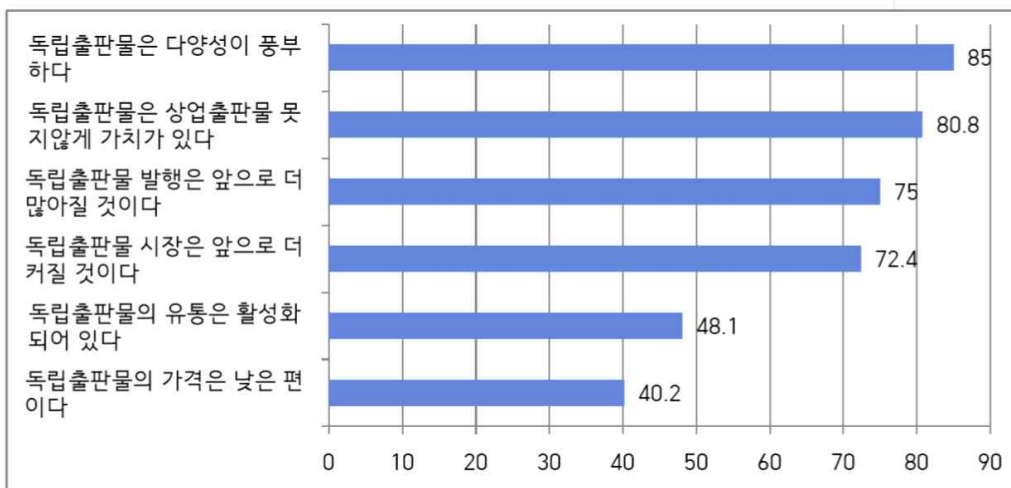
5)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 독립출판물의 가치, 다양성, 가격, 유통, 전망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 조사에
서(5점 척도 조사, 100점 환산) 독립출판물의 ‘다양성’ (85점), ‘가치’ (80.8점),
‘발행 전망’ (75점), ‘시장 전망’ (72.4점) 순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반면 독립출판물의 ‘유통 활성화’ (48.1점) 및 ‘가격’ (40.2점)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큼
- 독립출판물의 가치/다양성에 대한 평가는 출판사, 유통사, 창작자, 독립서점 순
 - 독립출판물의 가격/유통에 대한 긍정 평가는 창작자, 독립서점, 출판사/유통사 순
 - 독립출판물의 긍정적 전망에 대해서는 출판사, 창작자, 독립서점, 유통사 순

<표 4-1>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 , 100점 평균)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0점 평균
	%	%	%	%	%	점
1) 독립출판물은 상업출판물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	0.0	2.0	7.9	55.0	35.1	80.8
2) 독립출판물은 다양성이 풍부하다	0.0	0.5	7.9	42.6	49.0	85.0
3) 독립출판물의 가격은 낮은 편이다	6.9	36.1	47.0	8.9	1.0	40.2
4) 독립출판물의 유통은 활성화되어 있다	4.5	23.8	48.0	22.3	1.5	48.1
5) 독립출판물 발행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0.0	2.0	23.8	46.5	27.7	75.0
6) 독립출판물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0.5	3.5	27.2	43.6	25.2	72.4

<그림 4-6>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5점 척도, 100점 평균 환산,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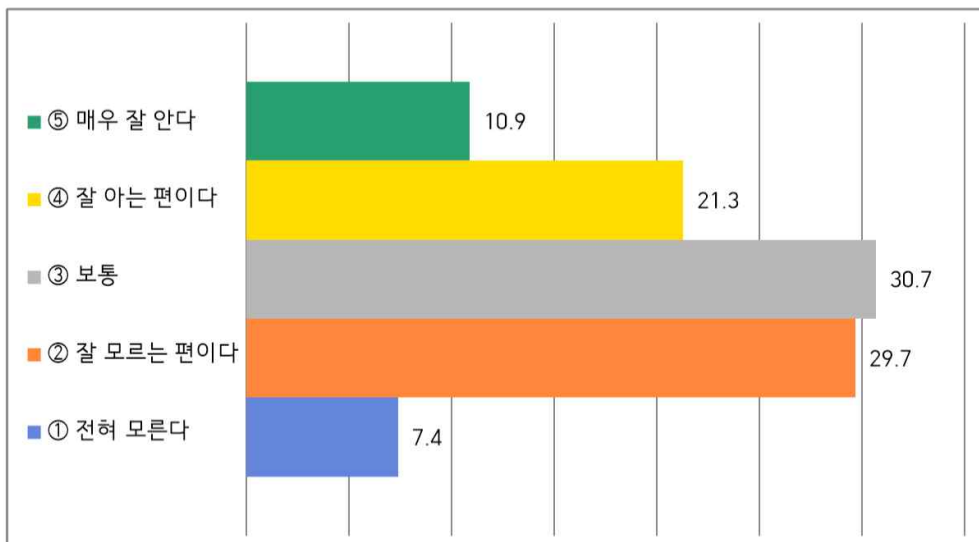


3. 독립출판물의 납본 관련 경험

1) 납본 제도 인지도

- 납본 제도에 ‘모른다’ 37.1%, ‘안다’ 32.2%, ‘보통’ 30.7% 순으로 나타나
‘안다’는 인지도는 3명 중 1명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
- ‘안다’ : 출판사 66.7%, 유통사 30.8%, 독립서점 30.2%, 창작자 24.5% 순
 - ‘모른다’ : 창작자 49%, 독립서점 34.9%, 유통사 15.4%, 출판사 6.7% 순
 - 창작자는 ‘모른다’ 49%, ‘보통’ 26.5%, ‘안다’ 24.5%로 인지도가 낮고, 특히 1년 미만 경력자의 인지도는 2.2%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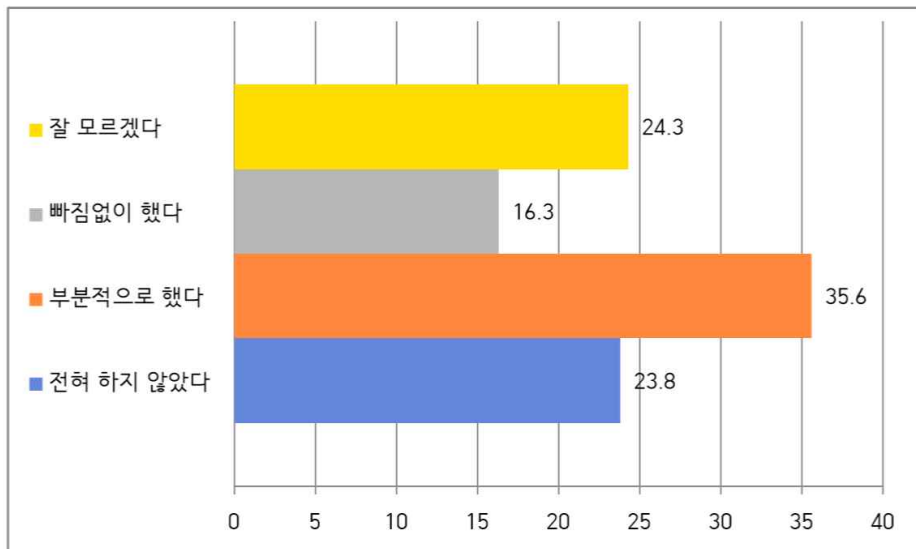
<그림 4-7> 납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 (%)



2) 납본(또는 권유) 경험과 이유

- 독립출판물의 납본을 했거나 납본을 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1.9%(‘빠짐없이 함’ 16.3%, ‘부분적으로 함’ 35.6%)로 과반수이고, ‘전혀 하지 않았다’ 23.8%, ‘잘 모르겠다’ 24.3%임
- 종사 분야별로 보면 ‘빠짐없이 함’은 출판사가 40%, ‘전혀 하지 않음’은 독립서점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납본 업무 연관성이 높은 출판사와 연관성이 낮은 서점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납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납본(또는 권유 경험) 비율도 낮게 나타남
- 납본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납본(또는 권유 경험) 비율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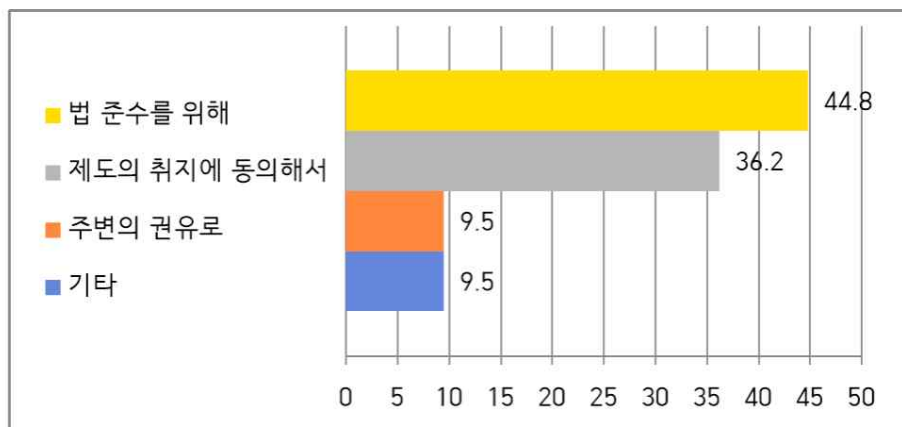
<그림 4-8> 납본 또는 납본을 권유한 경험 (%)



3) 납본(또는 권유)한 이유

- 납본을 했거나 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전체의 51.9%에 해당) 그 이유는 ‘법 준수를 위해’ 44.8%, ‘제도 취지에 동의해서’ 36.2%, ‘주변의 권유로’ 9.5%, ‘기타’ 9.5% 순으로 나타나 법적 의무 준수와 제도 취지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창작자의 경우 ‘법 준수’ (35.9%) 비율은 낮고 다른 이유들이 평균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납본 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기타’ 이유 : ▲가치의 인정(내 책이 영원히 남는다니 감격!, 작가의 책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내 독립출판물이 도서관에 있으면 스스로 자랑스러워서, 내 책이 국가기관에 남는다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고 뿌듯해서, 그래야 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판매에 유리(ISBN 발행과 대형서점 입고를 위해, 판매 및 유통에 유리한 부분 때문에), ▲행정적 필요성(타 사업 증빙을 위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어서), ▲납본 인지(ISBN이 없는 도서도 납본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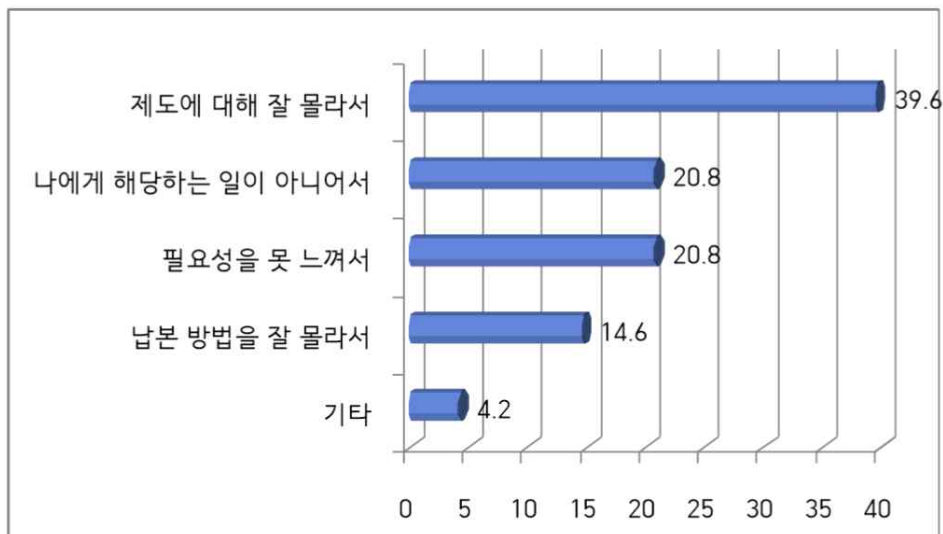
<그림 4-9> 납본 또는 납본을 권유한 이유 (%)



4) 납본(또는 권유)하지 않은 이유

- 납본을 하지 않았거나 권유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 그 이유로는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39.6%,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어서’ 20.8%, ‘필요성을 못 느껴서’ 20.8%, ‘납본 방법을 잘 몰라서’ 14.6%, ‘기타’ 4.2% 순임
- 창작자의 경우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52.4%)가 가장 높고, 이어서 ‘납본 방법을 몰라서’ (23.8%), ‘필요성을 못 느껴서’ (14.3%) 순으로 응답함.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아서’ (4.8%)라는 소수 의견도 있음
 - ‘기타’ 의견은 “개인의 선택 영역이어서” 등

<그림 4-10> 납본 또는 납본 권유를 하지 않은 이유 (%)



5) 국제표준자료번호 인지도

- 응답자들의 국제표준자료번호에 대한 인지도는 ‘안다’가 61.9%로 높고, 이어서 ‘보통’ 20.8%, ‘모른다’ 17.3% 순임
 - 인지도는 종사 분야별로 출판사 80%, 독립서점 73%, 유통사 53.8%, 창작자 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국제표준자료번호는 일반적인 출판 과정에서 필수적이어서 출판사의 인지도가 높은 반면 창작자(제작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창작자 : ‘안다’ 51%, ‘모른다’ 30.4%, ‘보통’ 18.6%로, 평균적으로 창작자 2명 중 1명은 알고 1명은 모르는 상황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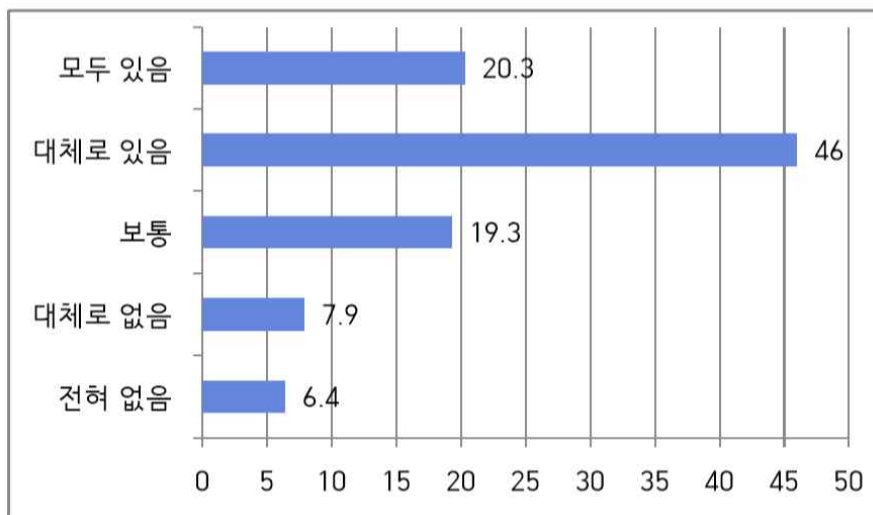
<그림 4-11> 국제표준자료번호에 대한 인지도 (%)



6)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착 정도

- 독립출판물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착 비율을 응답자의 체험 수준에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부착’ 66.3%(대체로 있음 46%, 모두 있음 20.3%), ‘비부착’ 14.3%(대체로 없음 7.9%, 전혀 없음 6.4%), ‘보통’ 19.3% 순으로 나타남
- 국제표준자료번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부착’ 비율이 낮게 나타남
 - ‘부착’ 비율은 출판사(93.3%), 유통사(77%), 창작자(65.7%), 독립서점(57.1%) 순임
 - 독립출판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착 비율은 별도의 검증(전국 독립서점 표본 조사 등)이 필요하나, 이번 조사 결과 대체로 70% 수준으로 추정됨. 즉 약 30% 정도의 독립출판물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착하지 않고 있으며 납본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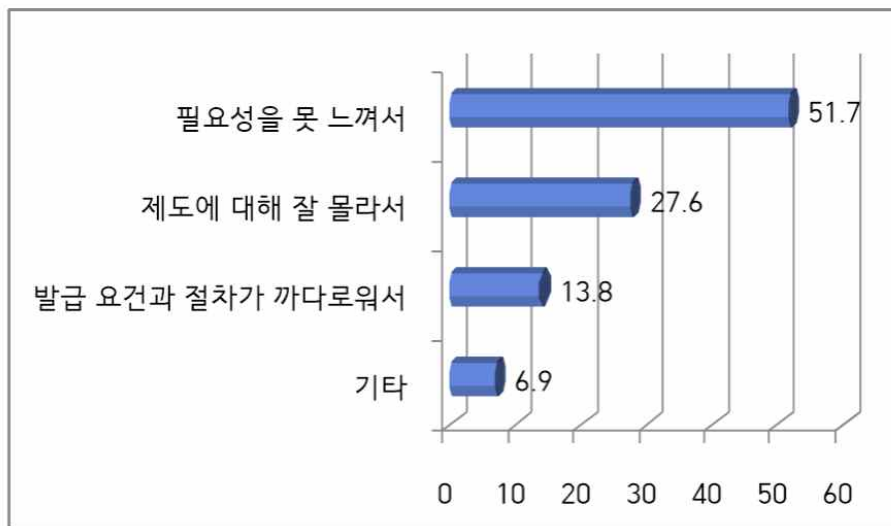
<그림 4-12>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착 정도 (%)



7)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

-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대체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1.7%,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27.6%, ‘발급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13.8% 순으로 나타남
-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창작자(61.5%),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는 독립서점(35.7%)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개인 창작자가 출판할 경우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착 없이도 독립서점 유통 등이 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기타’는 “판매 목적으로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엽서북은 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발급해 주지 않음” 등의 응답임

<그림 4-13>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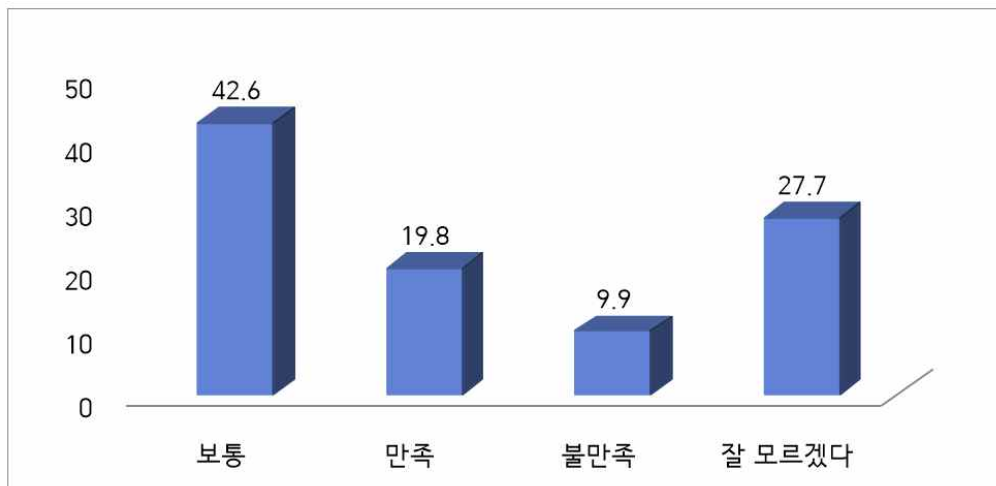


4. 독립출판물의 납본 관련 의견과 활성화 방안

1) 독립출판물 납본 제도에 대한 만족도

- 현재의 독립출판물 납본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19.8%, ‘보통’ 42.6%, ‘불만족’ 9.9%, ‘잘 모르겠다’ 27.7%로 나타나, 만족 비율이 불만족에 비해 높지만 ‘보통/모름’이 약 70% 수준으로 높아 명확한 의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 만족 비율은 출판사(33.3%), 유통사(30.8%), 창작자(18.6%), 독립서점(12.7%) 순으로 높음
 - 납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인지도가 높을수록 만족/불만족 의사 표현을 함

<그림 4-14> 현재의 독립출판물 납본 제도에 대한 만족도 (%)



■ 납본 제도에 만족하는 이유

- 납본 시 일부 비용은 보상해 주어서
-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개인의 작품에 도서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보관 및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 책이라는 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제도여서
- 의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 편리한 시스템
- 독립출판물로 만든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할 수 있음
- 최근 들어 관련한 정보를 꽤 접할 수 있어서
- 독립출판이라 하더라도 ISBN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투명화,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합니다.
- 대체로 만족이라 한 것은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아, 우편으로 부치는 시스템이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정도의 불편함인 거 같아요.
- 전반적인 프로세스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으로 아카이빙이 되어서
- 국가가 소장하는 책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어서
- 규정이나 가이드가 잘 정리돼 있다. 애매한 부분은 문의 시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의 출판물이 소실되더라도 국가에서 보관해 주는 것
- 독립출판물도 납본을 통해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후대까지 남겨 누구나 언제든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 요즘은 납본과 ISBN 발급을 도와주는 업체가 많고 출판사 신고 방법 자료도 많고 주변에 물어볼 경험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생업이 따로 있고 출판을 자기 계발과 취미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1인 출판사를 정식으로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ISBN도 같은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 책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 제도라고 생각함.
- 독립출판물이 어디엔가 기록이 되고 저장된다는 것에서 좋다고 느낌
- 납본 절차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 창작자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창작자에게 창작의 가치와 무게감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납본 제도에 불만족한 이유

- 일기, 기록, 같은 단어가 제목에 있으면 ISBN 발급에 시일이 걸린다.
- 도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도서가 다량 존재함
- 납본 시스템에 가격을 50% 고정하는 것이 기존 상업 출판시장의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수로 책을 제작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100% 또는 130%의 비용으로 책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형태가 다양한 책을 제작하고 있으나 ISBN을 취급하는 과정이 어렵고, 납본을 진행하니 책의 형태로 인해 납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납본을 하지 않으니 납본의 의무가 있다며 납본을 요구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창작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절차가 복잡하고 독립출판물의 특성상 등록을 하지 않아도 유통할 수 있는 구조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발급 시에 대형 서점에 입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자본으로 움직이는 독립출판 작가들은 여러 이유로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창작자에게 정보가 잘 전해지지 않고 제도의 정확한 목적을 알기 어려움
- 제도권 편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독립출판을 선택한 경우, 이 제도가 무용하다
- 기존의 틀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춘다.
- 납본 제외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도서의 경우, 가이드 내용 확인만으로는 납본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 납본 후 책 가격(납본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등을 모르고 번거로움
- 납본의 불편함. 보상 문제.
- 소규모 소자본 제작자의 입장에서 아주 짧은 글 또는 초기에 연속간행물을 목표로 하더라도 수요자의 반응에 따라 계속 제작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때 ISBN 등록을 꼭 해야할까 싶다. 정식으로 등록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어, 이럴 때 꼭 해야 할까? 법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 싶다. 특히 100권 이하로 판매하는 소규모인 경우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 독립출판물 특성상 ISBN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ISBN이 없는 도서는 수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납본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모든 독립출판된 도서 납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납본하려면 복잡해 보인다. 그리고 납본을 위해 책을 더 만드느라 비용이 더 든다고 들었다.

- 독립출판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
- 뭔가 번거롭다.
- 초기에 출판 후 납본에 관한 정확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뒤늦게 알게 되어 모든 책을 납본 처리함. 적기에 이메일 공지 등이 이루어졌으면 함.
- 납본이 강제성을 가지면 독립출판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듯하다. 반면 독립출판도 출판에 들어가니 납본으로 형식을 갖추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기도 했다. 그래서 보통 또는 부정적 입장이다.
- 가끔 독립출판물에 대한 ISBN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음
- 모두 납본한다면 그 방대한 양을 어찌 감당할지 걱정스러움
- 만들어지는 출판물들이 모든 자료가 확보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독립출판물의 특성상 개인 출판과 서점에 돌릴수 없을 정도의 소량 출판인 경우도 있어서.
- 실물 도서 납본 이외에 디지털 정보 입력으로 대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물은 실물만의 가치가 있겠지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출판물을 모두 감당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정확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 독립출판물이 기성 출판물과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
- 현재 출판물의 상황을 알려면 납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정부나 지자체와의 도움이나 협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렇다.
- 실효성을 잘 모르겠다
-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납본에 대한 메리트(효과)를 잘 느낄 수 없어서
- 납본을 했는데 납본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 절차가 복잡해요
- 납본하기 위해서 ISBN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그때 출판사와 작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작자로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1인 출판사를 만들든지, 출판사에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납본이 유의미하다고 느끼나 ISBN 없는 자유로운 제작 및 유통 또한 독립출판의 매력이라 매번 고민되는 부분임
- 목적과 취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또한 납본 이후 금액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독립출판물에 꼭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입력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겠음.
- 주로 전자책 출판으로 수익을 만드는 편이라서 납본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는다
- 납본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다

■ 납본 제도에 대해 ‘모르겠다’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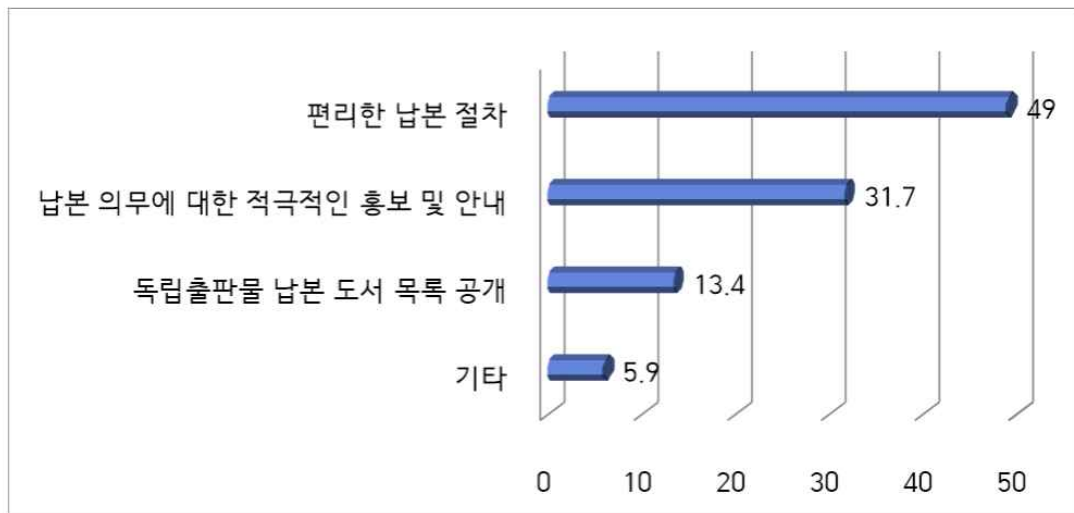
- 잘 모르는데 답변하기 힘들다. 납본에 대해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 [서점 응답] 경험이 없고, 도서관이나 학교 납품 시 독립출판물의 수요가 없어서 ISBN 부여의 필요성이 없었음
- 1인 출판사의 경우 바코드를 발급받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 납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출판사 없이 진행되는 독립출판물은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아야 하는데 진행 정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 [창작자 응답] 출판사 등록을 안 하고 유통해서
-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 납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 ISBN이 없는 독립출판물 납본에 대한 요청, 요구, 필요성을 경험한 적이 없다
- 납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 독립출판물의 납본? 질문 자체를 잘 모르겠다
- 납본 제도에 대한 이해력 부족
- 공부하거나 배운 적이 없다. 제작 마무리 단계까지 온전히 혼자 하다 보니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기존 출판과 독립출판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독립출판물의 경우 기존의 시스템에 포함될 필요를 못 느꼈다.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경계를 넘는 방식으로 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다른 제작자들의 말을 들으니 전통적인 방식의 책이 아닌 아트북의 경우 ISBN 발급을 못 받아서 아쉽다고 하던데, 본인은 그런 필요를 아직 못 느껴서 잘 모르겠다. 서점 유통을 원한다면 발급이 필수인 것 같기는 하다. 유통도 개인 차원에서 소규모로 하거나 독립서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해야 해서 한 것이라, 그 외의 특별한 생각을 해본 적 없다.
-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
- 초반에 모든 출판물에 대해 납본을 하다가 몇몇 독립출판물의 경우 ‘개인 소장’ 의미에 가까워서 납본을 받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어떤 독립출판물을 납본해야 할지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납본을 미루었고, 납본에 과태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부지런히 납본을 해야겠네요.
- 의무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행하고 있어서 문제점은 특별히 없음. 경험상 업무담당자의 고압적이고 무례함을 경험한 바 있는데, 연구의 취지를 생각하면 독립출판을 하는 종사자들이 잘 모를 수 있다면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 잘 안내할 필

- 요가 있음. 꽤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쾌함.
- 납본 과정의 번거로움과 납본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음
 - 현행 제도가 독립출판이라는 새로운 현상 내지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 납본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 취미나 부업으로 하는 거라서 특별히 납본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다.
 - 납본을 잘 안 해봐서
 -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납본과는 업무 관련성이 매우 적다
 - 납본 제도를 잘 몰라서 답변하기 힘들다

2)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독립출판물의 납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편리한 납본 절차’ 49%, ‘납본 의무에 대한 홍보/안내’ 31.7%, ‘독립출판물 납본 도서 목록 공개’ 1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편리한 납본 절차’에 대한 의견은 출판사(60%), ‘홍보 및 안내’는 창작자(36.3%), ‘납본 도서목록 공개’는 출판사(20%)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납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홍보 및 안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기타’ 의견은 “독립출판물에게까지 납본을 의무화하는 것에는 반대함, 납본 시 2권 전부 비용 보상(납본보상금), 납본된 독립출판물에 대한 도서관의 관심 불필요, 독립출판물이 독립출판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기성 출판물과의 다른 기준으로 편리한 절차와 목록 공개 등을 모두 하면 좋겠다, 독립출판물 납본을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납본을 받는지 여부를 설명받으면 좋겠다, 작가 지원, 새로 납본한 도서들을 전시하는 이벤트 열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납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그림 4-15>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3) 독립출판물의 납본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

- 독립출판물의 납본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답변이 나옴. 납본 기준의 명확한 제시와 홍보 강화, 납본 절차 개선, 지원책 강구, 납본 의무화 반대 의견 등이 제시됨

【납본 기준의 명확한 제시】

독립출판과 일반출판의 명확한 구분이 사실 모호한 것 같다. 1인이 직접 모든 것을 담당해 제작하면 독립출판일까? 1인이 모든 것을 담당해 제작 후 반응이 좋아 대형 출판사를 통해 유통되면 이 책은 독립일까? 일반일까? 납본 여부도 공식적이나 아니냐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조금만 판매될 것을 예상하고 제작한다면 굳이 납본해야 할까? 싶기도 하다. 그러다 잘 팔리면 납본하면 될까? 독립출판은 워낙 소규모라 애매한 것 같다.
ISBN이 부여되지 않는 출판물을 독립출판물이라고 지칭해 왔는데, 독립출판물도 납본을 한다면, 기존 출판과 독립출판의 차이점은 무엇이 될까요? 독립출판물의 수량이 매우 많아질 텐데, 납본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납본 홍보 강화】

납본이 독립출판물이 더 알려지게 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좋겠다.
납본의 의무와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책을 좋아하고 창작에 흥미가 있어도 납본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와 함께 납본했을 때의 이점이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듯해 더욱 알려지면 좋겠다.
납본이 의무라거나, 그로 인한 혜택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편리한 납본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교육 활성화
도서관에서 홍보 필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본 제도의 긍정적 지점을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요즘은 저희 서점처럼 서점 겸 출판사를 하는 곳들이 많아져서, 이런 경우에는 납본 제도가 일반적인 납본제도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독립출판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시민 공모 작품의 작가로 선택되어서 작품을 쓰고 독립출판을 해서 내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도서관에서 출판한 독립출판물들도 납본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반 도서의 납본과 다르게, 독립출판물 납본만의 이익이나 장점이 있으면 알고 싶다. 그 래야 납본의 필요성이 더 잘 느껴질 것 같다.
우리 서점은 옆에 출판사 운영하는 사장님과 같이 건물이 붙어서 일하고 있어서요. 혹시 독립출판물 납본을 통해 생기는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홍보 효과라든지 말입니다.
저희 서점은 젠더 이슈를 다루는 페미니즘 책들도 많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다룬 책들에 대한 특별한 납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서점은 음악 테마 독립서점이라서 독립출판물(인디북) 책도 팔고, 인디음반도 팝니다. 음반들에 대한 독립출판물 납본 정책도 있을까요?
청년 대상으로 독립출판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납본 교육도 같이 하면 좋겠다
납본 기준을 쉽게 알고 납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도서관이 독립출판물을 적극 받아줄까 하는 인식도 작용합니다. 도서관이 입고된 독립출판물을 적극 소개하고 홍보하면 그만큼 납본하는 사람들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ISBN을 발급받지 않은 출판물을 독립출판물로 여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본을 하고 나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홍보를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물을 만들 때 ISBN 부여 방법을 간소화하고, 납본해야 함을 홍보 부탁 바랍니다.
지금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판권지에 납본 여부를 넣으면 참여율이 올라가려나요.
납본 이후 도서관으로의 입고라든지 유통이 더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면 납본에 대해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독립출판물의 경우 납본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직은 강한 것 같습니다. 또한 납본이 되지 않은 독립출판물이 종종 훨씬 더 희소 가치가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한 납본인지, 그 목적과 향후 연계성이 더 설득력 있게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납본의 가치에 대해 인식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납본을 하면 그걸 기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책 제출하고 그게 끝이라고 하면 허무한 느낌이 든다.
납본하면 저자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나요?
다양한 안내. 빠른 피드백. 간소화.

【납본 절차 등의 개선】

개인이 사업자 없이도 등록할 수 있는 절차의 개선
납본을 해본 경험이 있다. 간편해야 한다. 복잡하면 안 하고 싶다.
납본 절차를 편리하게 고민해 주시고, 납본 관련 처리가 더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2권 중 1권만 비용을 지원하지 말고 2권 모두 비용을 지원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물량이 많다 보니 납본 처리까지 꽤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더 빠르게 처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 페어에 나오셔서 직접 책을 받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물의 납본 과정이 어렵고 규정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다 쉽고 간략한 과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출협에서 납본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우 번거로움. 그리고 그 기관 자체가 접근성이 그리 좋지 못함.
더 간편한 과정과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납본 시스템 필요
납본이 너무 불편합니다.
계산서를 개인이 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로우니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입금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그냥 책만 보냈어요. 그리고 독립출판물은 아무래도 유통 문제나 홍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원책 강구】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독립)출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출판사나 회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음

독립출판 납본에 차별성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라는 점도 달라질 것이다.
제본 방법이나 판형이 재미있는 책도 납본 기능해지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독립출판물도 많으므로 납본을 통해 기록하는데 잘 관리되길 바랍.
잡지 형식(Vol.)의 편차나 호수가 들어가면 잡지로 간주하여 ISBN 발급이 잘 되지 않음. 같은 작가의 시리즈물로서 해당 편차나 호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적용 필요. ISBN 발행처가 아닌 표지에 다른 브랜드가 표기되더라도 ISBN이 발급되기를 바랍. 도매유통 회사에서 ISBN을 발급받고 임프린트 방식으로 표기해 유통하기를 원하지만 불가능하여 해당 브랜드 표기를 삭제하고 입점 유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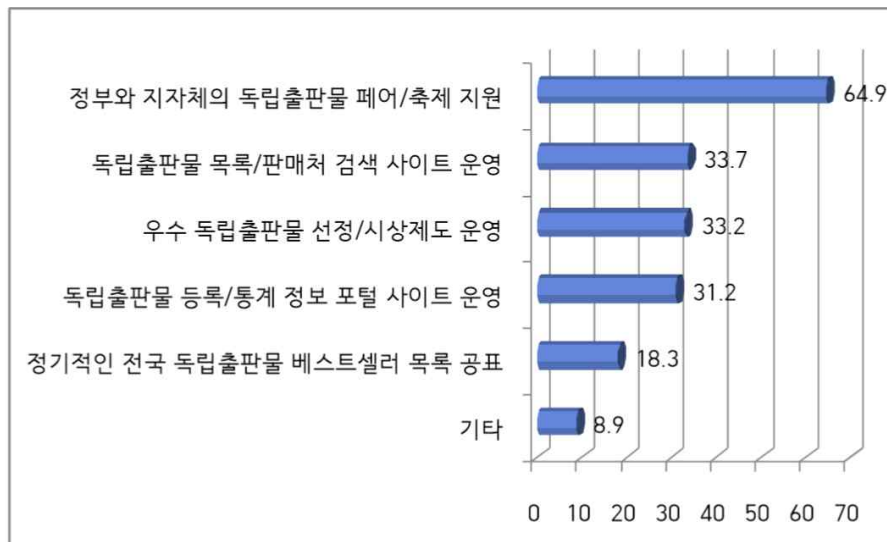
【기타】

독립출판물 중에 ISBN을 발급받는 경우는 납본도 의무 사항이라고 생각되나, ISBN을 발급받지 않은 개인 제작 도서의 납본은 무리가 있습니다. 수량도 몇 권에서 몇십 권만 만드는데 경우도 있는데, 이를 납본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ISBN 미발급 도서를 보존하는 방식을 먼저 고민했으면 합니다. 현재 ‘책보고’에서 독립서점을 통해 바코드 유무에 상관없이 독립서적을 정기적으로 입고받는데요. 이 점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독립출판물에게까지 납본을 의무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함
최근 1인 출판이나 출판 대행 등이 독립출판이라는 말을 가져다 써서 혼용되곤 하지만, 독립출판은 말 그대로 독립이 우선입니다. 독립출판물을 시스템 안에 종속시킬 경우 그것은 독립출판물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납본을 강제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걸 하면 독립출판물과 독립서점이 다 사라진다.

4) 독립출판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정책

- 독립출판물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나 정책(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는 ‘독립출판물 페어/축제 지원’ (64.9%), ‘독립출판물 검색 사이트 운영’ (33.7%), ‘독립출판물 선정/시상제 운영’ (33.2%), ‘독립출판물 등록/통계 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31.2%)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독립출판물 페어/축제 지원’은 창작자(72.5%), ‘검색 사이트 운영’은 유통사(46.2%)와 독립서점(41.3%)의 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대형서점과 작은 독립서점의 유통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독립출판물을 독립적이지 못하게 할 거라면 독립출판물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불필요, 신규 혹은 소외된 이의 독립출판 과정 지원, 창작 활동을 위한 학습 및 생태계 구축 지원/공모사업, 독립출판물 유통을 위한 지원금,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독립출판 학교 개설, 출판물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책을 못 냅니다, 독립출판물 홍보, 도서관과 공공기관 등에 비치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독립출판물 홍보,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그냥 놔두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출판물의 유통/정산의 간소화 방법 찾기, 그냥 냅두기” 등이 제시됨

<그림 4-16> 독립출판물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정책



5. 조사 결과의 시사점

- 독립출판물의 향후 발행 및 시장이 대체로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높아, 독립출판물의 발행량 증가에 따른 납본 및 수집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국제표준자료번호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부착 비율은 60% 수준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 매년 신규로 독립출판물 발행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은 창작자들의 국제표준자료번호 인지도는 51% 수준으로 낮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62%로 매우 높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이 필요함
- 납본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32%로 낮으며, 특히 신규 진입이 많은 ‘창작자’는 25%로 매우 낮은 편임
 - 특히 창작자의 납본 경험 비율(38%)은 낮고 납본 경험 비인지 비율(‘잘 모르겠다’ 41%)은 높음
-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납본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납본 절차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함
 - 창작자의 유통·판매 경로에서 자연스럽게 납본 의무를 인지하고, 편리하게 납본할 수 있도록 납본 안내 강화 필요
- 독립출판물의 납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는 사항을 개방형(주관식) 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납본 기준의 명확한 제시와 홍보 강화, 납본 절차 개선, 지원책 강구, 독립출판물에 대한 납본 의무화 반대 의견” 등이 제시되어 홍보 강화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독립출판물의 활성화를 위해 ‘독립출판물 페어/축제 지원’ (64.9%), ‘독립출판물 검색 사이트 운영’ (33.7%), ‘독립출판물 선정/시상제 운영’ (33.2%), ‘독립출판물 등록/통계 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31.2%) 순으로 선호도가 높아, 우선적으로 독립출판물 페어와 연계된 납본의 홍보와 이해 증진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V. 국내외 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 현황 및 관련 규정

1. 국내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 현황 및 관련 규정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대표도서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서울도서관 883권)과 인천(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300권 미만), 경북(경북도서관 100권 미만)에서만 독립출판물을 장서로 소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집 방법 : 관내 전문 독립서점 등에 목록 의뢰, 구입

※ 연간 도서 구입 계획 등에 의거하여 소량 구입

- 관련 지침 : 독립출판물 수집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은 모두 없음

<표 5-1> 광역대표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 현황 (2024.9.30. 기준)

지역	도서관명	독립출판물 수집 규정/지침	독립출판물 소장 현황	독립출판물 수집 방법
서울	서울도서관	× (매년 도서구입계획)	812종(883권) ※2016년~	지역 독립서점에 목록 의뢰 구입
부산	부산도서관	×	×	×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	×	×
인천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	300권 미만 ※2024년~수집	지역 독립서점에 목록 의뢰 구입(독립출판물 코너 운영)
광주	광주광역시립도서관	×	통계 없음	×
대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	×	×
울산	울산도서관	×	×	×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	×	×
경기	수원시선경도서관	×	×	×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	×	×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	통계 없음	×
충남	충남도서관	×	×	×
전북	전북도청도서관	×	×	×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	통계 없음 (POD 일부)	×
경북	경북도서관	×	통계 없음 (100권 이하)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정보 수집. 일반출판물과 함께 소량 구입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	통계 없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	×	×

○ 서울도서관 사례

- 매년 ‘서울도서관 도서 구입 계획’에 의거하여 독립출판물의 수집 범위와 방법 결정
- 2016년~2023년의 8년간 총 812종 883권의 독립출판물 구입(총액 1,032만원)
- 서울시내 독립서점에 추천 목록을 의뢰하여 선정·구입
- 독립출판물 관련 별도의 독립출판물 수집 지침은 없음

<표 5-2> 서울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구입) 현황

연도	서울도서관		
	수집 종수	수집 권수	자료구입비(원)
2016	17	33	489,000
2017	21	42	474,800
2018	67	101	126,300
2019	294	294	3,716,400
2020	117	117	1,612,400
2021	85	85	1,070,900
2022	66	66	899,000
2023	145	145	1,928,400
2024	-	-	구입 예정
계	812	883	10,317,200

○ 서울도서관이 운영하는 공영 헌책방 ‘서울책보고’에서는 서울형 책방 사업 참여 서점의 추천 도서 중 연간 약 400종의 독립출판물을 구입·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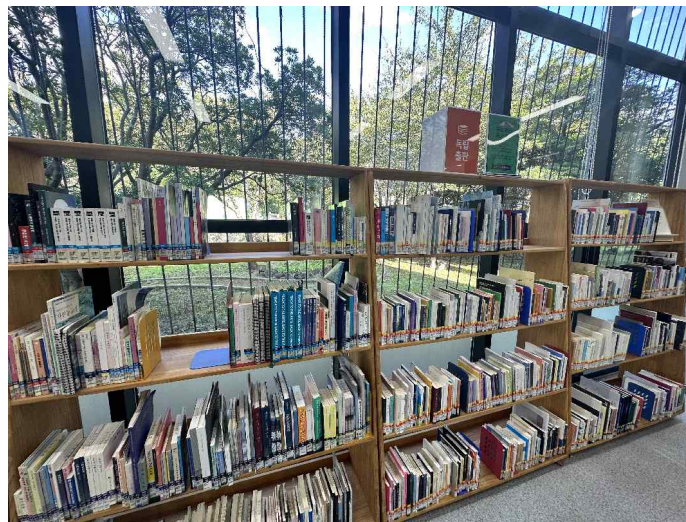
- 현재 4,576권의 독립출판물 전시·열람(2024.9. 기준)
- 도서 분야별 분류 및 별도의 수집 지침은 없음

○ 제주 탐라도서관 사례

- 2023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최 <제17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우수 현장 사례 공모전>에서 <제주독립출판 특화도서관 운영 사례>로 장려상 수상
- 탐라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과 관련된 행사 및 도서 비치로 시작한 계기는 2018년에 지역주민에게 독립출판물과 지역출판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탐라 전국지역출판도서전>을 개최하면서부터임. 이 행사를 계기로 자료실에 독립출판물을 비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부터 제주북페어 행사를 시작하여 매년 운영함
- 2020년부터 제주독립출판 특화도서관 운영 : 특화 서가 구축, 제주독립출판 제작, 제주출판학교, 제주북페어 책운동회 개최 등

- ※ 누구나 작가가 되는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85종의 독립출판물 출간
(2020년~2023년), 제주북페어에서 <독자에서 작가로, 제주독립출판물 워크숍> 전시
- 2024년 9월 현재 독립출판물 1,004권, 그래픽노블 555권 소장
 - 2023년에 308명의 대출자가 529권을 대출함
 - 별도의 장서 수집 규정은 없음
 - 자료실에 별도의 독립출판물 서가를 비치하여 십진분류표에 따라 배가

<그림 5-1> 탐라도서관의 독립출판 장서 코너



<표 5-3> 탐라도서관 소장 독립출판물 통계 (2024.9.)

자료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독립출판	34	1	0	24	5	30	119	2	760	29	1,004
그래픽노블	5	2	2	43	20	28	43	0	392	20	555

<표 5-4> 탐라도서관 독립출판물 대출자 통계 (2024.9.)

별치기호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독립출판	156	669	382	549	460	470	308	2,994
그래픽노블	169	773	582	794	751	624	475	4,168

<표 5-5> 탐라도서관 독립출판물 대출자료 통계 (2024.9.)

별치기호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독립출판	275	1,324	668	1,037	815	898	529	5,546
그래픽노블	293	2,052	1,309	2,281	2,001	1,530	1,235	10,701

○ 서울시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사례

- 연1회 실물 수서 : 연초에 현장 수서 실시계획 기안 작성, 연 1~2회 독립출판물 구입(종합자료실과 병행), 은평구 지역의 독립서점에서 구입, 수집한 도서의 마크/장비 작업은 도서관에서 수행
- 독립출판물 장서 현황 : 총 1,000권(2024.8.31. 기준)
- 독립출판물 분야별 장서량은 문학 464권, 예술 193권, 사회과학 94권, 기술과학 82권, 총류 80권, 역사 66권, 철학 9권, 자연과학 8권, 언어 4권
- 2024년 독립출판물 자료 구입 예산 : 300,000원(20권)
- 별도의 장서 수집 규정은 없음

<표 5-6> 은평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의 장서 현황 (2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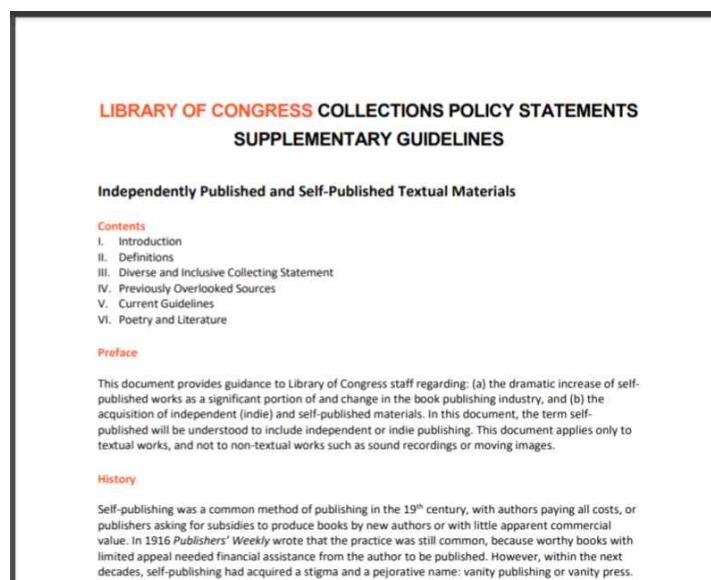
자료실명	별치기호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종합	일반	1,285	2,420	780	6,517	1,457	3,353	2,309	725	12,362	2,467	33,675
	큰글자	19	86	18	95	9	53	17	4	436	43	780
	점자	0	2	0	3	1	0	12	0	46	9	73
	발달	21	3	0	4	2	8	0	1	11	5	55
	독립출판	80	9	0	94	8	82	193	4	464	66	1,000
	참고	61	1	0	27	19	5	9	31	2	22	177
	합계	1,466	2,521	798	6,740	1,496	3,501	2,540	765	13,321	2,612	35,760
	비율	4%	7%	2%	19%	4%	10%	7%	2%	37%	7%	45%
어린이	아동	457	387	162	1,032	1,310	520	345	368	5,866	1,589	12,036
	유아	165	199	28	1,323	909	181	167	101	5,803	212	9,088
	합계	622	586	190	2,355	2,219	701	512	469	11,669	1,801	21,124
	비율	3%	3%	1%	11%	11%	3%	2%	2%	55%	9%	26%
청소년	청소년	443	457	62	1,289	1,231	365	395	124	4,286	730	9,382
	합계	443	457	62	1,289	1,231	365	395	124	4,286	730	9,382
	비율	5%	5%	1%	14%	13%	4%	4%	1%	46%	8%	12%
마을	마을	237	1	7	1,004	5	82	137	2	144	317	1,936
	비율	12%	0%	0%	52%	0%	4%	7%	0%	7%	16%	2%
만화	만화	0	0	0	0	0	0	154	5	7,591	0	7,750
	아동만화	0	0	0	0	0	0	0	0	1,339	0	1,339
	합계	0	0	0	0	0	0	154	5	8,930	0	9,089
	비율	0%	0%	0%	0%	0%	0%	2%	0%	98%	0%	11%
미디어	블루레이	0	0	0	0	0	0	30	0	0	0	30
	CD	0	0	0	0	0	0	195	0	1	0	196
	DVD	4	4	2	109	60	29	2,436	2	0	82	2,728
	합계	4	4	2	109	60	29	2,661	2	1	82	2,954
	비율	0%	0%	0%	4%	2%	1%	90%	0%	0%	3%	4%
전체합계		2,772	3,569	1,059	11,497	5,011	4,678	6,399	1,367	38,351	5,542	80,245
전체비율		3%	4%	1%	14%	6%	6%	8%	2%	48%	7%	100%

○ 대구 고산도서관 사례

- 현재 소장 중이며 대출 가능한 독립출판물 자료는 총 525권
- 수집 범위는 독립서점 및 동네책방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독립출판물 모두
- 수집 방법은 직접 독립서점을 방문하여 실물 수서하거나 책방지기, 독립출판물 작가 추천 도서, 독립서점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여 구입
- 독립출판물 수집과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며, 대구 수성구립도서관 중에서 고산도서관에서만 특성화 자료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 자료 구입 계획을 세울 때 독립출판물 구입 수량, 구입 방법, 소요 예산 등을 작성
- 종합자료실 내에 독립출판물 서가가 따로 비치되어 있으며, 자료실에서는 분기별로 <독립출판물 북큐레이션>을 진행함. 또한 동네책방과 연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독립출판물 만들기), 서점 탐방, 책방 축제(책방 부스 운영) 등을 진행

2. 해외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 및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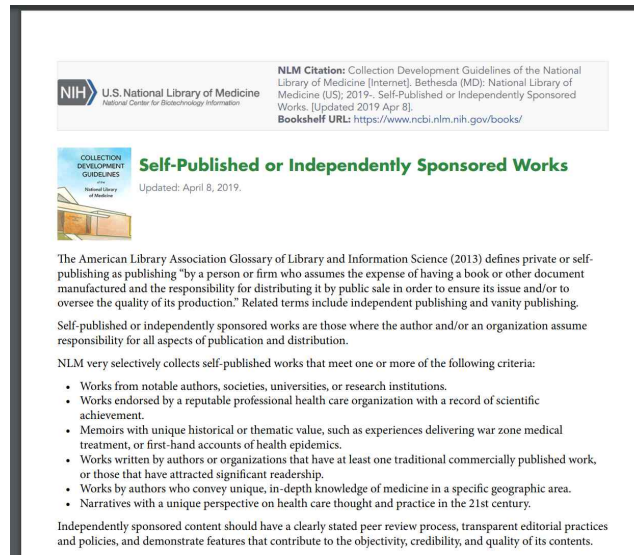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와 일본의 국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뉴욕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수집 현황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조사함
 - 홈페이지 조사 및 담당자 이메일 문의를 통해 조사한 결과, 미국 의회도서관 및 국립의학도서관 이외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모든 조사 도서관에서 독립출판물 소장 통계를 알기 어렵다는 응답을 받음
 - 미국 의회도서관 및 국립의학도서관의 독립출판물 관련 규정은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선별 수집 원칙을 밝힘
-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장서개발정책 보조 지침 : 독립출판물 및 자가출판물> (2018.2. 제정, 2022.7. 개정) <https://www.loc.gov/acq/devpol/selfpub.pdf>



- 다양하고 포용적인 장서 수집 원칙 견지
- 지역 관련 기록, 전쟁 기록, 기성 저자의 자가출판물, 세계 특정 지역 관련 지식, 반체제 인사의 회고록, 이민자 기록, 난민 기록, 소수 언어 기록물, 아메리카 원주민 자료, 군사 역사, 의회도서관 직원의 기록물, 정부 및 전문 분야 종사자의 기록물, 실화 범죄, 역사적 사건 참가자의 기록, 비상업적 잡지, 유색인종/성소수자/비주류 종교/컬트 출판물 등 다양한 수집 범위 제시
- 역사적, 사회적, 자료적 가치가 있는 독립출판물을 선별 수집한다는 원칙 제시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독립출판물 수집 원칙(20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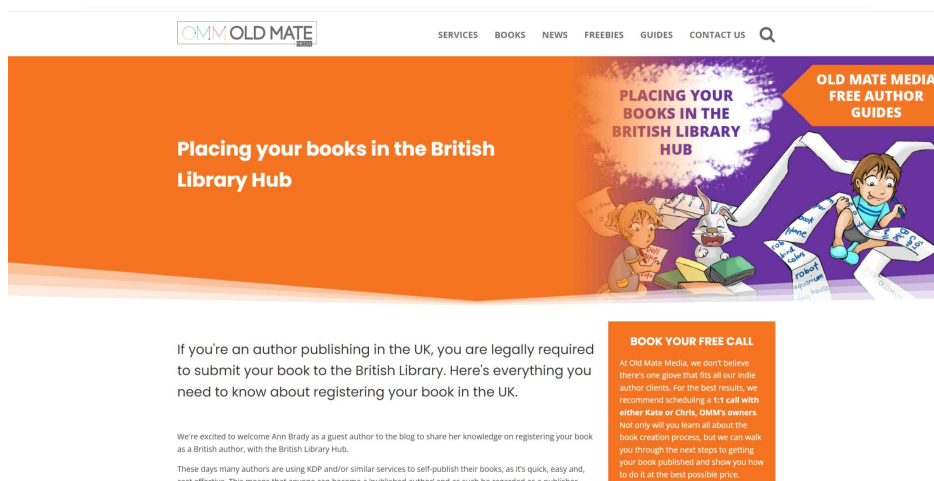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541142/>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출판물을 수집 한다 : 저명한 작가, 학회, 대학, 연구기관의 저작. 과학적 업적을 남긴 저명한 전문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은 저작. 전쟁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제공 경험이나 보건 전염병 관련에 대한 설명 등 독특한 역사적, 주제적 가치가 있는 회고록. 상업적으로 출판된 작품이 하나 이상 있는 저자의 작품, 특정 지역의 의학에 대한 독특하고 심층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저자의 저작 등
- 의학도서관으로서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독립출판물 수집이 특징

○ 영국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 허브 사이트에서는 도서관 납본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에 따른 독립출판물 제작자의 납본 의무를 홍보함

<https://oldmatemedia.com/guides/placing-your-books-in-the-british-library-hub/>



○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 독립출판물에 대한 수집 정책 및 규정이 있는지, 독립출판물의 장서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한 결과,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에서는 독립출판물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으며 그 장서량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독립적으로 출판되었는지 또는 상업적으로 출판되었는지 아니라, 출판물이 컬렉션 개발 정책의 범위 내에 들어 있는가이다.”

In answer to your first question,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is one of the six legal deposit libraries of the UK and Ireland, and as such it is allowed to claim a copy of any publication published in these territories. We define a publication in the widest sense possible, including print and electronic, books, serials, pamphlets, newspapers, magazines, newsletters, annual reports, football programmes, theatre programmes, children's books, and a huge range of other formats. We make no distinction in terms of whether something has an ISBN or ISSN number or not, or whether something is independently published – it has the same value to us and we endeavour to collect, in consort with the other five legal deposit libraries, as comprehensive a collection as we can of UK and Irish publications. We are supported in this work by the Agency for Legal Deposit Libraries (ALDL) who mostly liaise with publishing companies but who also claim and receive quite a lot of smaller scale and 'independent' publications too.

The Library augments the work of the ALDL by making direct claims from a range of publishers who include independent publishers, self-publishers and local publishers. This category can include publications from community groups and organisations, charities, and small independent publishers of things like poetry pamphlets, artists books, newsletters, and fiction. What is important to us is that something is a publication and fits within the scope of ou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rather than whether it was independently or commercially published. The vast majority of our millions of collection items has come to us as a consequence of the Legal Deposit legislation (which dates from 1710) but we also buy a lot of publications that typically link to Scotland in some way. Many of these publications are independently produced in such small numbers (such as poetry pamphlets and zines) that free deposit of them under legal deposit is commercially unviable.

In answer to your second question, this is very much more difficult to say because we don't separate out our collections like that. The Library's published collections number in the tens of millions and date from 1455, during which the concepts of independent and commercial publishing will have had several different meanings. But it is fair to suggest that in a collection of tens of millions of publications our independently published items may number in the high hundreds of thousands depending on how we define "independently published".

With best wishes

Graeme Hawley

Head of General Collections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 호주 국립도서관의 독립출판 발행자를 위한 홈페이지 가이드

- 독립출판에 의한 출판이 도서관 자료 수집 대상임을 공지함
- 호주 작가협회, 호주 도서디자이너협회에 대한 안내 및 ISBN의 장점을 소개하여 자연스럽게 납본을 유도함

<https://www.nla.gov.au/stories/blog/indie-publishing-your-book-our-collection>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하는 데 ISBN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ISBN은 책에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하고 도서관과 서점에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주에서는 소프 보우커에서 ISBN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프 보우커를 통해 ISBN을 구매하면 책의 세부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서점과 도서관에서 구매 및 보관할 책을 찾는 데 사용하도록 업로드됩니다. 게시, 인쇄 또는 전자 형식별로 ISBN이 필요합니다.

책이 도서관과 서점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면 유익한 책등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 도서관과 서점에서는 책 표지가 짧은 시간 동안만 노출됩니다. 책등에는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브라우저에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도서관에 책을 배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책등 하단에 텍스트가 없는 공간을 두어 카탈로그 스티커를 만드세요. 사람들은 표지로 책을 판단하고 표지가 좋으면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원한다면 호주 도서디자이너협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뉴욕 공공도서관

- 저자 및 출판사를 위한 자료 제출 가이드라인 제시
- 저자와 출판사는 뉴욕 공공도서관(NYPL)에서 구매를 고려하고자 하는 도서(또는 기타 형식의 자료)와 관련된 리뷰 사본 또는 홍보 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 이러한 자료는 도서관의 자료 선정 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뉴욕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사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정함. 자료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위, 예술적 품질, 정확성, 콘텐츠, 통용 기간, 지역의 관심, 대중 매체 홍보, 객관성, 대중의 수요 등

<https://www.nypl.org/help/services/author-submissions>

Please note that all NYPL locations will be closed on Monday, October 14.

New York Public Library

My Account Locations Get A Library Card Get Email Updates Donate Shop

Books/Music/Movies Research Education Events Connect Give Get Help Search

Home / Get Help / Services at NYPL / Submission Guidelines for Authors and...

Submission Guidelines for Authors and Publishers

Authors and publishers may submit review copies or promotional information relating to books (or materials in other formats) that they wish to be considered for purchase by The New York Public Library (NYPL). These materials must meet the criteria as stated in the Library's Materials Selection Policy.

The New York Public Library seeks to select materials that support its diverse community needs and its missi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lection of materials include:

- Authority
- Artistic quality
- Accuracy
- Content
- Currency
- Local interest
- Mass media publicity
- Objectivity
- Popular demand

Review copies and promotional information may be sent to:

Selection Office
New York Public Library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 규정 및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배포를 목적으로 상당 부수 이상 발행된 출판물이 납본 대상임
- 사사(社史), 단체사 등 상당 부수 발행한 자비출판물도 납본 대상에 포함
- 단, 중철 제본, 일반에 공개하기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납본 대상에서 제외
- 저자가 아닌 발행자가 납본 대상임
- 초판 발행 부수가 정해지지 않은 출판물(POD출판물 등)은 15부가 실제로 배포되었는지가 기준임

https://www.ndl.go.jp/jp/collect/deposit/pdf/deposit_request_pvt.pdf

納本制度の趣旨をご理解いただき、皆様の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

対象となる出版物は?

頒布を目的として、相当部数（通常100部以上）を刊行した、国内発行の出版物です。
図書、雑誌、新聞だけでなく、CD、DVD、ブルーレイ、ゲームソフト、レコード、楽譜、地図なども対象となります。

だれが?

その出版物の発行に責任を有する出版者に納入の義務があります。例えば、出版社、レコード会社、学術団体、自費出版の発行者です。

納入部数は?

納入義務があるのは**1部**です。

納入方法は? 直接当館に送付する方法と、一括代行機関を経由する方法があります。

直接当館に送付(持参することも可能)

無償で納入 納入出版物代償金を希望

必要な書類などはありません。郵送や宅配便などで、裏面の宛先までお送りください。着払いはお受けしていません。

受領書を希望する場合... 出版物の送付時に、受領書を希望する旨と受領書の送付先を記したメモなどを添えてください。

一括代行機関(取次)を経由

図書、雑誌、その他 検定教科書、教師用指導書

(一社)日本出版取次協会 (株)地方・小出版流通センター (一社)教科書協会

出版物の送付前に、裏面のお問い合わせ窓口にご連絡の上、申請手続などを確認してください。その際、頒布実績などをお尋ね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

納入出版物代償金は... 納入された出版物の発行者に対して、当該出版物の出版及び納入に通常要すべき費用に相当する金額(通常、小売価格の5割と郵送における最低の料金を相当する金額)を、国の予算からお支払いするものです。

納入された出版物は...

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 NDL SEARCH

出版物の書誌(タイトル、出版者、著者などの情報)が作成され、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で検索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国立国会図書館サーチ <https://ndlsearch.ndl.go.jp/>

文化的資産として永く保存され、日本国民の知的活動の記録として後世に継承されます。

納本制度の詳細については、当館Webサイトの「納本のお問い合わせ」をご覧ください。

国立国会図書館 納本のお問い合わせ **検索**

電子書籍、電子雑誌も収集しています。当館Webサイトの「オンライン資料収集制度(eデポ)」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国立国会図書館 eデポ **検索**

- 참고로, 일본에서는 자가출판의 개념으로 ‘자비출판’을 사용하며 일본 자비출판 네트워크(JSN : Japan Self-publishing Network)가 구심체 역할을 함
- 자비출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https://www.jsjapan.net/pages/about_us)
 - 자비출판 서적 데이터에 8,495건 등록(검색 가능)
 - 자비출판문화상 주관 운영 및 <자비출판연감> 발행
- <https://www.sunrise-pub.co.jp/isbn978-4-88325-799-7/>



- 일본 자비출판 페스티벌 개최
 - 자비출판 어드바이저(멘토) 인증제도 운영
- ※ 일본의 개인 출판 POD 서비스 현황(西原幹喜, 2024.5.4.)
- ‘퍼브펜셀프’ 서비스 회원 수는 1만 2천 명을 돌파하며 증가 추세, 1만 부 이상 판매 사례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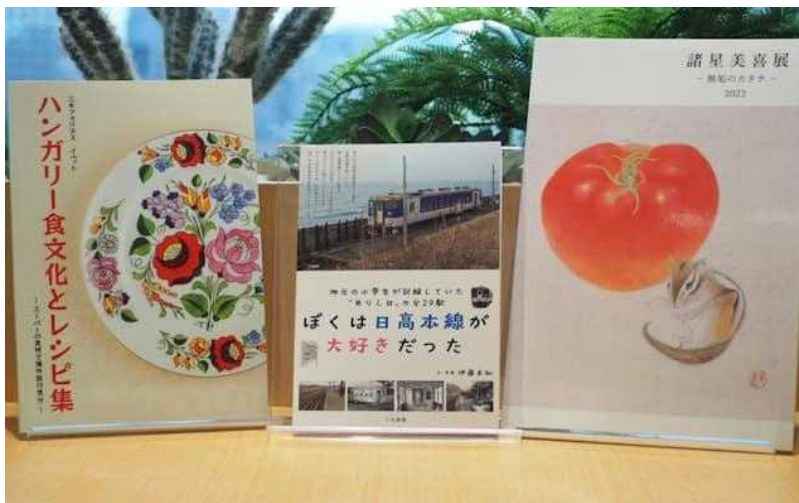


사진 : ‘퍼브펜셀프 어워드 2024’ 그랑프리(중앙) 및 준그랑프리작

VI. 독립출판물 납본 수집 강화 방안

1. 독립출판물 관련 규정 개선

○ 독립출판물에 관한 납본 수집 관련 규정 개선 방향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지침>, <자료납본수집규정>, <납본수집지침>에 독립출판물 관련 규정이나 특별한 방침은 부재함
- 미국 의회도서관(LC)의 경우 별도의 독립출판물 자료수집지침을 제정하여 주요 수집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자료적 가치가 있는 독립출판물에 대한 선별적 수집 방침에 대해 설명함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SUPPLEMENTARY GUIDELINES : Independently Published and Self-Published Textual Materials>

- 기존 도서관자료인 상업출판물과 독립출판물의 외형 및 내용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상당수의 독립출판물이 이미 납본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별 수집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기보다는 수집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과 납본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납본 수집 규정의 일부개정 검토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의 제2조 정의에서 “발행처”를 “발행자”로 수정하고 그 범위에 ‘개인’을 포함

현행	개정(안)
“발행처”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사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발행자”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출판사 또는 기관, 개인 등을 말한다.

- 개정 논거 : 출판사 등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소량(100부 이상) 발행한 독립출판물 등의 경우 ISBN을 미부착한 경우에도 납본 대상이지만 납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러한 “개인”이 발행처(발행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독립출판물을 발행하는 개인이 그 대상임을 명확히 표현
- 다만, 개인 납본에 따른 고려 사항 등 납본 대상·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ISSN·ISBN 중복 발급에 대한 규정 완화 검토

- 잡지의 경우 ISSN에 더해 호별 장기간 판매와 유통을 위해 ISBN을 발급받으려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고 있음. 실제로 단행본 성격을 가진 잡지들은 ISSN·ISBN을 중복 발급하여 부착하는 사례도 있음

- 기본적으로 ISSN·ISBN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적정성이 있는 경우 연계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임.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독립잡지의 발행 종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판매를 위한 ISBN 발급을 연계해도 문제가 없는지, 제작사(발행사)의 의사에 따른 제한적인 중복 발급 허용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적용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려면 출판사를 등록해 ISBN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등의 오해가 널리 퍼져 있음(김봉철, 2020, 135쪽)
- 본 연구의 이해관계자 조사 결과의 시사점에 나타난 것처럼, 납본 의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특히 새로 독립출판물을 발행하고자 하거나 발행한 신규 창작자(제작자) 대상의 홍보 강화가 매우 필요함
- 국가 장서로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한다는 납본의 기본 취지와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해야 함
- 독립서점 연계 홍보 : 독립출판물 관련 생산자, 유통·판매자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판매 채널을 활용한 홍보 추진
 - ※ 독립서점을 아우르는 구심점이나 전국 단위 조직체가 없는 상황이므로 인접한 독립서점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개별 홍보 필요
- 전국의 주요 독립서점,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일반도서를 중심으로 일부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책방 연합 조직), (주)동네서점, 인디팝, 인터넷서점 등 자문회의체 구축
- 독립출판물 페어 후원 : 국립중앙도서관의 후원 명칭 사용, 페어별 시상 후원(국립중앙도서관장상 1점), 국립중앙도서관 독립출판물 전시회(연 1회 개최) 등과 연계한 납본 홍보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

○ 광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납본 홍보 및 수집 강화

-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는 제7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을 명시함. 전국 각지에서 발행되는 독립출판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에서 발행된 독립출판물의 납본 및 수집을 위한 홍보와 수집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의 협력 활동 강화가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함

3. 독립출판물 정보관리시스템, 아카이빙센터 구축 검토

○ 독립출판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독립출판물의 등록, 목록, 통계 등 정보 포털 시스템으로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기간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이트에서 독립출판물의 기본 서지사항 등록, 목록, 통계 기능 탑재 및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 여부 결정

○ 독립출판물 보존·연구 생태계 조성

- 대부분의 창작자 제작 기반 독립출판물은 독립서점마다 각기 다른 연간 수백 종이 입고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ISBN이 없는 중철된 책이나 책등이 얇은 책은 보존하기도 어려움. 독립출판물을 모두 모아 둔 아카이빙 시설을 통해 국민과 독자가 공유하는 방안 필요(다시서점 김정현 대표 인터뷰)
- 소량으로 제작·유통된 후 사라지는 개인 창작자 제작 기반 독립출판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출판물과 다른 특성과 물성을 지닌 기록·표현 매체인 독립출판물, 아트북, 아티스트북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상시 서비스하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기반의 구축 필요(임경용, 2024.9. 제안 참조)
- 국립중앙도서관 내 독립출판물 아카이빙센터 건립·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4. 독립출판물 납본 유공자 포상을 통한 인식 제고

○ 납본 유공자 포상

- 국가 장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독립출판물의 납본 활동을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수행하였거나 독립출판물의 납본에 대한 인식 제고·확산에 기여한 제작자(출판사) 등을 납본 사업 유공자 범위에 포함하여 추천·표창
- 납본 실적에 기초한 유공자 선정과 더불어, 납본 관련 활동 실적이 있으면서 독립출판 업계에서 지명도가 있거나 유명한 인사에게 표창하여 사회적 관심도 제고에 기여

참고문헌

- 강지원(2024.9). 제주 북페어, 지역 독서 생태계를 확장하다. <기획회의> 615호
- 구선아·장원호(2018). 독립출판 증가 현상의 사회적·심리적 요인. <지역사회학> 19권 1호
- 국립중앙도서관(2015.2.16). “소규모 비주류 독립출판, 도서관에서 만난다”. 보도자료
- 권수빈(2016). 독립출판물 구성에 관한 분석. <인문사회 21> 7권 6호
- 권오현·이용준·조항민·김찬원(2023). 독립잡지의 개념 규정 및 유형화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9권 3호
- 김광진(2024.9.4.). “내가 쓰고 표지 고르고 편집까지… ‘자가 출판 플랫폼’ 등록 작가 7만명”, <조선일보>
- 김동혁(2023). 셀프 퍼블리싱 시대의 개막. <KPIPA 리포트 06. 셀프 퍼블리싱의 현황과 미래 전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김보일(2019). 공공도서관의 독립출판물 장서 운영 현황 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권 4호
- 김봉철(2020). 『작은 나의 책 : 독립출판의 왕도』. 수오서재
- 김지선(2024). 『커피 한 잔 값으로 독립출판 책 만들기』. 새벽감성
- 김지선·이상명(2023). 『커피 한 잔 값으로 독립서점 시작하기』. 새벽감성
- 김지현(2020). Self-publishing as Mnemotechnics : A Study of South Korean Self-publishers and the Materialisation of Memory(기억기술로서 독립출판 : 한국의 독립출판인과 기억의 물질화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권 6호
- 류영호(2018.3). 독립출판 활성화를 만든 개인출판 플랫폼. <기획회의> 459호
- 마이크·김현경(2023). 『나만의 책 만들기』. STORAGE BOOK AND FILM
- 민승원(2018.3). 독립출판물 유통, 서점과 제작자를 잇다. <기획회의> 459호
- 박정명(2018). 독립출판 문화의 전개 양상에 관한 고찰 : 독립서점과 독립출판물 페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권 1호
- 백가연·김기영(2020). 독립출판물 구매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버나드 셀라·레오 판다이센·아그네스 블라하(2024). 김재경·노다예 번역. 『NO-ISBN 독립출판에 대하여』. ENKR(엔커) [원제 : NO-ISBN on self publishing, 2015]
- 스토리지북앤필름(2017). 『INDIE BOOK INDEX 2016』
- 안성학(2023). 해외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 현황. <KPIPA 리포트 06. 셀프 퍼블리싱의 현황과 미래 전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이건웅·고민정(2018). 독립출판의 개념과 사례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4권 3호
- 이성민(2023). 셀프 퍼블리싱 활성화 방안. <KPIPA 리포트 06. 셀프 퍼블리싱의 현황과 미래 전략>,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이정규(2018.3). 고유한 이야기로서 독립출판물의 가능성. <기획회의> 459호
- 임경용(2024.9). 아트북페어 현황과 전망. <기획회의> 615호
- 임주아(2024.9). 도시의 콘텐츠, 전주책페어의 가능성. <기획회의> 615호
- 차병철(2019). 독립출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독립출판물 중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시스템을 기반으로. <2019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논문 및 우수 현장사례>. 국립중앙도서관

LEE·EGOn(이보현·이곤, 2023). 『독립출판 작가와 일러스트 작가의 작업 안내서』. 곰곰출판
<https://www.bookshopmap.com/>

西原幹喜(2024.5.4.). オンデマンド出版広がるニッチな本, 編集支援に商機. <日本経済新聞>.
 [url]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D25E060V20C24A4000000/>
 Alliance of Independent Authors(2024) *The Big Indie Author Data Drop 2024* [url]
<https://www.allianceindependentauthors.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24/03/The-Big-Indie-Author-Data-Drop-2024.pdf>
<https://daskunstbuch.at/art-book-fairs-2020/>
<https://nyabf2024.printedmatterartbookfairs.org/about>
<https://oldmatemedia.com/guides/placing-your-books-in-the-british-library-hub/>
<https://tokyoartbookfair.com/archives/>
<https://wordrated.com/amazon-publishing-statistics/>
https://www.instagram.com/jejubookfair_2024/
https://www.jsjapan.net/pages/about_us
<https://www.loc.gov/acq/devpol/selfpub.pdf>
<https://www.nadiff-online.com/?mode=cate&cbid=1512059&csid=0>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541142/>
<https://www.nla.gov.au/stories/blog/indie-publishing-your-book-our-collection>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industry-news/publisher-news/article/91574-self-publishing-is-thriving-according-to-bowker-report.html>

<부록> 조사표 및 기본통계표

독립출판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책과사회연구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사연구 용역으로 <독립출판물 출판·유통 현황과 납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일환으로 독립출판물의 창작자(저자), 출판사(제작대행사), 유통업체, 독립서점을 대상으로 납본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납본제도는 국민이 발행한 소중한 자료를 국가지식자원으로 영구보존하고 국가대표도서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도서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 자료의 납본) : 누구든지 도서관 자료(도서, 연속간행물 등)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사에서는 독립출판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현재의 납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독립출판물의 납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34조(통계 작성 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독립출판물의 납본 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주관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 연구수행기관 : 책과사회연구소

응답자의 조건

지난 2년 동안(2022년 9월~2024년 8월) 독립출판물을 발행하거나 판매한 경험이 있는 창작자, 출판사(제작사), 유통업체, 독립서점

※ 이 조사에서 '독립출판물'은 출판사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발행한 출판물(도서 및 잡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기존 출판사와 창작자가 출판계약(저작권료 지급 등)을 맺고 출판물을 펴내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I. 독립출판 관련 경험과 인식

문1. 귀하는 독립출판물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 ① 창작자(저자) ② 출판사(제작대행사) ③ 유통사 ④ 독립서점 ⑤ 기타()

문2. 귀하와 관련된 독립출판물의 분야는 무엇인가요? (1순위 또는 2순위까지 응답)

- ① 에세이(수필) ② 문학(에세이 이외의 시/소설 등) ③ 교양
 ④ 실용(여행/어학/취미/요리 등) ⑤ 전문/학술 ⑥ 종교
 ⑦ 학습참고서/수험서/자격증 ⑧ 잡지 ⑨ 기타()
 ⑩ 특정 분야와 무관함(모든 분야와 관련됨)

※ 자신의 여행 체험을 담은 책은 ①에세이, 타인을 위한 여행 가이드북은 ④실용에 해당

문3. 귀하는 독립출판물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누구나 출판 활동에 참여 ② 개성적인 자기 표현 ③ 개인 경험의 기록과 공유
 ④ 기존 상업출판물과 다른 특색/재미 ⑤ 소자본/소량 출판 가능 ⑥ 차별화/경쟁력에 도움
 ⑦ 기타()

문4. 귀하가 독립출판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응답)

- 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② 사회적 트렌드여서
 ③ 경제적 동기 때문에 ④ [창작자] 이력관리/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어서
 ⑤ [사업자] 매출에 도움이 되어서 ⑥ 독립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⑦ 상업출판물보다 부담이 적어서 ⑧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어서
 ⑨ 기타()

문5. 독립출판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항목별로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세요.

(항목마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응답)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독립출판물은 상업출판물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독립출판물은 다양성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독립출판물의 가격은 낮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독립출판물의 유통은 활성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독립출판물 발행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독립출판물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Ⅱ. 납본 관련 경험

문6. 귀하는 납본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안다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 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발행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 나. 국가 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에 납본되거나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문7. 귀하는 독립출판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납본 또는 납본을 권유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① 전혀 하지 않았 ② 부분적으로 했다 ③ 빠짐없이 했다 ④ 잘 모르겠다

문7-1. (문7에서 ②,③ 응답자) 납본을 했거나 납본을 권유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법 준수를 위해 ② 제도의 취지에 동의해서 ③ 주변의 권유로 ④ 기타()

문7-2. (문7에서 ① 응답자) 납본 또는 납본 권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③ 납본 방법을 잘 몰라서
④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아서 ⑤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어서 ⑥ 기타()

문8. 귀하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 ④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안다

문9. 귀하가 만들거나 유통·판매하는 독립출판물에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가 얼마나 부착되어 있나요?

- ① 전혀 없음 ② 대체로 없음 ③ 보통 ④ 대체로 있음 ⑤ 모두 있음

문9-1. (문9에서 ①, ② 응답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③ 발급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④ 기타()

Ⅲ.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문10. 귀하는 현재의 독립출판물의 납본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⑥ 잘 모르겠다

문10-1. 귀하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납본 제도에 만족/불만족)를 간략히 기입해 주세요.

문11. 독립출판물의 납본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납본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② 편리한 납본 절차
③ 독립출판물 납본 도서 목록 공개 ④ 기타()

문12. 독립출판물의 납본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문13. 독립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이나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순위까지 선택)

- ① 우수 독립출판물 선정·시상 제도 운영
② 정부와 지자체의 독립출판물 페어·축제 지원(우수 독립출판물의 상업 출판 기회로 활용)
③ 정기적인 전국 독립출판물 베스트셀러 목록 공표(독립서점 판매량 집계 등)
④ 독립출판물 등록/통계 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⑤ 독립출판물 목록/판매처 검색 사이트 운영
⑥ 기타()

응답자 기본 사항

S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 남 ② 여 ③ 기타

SQ3. 귀하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시나요?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남 ⑫ 충북 ⑬ 전남 ⑭ 전북 ⑮ 경남 ⑯ 경북 ⑰ 제주

SQ4. 귀하가 독립출판물과 관련된 일을 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15년 미만
⑤ 15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응답을 연구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

[응답자 특성표]			
		결과	
		사례수	%
■전체■		(202)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50.5
	출판사(제작대행사)	(15)	7.4
	유통사	(13)	6.4
	독립서점	(63)	31.2
	기타	(9)	4.5
■ 연령	10대	(11)	5.4
	20대	(25)	12.4
	30대	(80)	39.6
	40대	(61)	30.2
	50대	(20)	9.9
	60대 이상	(5)	2.5
■ 성별	남자	(84)	41.6
	여자	(117)	57.9
	기타	(1)	.5
■ 지역	수도권	(140)	69.3
	비수도권	(62)	30.7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22.3
	1년 이상 ~ 5년 미만	(75)	37.1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32.2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7.9
	20년 이상	(1)	.5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7.4
	잘 모르는 편이다	(60)	29.7
	보통	(62)	30.7
	잘 아는 편이다	(43)	21.3
	매우 잘 안다	(22)	10.9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3.5
	약간 불만족	(13)	6.4
	보통	(86)	42.6
	약간 만족	(33)	16.3
	매우 만족	(7)	3.5
	잘 모르겠다	(56)	27.7

[표 1]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 관련 역할

[표 1]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 관련 역할								
[문 Q1]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창작자 (저자)	독립서점	출판사 (제작대행사)	유통사	기타	계
		빈도	%	%	%	%	%	%
■전체■		(202)	50.5	31.2	7.4	6.4	4.5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100.0	.0	.0	.0	.0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0	100.0	.0	.0	100.0
	유통사	(13)	.0	.0	.0	100.0	.0	100.0
	독립서점	(63)	.0	100.0	.0	.0	.0	100.0
	기타	(9)	.0	.0	.0	.0	100.0	100.0
■ 연령	10대	(11)	100.0	.0	.0	.0	.0	100.0
	20대	(25)	72.0	4.0	12.0	12.0	.0	100.0
	30대	(80)	56.3	26.3	5.0	7.5	5.0	100.0
	40대	(61)	29.5	47.5	9.8	4.9	8.2	100.0
	50대	(20)	35.0	55.0	10.0	.0	.0	100.0
	60대 이상	(5)	60.0	20.0	.0	20.0	.0	100.0
■ 성별	남자	(84)	40.5	31.0	10.7	10.7	7.1	100.0
	여자	(117)	58.1	30.8	5.1	3.4	2.6	100.0
	기타	(1)	.0	100.0	.0	.0	.0	100.0
■ 지역	수도권	(140)	57.1	25.7	6.4	7.1	3.6	100.0
	비수도권	(62)	35.5	43.5	9.7	4.8	6.5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93.3	4.4	.0	.0	2.2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53.3	28.0	8.0	8.0	2.7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27.7	49.2	6.2	9.2	7.7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12.5	50.0	25.0	6.3	6.3	100.0
	20년 이상	(1)	.0	.0	100.0	.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60.0	40.0	.0	.0	.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68.3	26.7	1.7	3.3	.0	100.0
	보통	(62)	43.5	35.5	6.5	11.3	3.2	100.0
	잘 아는 편이다	(43)	34.9	37.2	11.6	7.0	9.3	100.0
	매우 잘 안다	(22)	45.5	13.6	22.7	4.5	13.6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42.9	28.6	14.3	.0	14.3	100.0
	약간 불만족	(13)	53.8	38.5	.0	7.7	.0	100.0
	보통	(86)	46.5	36.0	8.1	7.0	2.3	100.0
	약간 만족	(33)	45.5	21.2	9.1	12.1	12.1	100.0
	매우 만족	(7)	57.1	14.3	28.6	.0	.0	100.0
	잘 모르겠다	(56)	58.9	30.4	3.6	3.6	3.6	100.0

[표 2-1]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관련된 독립출판물 분야 (1순위)

[표 2-1]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관련된 독립출판물 분야 (1순위)													
[문 Q2]													
		사례수	에세이 (수필)	문학 (시/소설 등)	기타	실용 (여행/ 어학/ 취미/ 요리 등)	특정 분야 와 무관	교양	전문/ 학술	잡지	학습 참고 서/수 험서/ 자격 증	종교	계
※BASE : 전체 응답자		빈도	%	%	%	%	%	%	%	%	%	%	%
■전체■		(202)	44.6	15.8	12.9	10.4	9.9	3.0	2.0	.5	.5	.5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48.0	23.5	18.6	6.9	.0	2.0	1.0	.0	.0	.0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26.7	20.0	13.3	13.3	13.3	6.7	.0	.0	.0	6.7	100.0
	유통사	(13)	7.7	.0	7.7	.0	76.9	.0	.0	.0	7.7	.0	100.0
	독립서점	(63)	52.4	4.8	6.3	15.9	9.5	4.8	4.8	1.6	.0	.0	100.0
	기타	(9)	33.3	22.2	.0	22.2	22.2	.0	.0	.0	.0	.0	100.0
■ 연령	10대	(11)	36.4	36.4	27.3	.0	.0	.0	.0	.0	.0	.0	100.0
	20대	(25)	24.0	44.0	12.0	.0	12.0	.0	4.0	.0	.0	4.0	100.0
	30대	(80)	53.8	13.8	11.3	10.0	7.5	1.3	1.3	.0	1.3	.0	100.0
	40대	(61)	41.0	6.6	13.1	16.4	13.1	6.6	1.6	1.6	.0	.0	100.0
	50대	(20)	55.0	10.0	.0	15.0	10.0	5.0	5.0	.0	.0	.0	100.0
	60대 이상	(5)	20.0	.0	60.0	.0	20.0	.0	.0	.0	.0	.0	100.0
■ 성별	남자	(84)	38.1	15.5	14.3	8.3	15.5	3.6	2.4	.0	1.2	1.2	100.0
	여자	(117)	49.6	16.2	11.1	12.0	6.0	2.6	1.7	.9	.0	.0	100.0
	기타	(1)	.0	.0	100.0	.0	.0	.0	.0	.0	.0	.0	100.0
■ 지역	수도권	(140)	42.1	18.6	12.9	8.6	10.7	4.3	2.1	.0	.7	.0	100.0
	비수도권	(62)	50.0	9.7	12.9	14.5	8.1	.0	1.6	1.6	.0	1.6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31.1	35.6	20.0	6.7	2.2	2.2	2.2	.0	.0	.0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57.3	8.0	14.7	9.3	5.3	.0	2.7	.0	1.3	1.3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43.1	10.8	7.7	12.3	18.5	6.2	.0	1.5	.0	.0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31.3	18.8	6.3	18.8	12.5	6.3	6.3	.0	.0	.0	100.0
	20년 이상	(1)	.0	.0	.0	.0	100.0	.0	.0	.0	.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33.3	6.7	26.7	26.7	6.7	.0	.0	.0	.0	.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46.7	26.7	15.0	6.7	3.3	.0	1.7	.0	.0	.0	100.0
	보통	(62)	33.9	6.5	17.7	14.5	16.1	4.8	3.2	.0	1.6	1.6	100.0
	잘 아는 편이다	(43)	53.5	14.0	2.3	7.0	11.6	7.0	2.3	2.3	.0	.0	100.0
	매우 잘 안다	(22)	59.1	22.7	4.5	4.5	9.1	.0	.0	.0	.0	.0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28.6	28.6	14.3	.0	28.6	.0	.0	.0	.0	.0	100.0
	약간 불만족	(13)	53.8	15.4	15.4	.0	.0	.0	15.4	.0	.0	.0	100.0
	보통	(86)	45.3	14.0	12.8	11.6	9.3	3.5	.0	1.2	1.2	1.2	100.0
	약간 만족	(33)	33.3	9.1	9.1	15.2	21.2	6.1	6.1	.0	.0	.0	100.0
	매우 만족	(7)	85.7	14.3	.0	.0	.0	.0	.0	.0	.0	.0	100.0
	잘 모르겠다	(56)	44.6	21.4	16.1	10.7	5.4	1.8	.0	.0	.0	.0	100.0

[표 2-2]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관련된 독립출판물 분야 (2순위)

[표 2-2]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관련된 독립출판물 분야 (2순위)											
[문 Q2]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문학 (에세이 이외의 시/소설 등)	에세이 (수필)	실용 (여행/ 어학/취 미/요리 등)	기타	전문/학 술	교양	학습참 고서/수 험서/자 격증	종교	계
		빈도	%	%	%	%	%	%	%	%	%
■전체■		(137)	27.7	24.8	21.2	16.8	3.6	3.6	1.5	.7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65)	18.5	24.6	21.5	29.2	1.5	1.5	1.5	1.5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1)	18.2	36.4	9.1	.0	27.3	9.1	.0	.0	100.0
	유통사	(1)	.0	.0	.0	.0	.0	.0	100.0	.0	100.0
	독립서점	(53)	45.3	20.8	22.6	5.7	.0	5.7	.0	.0	100.0
	기타	(7)	.0	42.9	28.6	14.3	14.3	.0	.0	.0	100.0
■ 연령	10대	(10)	30.0	30.0	.0	40.0	.0	.0	.0	.0	100.0
	20대	(11)	9.1	36.4	27.3	18.2	9.1	.0	.0	.0	100.0
	30대	(56)	28.6	19.6	26.8	16.1	3.6	1.8	1.8	1.8	100.0
	40대	(42)	35.7	28.6	16.7	7.1	2.4	7.1	2.4	.0	100.0
	50대	(16)	18.8	12.5	25.0	31.3	6.3	6.3	.0	.0	100.0
	60대 이상	(2)	.0	100.0	.0	.0	.0	.0	.0	.0	100.0
■ 성별	남자	(64)	28.1	25.0	20.3	14.1	6.3	3.1	1.6	1.6	100.0
	여자	(72)	26.4	25.0	22.2	19.4	1.4	4.2	1.4	.0	100.0
	기타	(1)	100.0	.0	.0	.0	.0	.0	.0	.0	100.0
■ 지역	수도권	(97)	27.8	22.7	20.6	18.6	3.1	4.1	2.1	1.0	100.0
	비수도권	(40)	27.5	30.0	22.5	12.5	5.0	2.5	.0	.0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29)	17.2	24.1	10.3	44.8	.0	3.4	.0	.0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48)	27.1	14.6	31.3	14.6	4.2	4.2	2.1	2.1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47)	34.0	34.0	19.1	6.4	2.1	2.1	2.1	.0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3)	30.8	30.8	15.4	.0	15.4	7.7	.0	.0	100.0
	20년 이상	(0)	.0	.0	.0	.0	.0	.0	.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9)	33.3	33.3	.0	33.3	.0	.0	.0	.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40)	20.0	20.0	32.5	22.5	.0	5.0	.0	.0	100.0
	보통	(43)	30.2	27.9	18.6	14.0	2.3	2.3	2.3	2.3	100.0
	잘 아는 편이다	(31)	29.0	29.0	12.9	12.9	6.5	6.5	3.2	.0	100.0
	매우 잘 안다	(14)	35.7	14.3	28.6	7.1	14.3	.0	.0	.0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3)	33.3	66.7	.0	.0	.0	.0	.0	.0	100.0
	약간 불만족	(11)	27.3	27.3	36.4	.0	.0	.0	9.1	.0	100.0
	보통	(59)	35.6	25.4	27.1	10.2	1.7	.0	.0	.0	100.0
	약간 만족	(20)	20.0	25.0	.0	30.0	10.0	10.0	.0	5.0	100.0
	매우 만족	(5)	40.0	.0	40.0	.0	.0	20.0	.0	.0	100.0
	잘 모르겠다	(39)	17.9	23.1	17.9	28.2	5.1	5.1	2.6	.0	100.0

[표 2-3]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관련된 독립출판물 분야 (1+2순위)_복수응답

[문 Q2]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에세이 (수필)	문학 (에세이 이외의 시/소설 등)	실용 (여행/ 어학/ 취미/ 요리 등)	기타	특정 분야와 무관	교양	전문/ 학술	학습 참고서/ 시험/자격	종교	잡지
		빈도	%	%	%	%	%	%	%	%	%	%
■전체■		(202)	61.4	34.7	24.8	24.3	9.9	5.4	4.5	1.5	1.0	.5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63.7	35.3	20.6	37.3	.0	2.9	2.0	1.0	1.0	.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53.3	33.3	20.0	13.3	13.3	13.3	20.0	.0	6.7	.0
	유통사	(13)	7.7	.0	.0	7.7	76.9	.0	.0	15.4	.0	.0
	독립서점	(63)	69.8	42.9	34.9	11.1	9.5	9.5	4.8	.0	.0	1.6
	기타	(9)	66.7	22.2	44.4	11.1	22.2	.0	11.1	.0	.0	.0
■ 연령	10대	(11)	63.6	63.6	.0	63.6	.0	.0	.0	.0	.0	.0
	20대	(25)	40.0	48.0	12.0	20.0	12.0	.0	8.0	.0	4.0	.0
	30대	(80)	67.5	33.8	28.8	22.5	7.5	2.5	3.8	2.5	1.3	.0
	40대	(61)	60.7	31.1	27.9	18.0	13.1	11.5	3.3	1.6	.0	1.6
	50대	(20)	65.0	25.0	35.0	25.0	10.0	10.0	10.0	.0	.0	.0
■ 성별	60대 이상	(5)	60.0	.0	.0	60.0	20.0	.0	.0	.0	.0	.0
	남자	(84)	57.1	36.9	23.8	25.0	15.5	6.0	7.1	2.4	2.4	.0
	여자	(117)	65.0	32.5	25.6	23.1	6.0	5.1	2.6	.9	.0	.9
■ 지역	기타	(1)	.0	100.0	.0	100.0	.0	.0	.0	.0	.0	.0
	수도권	(140)	57.9	37.9	22.9	25.7	10.7	7.1	4.3	2.1	.7	.0
	비수도권	(62)	69.4	27.4	29.0	21.0	8.1	1.6	4.8	.0	1.6	1.6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46.7	46.7	13.3	48.9	2.2	4.4	2.2	.0	.0	.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66.7	25.3	29.3	24.0	5.3	2.7	5.3	2.7	2.7	.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67.7	35.4	26.2	12.3	18.5	7.7	1.5	1.5	.0	1.5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56.3	43.8	31.3	6.3	12.5	12.5	18.8	.0	.0	.0
	20년 이상	(1)	.0	.0	.0	.0	100.0	.0	.0	.0	.0	.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53.3	26.7	26.7	46.7	6.7	.0	.0	.0	.0	.0
	잘 모르는 편이다	(60)	60.0	40.0	28.3	30.0	3.3	3.3	1.7	.0	.0	.0
	보통	(62)	53.2	27.4	27.4	27.4	16.1	6.5	4.8	3.2	3.2	.0
	잘 아는 편이다	(43)	74.4	34.9	16.3	11.6	11.6	11.6	7.0	2.3	.0	2.3
	매우 잘 안다	(22)	68.2	45.5	22.7	9.1	9.1	.0	9.1	.0	.0	.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57.1	42.9	.0	14.3	28.6	.0	.0	.0	.0	.0
	약간 불만족	(13)	76.9	38.5	30.8	15.4	.0	.0	15.4	7.7	.0	.0
	보통	(86)	62.8	38.4	30.2	19.8	9.3	3.5	1.2	1.2	1.2	1.2
	약간 만족	(33)	48.5	21.2	15.2	27.3	21.2	12.1	12.1	.0	3.0	.0
	매우 만족	(7)	85.7	42.9	28.6	.0	.0	14.3	.0	.0	.0	.0
	잘 모르겠다	(56)	60.7	33.9	23.2	35.7	5.4	5.4	3.6	1.8	.0	.0

[표 3]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의 장점

[표 3]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의 장점										
[문 Q3]										
	사례수	누구나 출판 활동에 참여	개성적인 자기 표현	기존출판물과 다른 색채/재미	소자본/소출판가능	개인 경험의 기록과 공유	차별화/경쟁력 도움	기타	계	
		빈도	%	%	%	%	%	%		
※BASE : 전체 응답자										
■전체■		(202)	28.2	23.8	21.8	10.9	10.4	4.5	.5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32.4	24.5	14.7	10.8	15.7	2.0	.0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20.0	20.0	20.0	20.0	20.0	.0	.0	100.0
	유통사	(13)	23.1	30.8	7.7	15.4	.0	23.1	.0	100.0
	독립서점	(63)	22.2	23.8	38.1	7.9	.0	6.3	1.6	100.0
	기타	(9)	44.4	11.1	11.1	11.1	22.2	.0	.0	100.0
■ 연령	10대	(11)	45.5	27.3	18.2	.0	9.1	.0	.0	100.0
	20대	(25)	28.0	20.0	20.0	4.0	24.0	4.0	.0	100.0
	30대	(80)	26.3	30.0	21.3	8.8	10.0	3.8	.0	100.0
	40대	(61)	29.5	19.7	19.7	16.4	6.6	6.6	1.6	100.0
	50대	(20)	25.0	10.0	35.0	20.0	5.0	5.0	.0	100.0
	60대 이상	(5)	20.0	40.0	20.0	.0	20.0	.0	.0	100.0
■ 성별	남자	(84)	29.8	25.0	21.4	11.9	7.1	3.6	1.2	100.0
	여자	(117)	27.4	23.1	21.4	10.3	12.8	5.1	.0	100.0
	기타	(1)	.0	.0	100.0	.0	.0	.0	.0	100.0
■ 지역	수도권	(140)	27.9	25.0	21.4	10.7	10.0	4.3	.7	100.0
	비수도권	(62)	29.0	21.0	22.6	11.3	11.3	4.8	.0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33.3	17.8	20.0	4.4	22.2	2.2	.0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28.0	24.0	24.0	9.3	9.3	4.0	1.3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26.2	30.8	18.5	13.8	4.6	6.2	.0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25.0	12.5	31.3	18.8	6.3	6.3	.0	100.0
	20년 이상	(1)	.0	.0	.0	100.0	.0	.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40.0	33.3	26.7	.0	.0	.0	.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26.7	21.7	23.3	10.0	13.3	3.3	1.7	100.0
	보통	(62)	21.0	24.2	21.0	11.3	12.9	9.7	.0	100.0
	잘 아는 편이다	(43)	37.2	18.6	23.3	14.0	4.7	2.3	.0	100.0
	매우 잘 안다	(22)	27.3	31.8	13.6	13.6	13.6	.0	.0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42.9	28.6	.0	28.6	.0	.0	.0	100.0
	약간 불만족	(13)	38.5	15.4	30.8	7.7	7.7	.0	.0	100.0
	보통	(86)	24.4	26.7	22.1	8.1	9.3	9.3	.0	100.0
	약간 만족	(33)	27.3	21.2	15.2	18.2	12.1	3.0	3.0	100.0
	매우 만족	(7)	14.3	14.3	42.9	14.3	14.3	.0	.0	100.0
	잘 모르겠다	(56)	32.1	23.2	23.2	8.9	12.5	.0	.0	100.0

[표 4-1]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 분야에서 일을 하는 이유 (1순위)

[문 Q4]												
		사례수	개인적으로 관심있어서	독립출판물 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이력/자기 개발을 도움 이어서	사회적 트렌드 여서	기타	상업출 판물 보 다 부 적 이어서	매출에 도움 이어서	경제적 동기 때문에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어서	계
※BASE : 전체 응답자		빈도	%	%	%	%	%	%	%	%	%	
■ 전체 ■		(202)	59.9	6.4	5.9	5.9	5.4	5.0	4.0	4.0	3.5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67.6	.0	10.8	6.9	5.9	4.9	.0	.0	3.9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53.3	.0	6.7	13.3	.0	6.7	.0	13.3	6.7	100.0
	유통사	(13)	7.7	15.4	.0	7.7	.0	.0	30.8	38.5	.0	100.0
	독립서점	(63)	57.1	17.5	.0	3.2	6.3	6.3	6.3	.0	3.2	100.0
	기타	(9)	77.8	.0	.0	.0	11.1	.0	.0	11.1	.0	100.0
■ 연령	10대	(11)	72.7	.0	.0	18.2	.0	9.1	.0	.0	.0	100.0
	20대	(25)	56.0	4.0	8.0	16.0	12.0	.0	4.0	.0	.0	100.0
	30대	(80)	67.5	1.3	7.5	5.0	3.8	5.0	3.8	5.0	1.3	100.0
	40대	(61)	54.1	11.5	4.9	3.3	4.9	4.9	3.3	4.9	8.2	100.0
	50대	(20)	40.0	20.0	5.0	.0	10.0	10.0	5.0	5.0	5.0	100.0
	60대 이상	(5)	80.0	.0	.0	.0	.0	.0	20.0	.0	.0	100.0
■ 성별	남자	(84)	56.0	6.0	3.6	7.1	3.6	9.5	4.8	8.3	1.2	100.0
	여자	(117)	63.2	6.8	7.7	5.1	6.8	1.7	3.4	.9	4.3	100.0
	기타	(1)	.0	.0	.0	.0	.0	.0	.0	.0	100.0	100.0
■ 지역	수도권	(140)	60.0	5.0	6.4	6.4	5.7	4.3	4.3	5.0	2.9	100.0
	비수도권	(62)	59.7	9.7	4.8	4.8	4.8	6.5	3.2	1.6	4.8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68.9	.0	6.7	11.1	6.7	4.4	.0	2.2	.0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58.7	10.7	9.3	6.7	4.0	1.3	4.0	1.3	4.0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55.4	7.7	3.1	3.1	6.2	7.7	6.2	4.6	6.2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62.5	.0	.0	.0	6.3	12.5	6.3	12.5	.0	100.0
	20년 이상	(1)	.0	.0	.0	.0	.0	.0	.0	100.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80.0	.0	.0	.0	13.3	.0	.0	.0	6.7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65.0	6.7	5.0	8.3	1.7	1.7	6.7	1.7	3.3	100.0
	보통	(62)	53.2	3.2	4.8	6.5	6.5	9.7	1.6	11.3	3.2	100.0
	잘 아는 편이다	(43)	55.8	14.0	9.3	2.3	7.0	4.7	4.7	.0	2.3	100.0
	매우 잘 안다	(22)	59.1	4.5	9.1	9.1	4.5	4.5	4.5	.0	4.5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14.3	.0	14.3	14.3	57.1	.0	.0	.0	.0	100.0
	약간 불만족	(13)	69.2	15.4	7.7	.0	.0	7.7	.0	.0	.0	100.0
	보통	(86)	55.8	8.1	3.5	9.3	5.8	7.0	3.5	3.5	3.5	100.0
	약간 만족	(33)	57.6	3.0	12.1	.0	.0	3.0	12.1	9.1	3.0	100.0
	매우 만족	(7)	71.4	.0	.0	14.3	.0	.0	.0	.0	14.3	100.0
	잘 모르겠다	(56)	69.6	5.4	5.4	3.6	3.6	3.6	1.8	3.6	3.6	100.0

[표 4-2]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 분야에서 일을 하는 이유 (2순위)

[문 Q4]												
		사례수	상업출판물보다 부담이 적어서	독립출판물 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개인적 관심에서 있어서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어서	사회적 트렌드 여서	이력관 리/자기 개발에 도움 이어서	기타	경제적 동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 이어서	계
※BASE : 전체 응답자		빈도	%	%	%	%	%	%	%	%	%	%
■ 전체 ■		(170)	17.6	17.6	16.5	12.9	11.8	8.8	5.3	5.3	4.1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88)	18.2	5.7	20.5	21.6	11.4	12.5	5.7	2.3	2.3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4)	28.6	28.6	21.4	7.1	.0	7.1	.0	.0	7.1	100.0
	유통사	(13)	15.4	46.2	.0	7.7	.0	.0	.0	23.1	7.7	100.0
	독립서점	(48)	8.3	29.2	14.6	2.1	16.7	6.3	8.3	8.3	6.3	100.0
	기타	(7)	57.1	14.3	.0	.0	28.6	.0	.0	.0	.0	100.0
■ 연령	10대	(11)	9.1	.0	27.3	27.3	18.2	18.2	.0	.0	.0	100.0
	20대	(21)	19.0	4.8	23.8	14.3	14.3	9.5	9.5	4.8	.0	100.0
	30대	(73)	13.7	24.7	12.3	15.1	11.0	8.2	6.8	4.1	4.1	100.0
	40대	(46)	28.3	17.4	15.2	6.5	10.9	6.5	4.3	6.5	4.3	100.0
	50대	(17)	11.8	17.6	23.5	11.8	11.8	5.9	.0	5.9	11.8	100.0
	60대 이상	(2)	.0	.0	.0	.0	.0	50.0	.0	50.0	.0	100.0
■ 성별	남자	(74)	17.6	25.7	13.5	5.4	10.8	9.5	5.4	6.8	5.4	100.0
	여자	(95)	17.9	11.6	17.9	18.9	12.6	8.4	5.3	4.2	3.2	100.0
	기타	(1)	.0	.0	100.0	.0	.0	.0	.0	.0	.0	100.0
■ 지역	수도권	(123)	17.9	14.6	16.3	13.0	13.8	11.4	4.9	4.1	4.1	100.0
	비수도권	(47)	17.0	25.5	17.0	12.8	6.4	2.1	6.4	8.5	4.3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38)	15.8	5.3	18.4	18.4	21.1	13.2	5.3	2.6	.0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66)	24.2	15.2	18.2	13.6	9.1	7.6	3.0	4.5	4.5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52)	11.5	23.1	15.4	9.6	9.6	9.6	7.7	5.8	7.7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3)	15.4	38.5	7.7	7.7	7.7	.0	7.7	15.4	.0	100.0
	20년 이상	(1)	.0	100.0	.0	.0	.0	.0	.0	.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0)	10.0	10.0	10.0	20.0	20.0	20.0	10.0	.0	.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51)	13.7	9.8	19.6	21.6	7.8	9.8	9.8	5.9	2.0	100.0
	보통	(55)	21.8	21.8	14.5	3.6	18.2	5.5	5.5	7.3	1.8	100.0
	잘 아는 편이다	(34)	23.5	26.5	17.6	11.8	5.9	5.9	.0	.0	8.8	100.0
	매우 잘 안다	(20)	10.0	15.0	15.0	15.0	10.0	15.0	.0	10.0	10.0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4)	.0	25.0	25.0	.0	.0	25.0	25.0	.0	.0	100.0
	약간 불만족	(10)	.0	30.0	10.0	20.0	10.0	.0	20.0	.0	10.0	100.0
	보통	(74)	20.3	17.6	23.0	10.8	12.2	4.1	4.1	5.4	2.7	100.0
	약간 만족	(29)	27.6	24.1	3.4	10.3	17.2	6.9	3.4	3.4	3.4	100.0
	매우 만족	(7)	28.6	.0	14.3	28.6	.0	14.3	.0	14.3	.0	100.0
	잘 모르겠다	(46)	10.9	13.0	15.2	15.2	10.9	17.4	4.3	6.5	6.5	100.0

[표 4-3]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 분야에서 일을 하는 이유
(1+2순위)_복수응답

[문 Q4]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개인적 관심이 있어서	독립출 판물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상업출 판물 보다 부담이 적어서	사회적 트렌드 여서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어서	이력관 리/자기 계발에 도움 있어서	기타	경제적 동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 있어서
		빈도	%	%	%	%	%	%	%	%	%
■전체■		(202)	73.8	21.3	19.8	15.8	14.4	13.4	9.9	8.4	7.4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85.3	4.9	20.6	16.7	22.5	21.6	10.8	2.0	2.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73.3	26.7	33.3	13.3	13.3	13.3	.0	13.3	6.7
	유통사	(13)	7.7	61.5	15.4	7.7	7.7	.0	.0	61.5	38.5
	독립서점	(63)	68.3	39.7	12.7	15.9	4.8	4.8	12.7	6.3	11.1
	기타	(9)	77.8	11.1	44.4	22.2	.0	.0	11.1	11.1	.0
■ 연령	10대	(11)	100.0	.0	18.2	36.4	27.3	18.2	.0	.0	.0
	20대	(25)	76.0	8.0	16.0	28.0	12.0	16.0	20.0	4.0	4.0
	30대	(80)	78.8	23.8	17.5	15.0	15.0	15.0	10.0	8.8	7.5
	40대	(61)	65.6	24.6	26.2	11.5	13.1	9.8	8.2	9.8	6.6
	50대	(20)	60.0	35.0	20.0	10.0	15.0	10.0	10.0	10.0	15.0
	60대 이상	(5)	80.0	.0	.0	.0	.0	20.0	.0	20.0	20.0
■ 성별	남자	(84)	67.9	28.6	25.0	16.7	6.0	11.9	8.3	14.3	9.5
	여자	(117)	77.8	16.2	16.2	15.4	19.7	14.5	11.1	4.3	6.0
	기타	(1)	100.0	.0	.0	.0	100.0	.0	.0	.0	.0
■ 지역	수도권	(140)	74.3	17.9	20.0	18.6	14.3	16.4	10.0	8.6	7.9
	비수도권	(62)	72.6	29.0	19.4	9.7	14.5	6.5	9.7	8.1	6.5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84.4	4.4	17.8	28.9	15.6	17.8	11.1	4.4	.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74.7	24.0	22.7	14.7	16.0	16.0	6.7	5.3	8.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67.7	26.2	16.9	10.8	13.8	10.8	12.3	9.2	12.3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68.8	31.3	25.0	6.3	6.3	.0	12.5	25.0	6.3
	20년 이상	(1)	.0	100.0	.0	.0	.0	.0	.0	100.0	.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86.7	6.7	6.7	13.3	20.0	13.3	20.0	.0	.0
	잘 모르는 편이다	(60)	81.7	15.0	13.3	15.0	21.7	13.3	10.0	6.7	8.3
	보통	(62)	66.1	22.6	29.0	22.6	6.5	9.7	11.3	17.7	3.2
	잘 아는 편이다	(43)	69.8	34.9	23.3	7.0	11.6	14.0	7.0	.0	11.6
	매우 잘 안다	(22)	72.7	18.2	13.6	18.2	18.2	22.7	4.5	9.1	13.6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28.6	14.3	.0	14.3	.0	28.6	71.4	.0	.0
	약간 불만족	(13)	76.9	38.5	7.7	7.7	15.4	7.7	15.4	.0	7.7
	보통	(86)	75.6	23.3	24.4	19.8	12.8	7.0	9.3	8.1	5.8
	약간 만족	(33)	60.6	24.2	27.3	15.2	12.1	18.2	3.0	12.1	15.2
	매우 만족	(7)	85.7	.0	28.6	14.3	42.9	14.3	.0	14.3	.0
	잘 모르겠다	(56)	82.1	16.1	12.5	12.5	16.1	19.6	7.1	8.9	7.1

[표 5]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종합) - 5점평균

[표 5]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종합) - 5점평균								
[문 Q5]								
	사례수	독립출판물은 상업출판물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	독립출판물은 출판양분 다양성 이 부족하다	독립출판물의 가격은 낮은 편이다	독립출판물의 유통은 확충되어 있다	독립출판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독립출판물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빈도	(5점평균)	(5점평균)	(5점평균)	(5점평균)	(5점평균)	
※BASE : 전체 응답자								
■전체■		(202)	4.23	4.40	2.61	2.93	4.00	3.9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4.29	4.43	2.69	3.03	3.95	3.94
	출판사(제작대행사)	(15)	4.47	4.47	2.40	2.67	4.47	4.33
	유통사	(13)	4.31	4.38	2.23	2.69	3.62	3.69
	독립서점	(63)	4.02	4.27	2.60	2.84	4.00	3.78
	기타	(9)	4.56	4.89	2.67	3.11	4.33	3.78
■ 연령	10대	(11)	4.45	4.45	2.91	3.55	3.73	4.00
	20대	(25)	4.16	4.28	2.48	3.12	4.00	3.88
	30대	(80)	4.29	4.53	2.61	3.00	4.10	3.94
	40대	(61)	4.21	4.31	2.57	2.70	4.00	3.85
	50대	(20)	4.05	4.30	2.60	2.75	3.90	3.90
	60대 이상	(5)	4.20	4.40	3.00	2.80	3.40	3.60
■ 성별	남자	(84)	4.24	4.36	2.62	3.00	3.94	3.81
	여자	(117)	4.23	4.43	2.61	2.87	4.05	3.96
	기타	(1)	4.00	5.00	2.00	3.00	3.00	4.00
■ 지역	수도권	(140)	4.28	4.41	2.60	2.94	4.01	3.94
	비수도권	(62)	4.13	4.37	2.63	2.90	3.98	3.81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4.24	4.29	2.69	3.22	3.87	3.87
	1년 이상 ~ 5년 미만	(75)	4.13	4.47	2.61	2.80	4.04	3.95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4.29	4.40	2.54	2.89	4.06	3.86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4.44	4.38	2.62	2.81	4.00	3.87
	20년 이상	(1)	4.00	5.00	3.00	3.00	3.00	4.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4.20	4.40	2.60	2.73	3.93	3.67
	잘 모르는 편이다	(60)	4.22	4.38	2.87	3.10	3.87	3.83
	보통	(62)	4.27	4.40	2.47	2.98	3.94	3.95
	잘 아는 편이다	(43)	4.12	4.26	2.51	2.72	4.19	3.93
	매우 잘 안다	(22)	4.41	4.73	2.50	2.82	4.23	4.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3.71	3.71	2.43	2.29	4.43	3.57
	약간 불만족	(13)	4.08	4.38	2.54	2.46	4.08	4.15
	보통	(86)	4.20	4.44	2.62	2.94	3.98	4.01
	약간 만족	(33)	4.55	4.58	2.58	3.03	3.91	3.85
	매우 만족	(7)	4.43	4.86	2.71	3.14	4.00	4.14
	잘 모르겠다	(56)	4.18	4.27	2.64	3.00	4.02	3.70

[표 5]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종합) - 100점 평균

[문 Q5]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독립출판물은 상업출판물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	독립출판물은 출판양부 하다	독립출판물의 가격은 낮은 편이다	독립출판물의 유통은 활성화되어 있다	독립출판물은 출판행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독립출판물은 출판시장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빈도	(100점평균)	(100점평균)	(100점평균)	(100점평균)	(100점평균)	(100점평균)	
■전체■	(202)	80.8	85.0	40.2	48.1	75.0	72.4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82.4	85.8	42.2	50.7	73.8	73.5
	출판사(제작대행사)	(15)	86.7	86.7	35.0	41.7	86.7	83.3
	유통사	(13)	82.7	84.6	30.8	42.3	65.4	67.3
	독립서점	(63)	75.4	81.7	40.1	46.0	75.0	69.4
	기타	(9)	88.9	97.2	41.7	52.8	83.3	69.4
■ 연령	10대	(11)	86.4	86.4	47.7	63.6	68.2	75.0
	20대	(25)	79.0	82.0	37.0	53.0	75.0	72.0
	30대	(80)	82.2	88.1	40.3	50.0	77.5	73.4
	40대	(61)	80.3	82.8	39.3	42.6	75.0	71.3
	50대	(20)	76.3	82.5	40.0	43.8	72.5	72.5
■ 성별	60대 이상	(5)	80.0	85.0	50.0	45.0	60.0	65.0
	남자	(84)	81.0	83.9	40.5	50.0	73.5	70.2
	여자	(117)	80.8	85.7	40.2	46.8	76.3	73.9
■ 지역	기타	(1)	75.0	100.0	25.0	50.0	50.0	75.0
	수도권	(140)	82.0	85.4	40.0	48.4	75.2	73.4
	비수도권	(62)	78.2	84.3	40.7	47.6	74.6	70.2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81.1	82.2	42.2	55.6	71.7	71.7
	1년 이상 ~ 5년 미만	(75)	78.3	86.7	40.3	45.0	76.0	73.7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82.3	85.0	38.5	47.3	76.5	71.5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85.9	84.4	40.6	45.3	75.0	71.9
	20년 이상	(1)	75.0	100.0	50.0	50.0	50.0	75.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80.0	85.0	40.0	43.3	73.3	66.7
	잘 모르는 편이다	(60)	80.4	84.6	46.7	52.5	71.7	70.8
	보통	(62)	81.9	85.1	36.7	49.6	73.4	73.8
	잘 아는 편이다	(43)	77.9	81.4	37.8	43.0	79.7	73.3
	매우 잘 안다	(22)	85.2	93.2	37.5	45.5	80.7	75.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67.9	67.9	35.7	32.1	85.7	64.3
	약간 불만족	(13)	76.9	84.6	38.5	36.5	76.9	78.8
	보통	(86)	79.9	86.0	40.4	48.5	74.4	75.3
	약간 만족	(33)	88.6	89.4	39.4	50.8	72.7	71.2
	매우 만족	(7)	85.7	96.4	42.9	53.6	75.0	78.6
	잘 모르겠다	(56)	79.5	81.7	41.1	50.0	75.4	67.4

[표 5-1]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1) 독립출판물은 상업출판물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

[문 Q5]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비동의 (①,②)	● 보통 (③)	● 동의 (④,⑤)	계	평균
		빈도	%	%	%	%	%	%	%	%	(5점 척도)	(100 점)
※BASE : 전체 응답자												
■ 전체 ■		(202)	.0	2.0	7.9	55.0	35.1	2.0	7.9	90.1	100.0	4.23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0	1.0	6.9	53.9	38.2	1.0	6.9	92.2	100.0	4.29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0	6.7	40.0	53.3	.0	6.7	93.3	100.0	4.47
	유통사	(13)	.0	.0	.0	69.2	30.8	.0	.0	100.0	100.0	4.31
	독립서점	(63)	.0	4.8	12.7	58.7	23.8	4.8	12.7	82.5	100.0	4.02
	기타	(9)	.0	.0	.0	44.4	55.6	.0	.0	100.0	100.0	4.56
■ 연령	10대	(11)	.0	.0	.0	54.5	45.5	.0	.0	100.0	100.0	4.45
	20대	(25)	.0	.0	4.0	76.0	20.0	.0	4.0	96.0	100.0	4.16
	30대	(80)	.0	1.3	6.3	55.0	37.5	1.3	6.3	92.5	100.0	4.29
	40대	(61)	.0	3.3	13.1	42.6	41.0	3.3	13.1	83.6	100.0	4.21
	50대	(20)	.0	5.0	10.0	60.0	25.0	5.0	10.0	85.0	100.0	4.05
	60대 이상	(5)	.0	.0	.0	80.0	20.0	.0	.0	100.0	100.0	4.20
■ 성별	남자	(84)	.0	2.4	8.3	52.4	36.9	2.4	8.3	89.3	100.0	4.24
	여자	(117)	.0	1.7	7.7	56.4	34.2	1.7	7.7	90.6	100.0	4.23
	기타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4.00
■ 지역	수도권	(140)	.0	2.9	5.7	52.1	39.3	2.9	5.7	91.4	100.0	4.28
	비수도권	(62)	.0	.0	12.9	61.3	25.8	.0	12.9	87.1	100.0	4.13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0	.0	4.4	66.7	28.9	.0	4.4	95.6	100.0	4.24
	1년 이상 ~ 5년 미만	(75)	.0	4.0	9.3	56.0	30.7	4.0	9.3	86.7	100.0	4.13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0	1.5	7.7	50.8	40.0	1.5	7.7	90.8	100.0	4.29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0	.0	12.5	31.3	56.3	.0	12.5	87.5	100.0	4.44
	20년 이상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4.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0	.0	6.7	66.7	26.7	.0	6.7	93.3	100.0	4.20
	잘 모르는 편이다	(60)	.0	.0	6.7	65.0	28.3	.0	6.7	93.3	100.0	4.22
	보통	(62)	.0	1.6	6.5	54.8	37.1	1.6	6.5	91.9	100.0	4.27
	잘 아는 편이다	(43)	.0	7.0	7.0	53.5	32.6	7.0	7.0	86.0	100.0	4.12
	매우 잘 안다	(22)	.0	.0	18.2	22.7	59.1	.0	18.2	81.8	100.0	4.41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0	.0	57.1	14.3	28.6	.0	57.1	42.9	100.0	3.71
	약간 불만족	(13)	.0	15.4	7.7	30.8	46.2	15.4	7.7	76.9	100.0	4.08
	보통	(86)	.0	1.2	9.3	58.1	31.4	1.2	9.3	89.5	100.0	4.20
	약간 만족	(33)	.0	.0	.0	45.5	54.5	.0	.0	100.0	100.0	4.55
	매우 만족	(7)	.0	.0	.0	57.1	42.9	.0	.0	100.0	100.0	4.43
	잘 모르겠다	(56)	.0	1.8	5.4	66.1	26.8	1.8	5.4	92.9	100.0	4.18

[표 5-2]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2) 독립출판물은 다양성이 풍부하다

[문 Q5]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비동의 (①,②)	● 보통 (③)	● 동의 (④,⑤)	계	▶ 평균	▶ 평균
		빈도	%	%	%	%	%	%	%	%	%	(5점 척도)	(100 점)
※BASE : 전체 응답자													
■ 전체 ■		(202)	.0	.5	7.9	42.6	49.0	.5	7.9	91.6	100.0	4.40	85.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0	.0	4.9	47.1	48.0	.0	4.9	95.1	100.0	4.43	85.8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0	13.3	26.7	60.0	.0	13.3	86.7	100.0	4.47	86.7
	유통사	(13)	.0	.0	.0	61.5	38.5	.0	.0	100.0	100.0	4.38	84.6
	독립서점	(63)	.0	1.6	14.3	39.7	44.4	1.6	14.3	84.1	100.0	4.27	81.7
	기타	(9)	.0	.0	.0	11.1	88.9	.0	.0	100.0	100.0	4.89	97.2
■ 연령	10대	(11)	.0	.0	.0	54.5	45.5	.0	.0	100.0	100.0	4.45	86.4
	20대	(25)	.0	.0	4.0	64.0	32.0	.0	4.0	96.0	100.0	4.28	82.0
	30대	(80)	.0	.0	5.0	37.5	57.5	.0	5.0	95.0	100.0	4.53	88.1
	40대	(61)	.0	1.6	13.1	37.7	47.5	1.6	13.1	85.2	100.0	4.31	82.8
	50대	(20)	.0	.0	15.0	40.0	45.0	.0	15.0	85.0	100.0	4.30	82.5
	60대 이상	(5)	.0	.0	.0	60.0	40.0	.0	.0	100.0	100.0	4.40	85.0
■ 성별	남자	(84)	.0	1.2	8.3	44.0	46.4	1.2	8.3	90.5	100.0	4.36	83.9
	여자	(117)	.0	.0	7.7	41.9	50.4	.0	7.7	92.3	100.0	4.43	85.7
	기타	(1)	.0	.0	.0	.0	100.0	.0	.0	100.0	100.0	5.00	100.0
■ 지역	수도권	(140)	.0	.7	7.9	40.7	50.7	.7	7.9	91.4	100.0	4.41	85.4
	비수도권	(62)	.0	.0	8.1	46.8	45.2	.0	8.1	91.9	100.0	4.37	84.3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0	.0	6.7	57.8	35.6	.0	6.7	93.3	100.0	4.29	82.2
	1년 이상 ~ 5년 미만	(75)	.0	.0	8.0	37.3	54.7	.0	8.0	92.0	100.0	4.47	86.7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0	1.5	9.2	36.9	52.3	1.5	9.2	89.2	100.0	4.40	85.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0	.0	6.3	50.0	43.8	.0	6.3	93.8	100.0	4.38	84.4
	20년 이상	(1)	.0	.0	.0	.0	100.0	.0	.0	100.0	100.0	5.0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0	.0	6.7	46.7	46.7	.0	6.7	93.3	100.0	4.40	85.0
	잘 모르는 편이다	(60)	.0	.0	6.7	48.3	45.0	.0	6.7	93.3	100.0	4.38	84.6
	보통	(62)	.0	.0	6.5	46.8	46.8	.0	6.5	93.5	100.0	4.40	85.1
	잘 아는 편이다	(43)	.0	2.3	11.6	44.2	41.9	2.3	11.6	86.0	100.0	4.26	81.4
	매우 잘 안다	(22)	.0	.0	9.1	9.1	81.8	.0	9.1	90.9	100.0	4.73	93.2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0	.0	57.1	14.3	28.6	.0	57.1	42.9	100.0	3.71	67.9
	약간 불만족	(13)	.0	.0	7.7	46.2	46.2	.0	7.7	92.3	100.0	4.38	84.6
	보통	(86)	.0	.0	3.5	48.8	47.7	.0	3.5	96.5	100.0	4.44	86.0
	약간 만족	(33)	.0	.0	9.1	24.2	66.7	.0	9.1	90.9	100.0	4.58	89.4
	매우 만족	(7)	.0	.0	.0	14.3	85.7	.0	.0	100.0	100.0	4.86	96.4
	잘 모르겠다	(56)	.0	1.8	8.9	50.0	39.3	1.8	8.9	89.3	100.0	4.27	81.7

[표 5-3]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3) 독립출판물의 가격은 낮은 편이다

[문 Q5]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비동의 (①,②)	● 보통 (③)	● 동의 (④,⑤)	계	평균
		빈도	%	%	%	%	%	%	%	%	(5점 척도)	(100 점)
■ 전체		(202)	6.9	36.1	47.0	8.9	1.0	43.1	47.0	9.9	100.0	2.61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4.9	31.4	54.9	7.8	1.0	36.3	54.9	8.8	100.0	2.69
	출판사(제작대행사)	(15)	33.3	13.3	33.3	20.0	.0	46.7	33.3	20.0	100.0	2.40
	유통사	(13)	7.7	61.5	30.8	.0	.0	69.2	30.8	.0	100.0	2.23
	독립서점	(63)	4.8	44.4	38.1	11.1	1.6	49.2	38.1	12.7	100.0	2.60
	기타	(9)	.0	33.3	66.7	.0	.0	33.3	66.7	.0	100.0	2.67
■ 연령	10대	(11)	.0	9.1	90.9	.0	.0	9.1	90.9	.0	100.0	2.91
	20대	(25)	8.0	40.0	48.0	4.0	.0	48.0	48.0	4.0	100.0	2.48
	30대	(80)	7.5	37.5	43.8	8.8	2.5	45.0	43.8	11.3	100.0	2.61
	40대	(61)	8.2	36.1	45.9	9.8	.0	44.3	45.9	9.8	100.0	2.57
	50대	(20)	5.0	45.0	35.0	15.0	.0	50.0	35.0	15.0	100.0	2.60
	60대 이상	(5)	.0	20.0	60.0	20.0	.0	20.0	60.0	20.0	100.0	3.00
■ 성별	남자	(84)	4.8	38.1	48.8	7.1	1.2	42.9	48.8	8.3	100.0	2.62
	여자	(117)	8.5	34.2	46.2	10.3	.9	42.7	46.2	11.1	100.0	2.61
	기타	(1)	.0	100.0	.0	.0	.0	100.0	.0	.0	100.0	2.00
■ 지역	수도권	(140)	7.9	32.1	52.9	6.4	.7	40.0	52.9	7.1	100.0	2.60
	비수도권	(62)	4.8	45.2	33.9	14.5	1.6	50.0	33.9	16.1	100.0	2.63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2.2	26.7	71.1	.0	.0	28.9	71.1	.0	100.0	2.69
	1년 이상 ~ 5년 미만	(75)	9.3	36.0	40.0	13.3	1.3	45.3	40.0	14.7	100.0	2.61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7.7	41.5	40.0	10.8	.0	49.2	40.0	10.8	100.0	2.54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6.3	43.8	37.5	6.3	6.3	50.0	37.5	12.5	100.0	2.62
	20년 이상	(1)	.0	.0	100.0	.0	.0	.0	100.0	.0	100.0	3.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6.7	33.3	53.3	6.7	.0	40.0	53.3	6.7	100.0	2.60
	잘 모르는 편이다	(60)	1.7	25.0	60.0	11.7	1.7	26.7	60.0	13.3	100.0	2.87
	보통	(62)	9.7	38.7	46.8	4.8	.0	48.4	46.8	4.8	100.0	2.47
	잘 아는 편이다	(43)	9.3	39.5	41.9	9.3	.0	48.8	41.9	9.3	100.0	2.51
	매우 잘 안다	(22)	9.1	54.5	18.2	13.6	4.5	63.6	18.2	18.2	100.0	2.5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14.3	28.6	57.1	.0	.0	42.9	57.1	.0	100.0	2.43
	약간 불만족	(13)	7.7	53.8	23.1	7.7	7.7	61.5	23.1	15.4	100.0	2.54
	보통	(86)	8.1	31.4	51.2	9.3	.0	39.5	51.2	9.3	100.0	2.62
	약간 만족	(33)	6.1	39.4	45.5	9.1	.0	45.5	45.5	9.1	100.0	2.58
	매우 만족	(7)	.0	57.1	28.6	.0	14.3	57.1	28.6	14.3	100.0	2.71
	잘 모르겠다	(56)	5.4	35.7	48.2	10.7	.0	41.1	48.2	10.7	100.0	2.64

[표 5-4]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4) 독립출판물의 유통은 활성화되어 있다

[문 Q5]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비동의 (①,②)	● 보통 (③)	● 동의 (④,⑤)	계	▶ 평균	▶ 평균
		빈도	%	%	%	%	%	%	%	%	%	(5점 척도)	(100 점)
■전체■		(202)	4.5	23.8	48.0	22.3	1.5	28.2	48.0	23.8	100.0	2.93	48.1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3.9	18.6	51.0	23.5	2.9	22.5	51.0	26.5	100.0	3.03	50.7
	출판사(제작대행사)	(15)	13.3	33.3	26.7	26.7	.0	46.7	26.7	26.7	100.0	2.67	41.7
	유통사	(13)	.0	38.5	53.8	7.7	.0	38.5	53.8	7.7	100.0	2.69	42.3
	독립서점	(63)	4.8	25.4	50.8	19.0	.0	30.2	50.8	19.0	100.0	2.84	46.0
	기타	(9)	.0	33.3	22.2	44.4	.0	33.3	22.2	44.4	100.0	3.11	52.8
▣ 연령	10대	(11)	.0	.0	54.5	36.4	9.1	.0	54.5	45.5	100.0	3.55	63.6
	20대	(25)	.0	16.0	56.0	28.0	.0	16.0	56.0	28.0	100.0	3.12	53.0
	30대	(80)	3.8	22.5	46.3	25.0	2.5	26.3	46.3	27.5	100.0	3.00	50.0
	40대	(61)	6.6	32.8	44.3	16.4	.0	39.3	44.3	16.4	100.0	2.70	42.6
	50대	(20)	10.0	20.0	55.0	15.0	.0	30.0	55.0	15.0	100.0	2.75	43.8
	60대 이상	(5)	.0	40.0	40.0	20.0	.0	40.0	40.0	20.0	100.0	2.80	45.0
▣ 성별	남자	(84)	3.6	21.4	47.6	26.2	1.2	25.0	47.6	27.4	100.0	3.00	50.0
	여자	(117)	5.1	25.6	47.9	19.7	1.7	30.8	47.9	21.4	100.0	2.87	46.8
	기타	(1)	.0	.0	100.0	.0	.0	.0	100.0	.0	100.0	3.00	50.0
▣ 지역	수도권	(140)	3.6	24.3	49.3	20.7	2.1	27.9	49.3	22.9	100.0	2.94	48.4
	비수도권	(62)	6.5	22.6	45.2	25.8	.0	29.0	45.2	25.8	100.0	2.90	47.6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0	8.9	62.2	26.7	2.2	8.9	62.2	28.9	100.0	3.22	55.6
	1년 이상 ~ 5년 미만	(75)	9.3	28.0	38.7	21.3	2.7	37.3	38.7	24.0	100.0	2.80	45.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3.1	27.7	46.2	23.1	.0	30.8	46.2	23.1	100.0	2.89	47.3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0	31.3	56.3	12.5	.0	31.3	56.3	12.5	100.0	2.81	45.3
	20년 이상	(1)	.0	.0	100.0	.0	.0	.0	100.0	.0	100.0	3.00	5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6.7	33.3	40.0	20.0	.0	40.0	40.0	20.0	100.0	2.73	43.3
	잘 모르는 편이다	(60)	1.7	15.0	56.7	25.0	1.7	16.7	56.7	26.7	100.0	3.10	52.5
	보통	(62)	3.2	17.7	56.5	22.6	.0	21.0	56.5	22.6	100.0	2.98	49.6
	잘 아는 편이다	(43)	7.0	37.2	34.9	18.6	2.3	44.2	34.9	20.9	100.0	2.72	43.0
	매우 잘 안다	(22)	9.1	31.8	31.8	22.7	4.5	40.9	31.8	27.3	100.0	2.82	45.5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28.6	28.6	28.6	14.3	.0	57.1	28.6	14.3	100.0	2.29	32.1
	약간 불만족	(13)	7.7	38.5	53.8	.0	.0	46.2	53.8	.0	100.0	2.46	36.5
	보통	(86)	5.8	20.9	48.8	22.1	2.3	26.7	48.8	24.4	100.0	2.94	48.5
	약간 만족	(33)	.0	18.2	60.6	21.2	.0	18.2	60.6	21.2	100.0	3.03	50.8
	매우 만족	(7)	.0	42.9	14.3	28.6	14.3	42.9	14.3	42.9	100.0	3.14	53.6
	잘 모르겠다	(56)	1.8	25.0	44.6	28.6	.0	26.8	44.6	28.6	100.0	3.00	50.0

[표 5-5]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5) 독립출판물 발행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문 Q5]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비동의 (①,②)	● 보통 (③)	● 동의 (④,⑤)	계	평균
		빈도	%	%	%	%	%	%	%	%	(5점 척도)	(100 점)
■ 전체		(202)	.0	2.0	23.8	46.5	27.7	2.0	23.8	74.3	100.0	4.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0	2.9	26.5	43.1	27.5	2.9	26.5	70.6	100.0	3.95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0	13.3	26.7	60.0	.0	13.3	86.7	100.0	4.47
	유통사	(13)	.0	.0	46.2	46.2	7.7	.0	46.2	53.8	100.0	3.62
	독립서점	(63)	.0	1.6	19.0	57.1	22.2	1.6	19.0	79.4	100.0	4.00
	기타	(9)	.0	.0	11.1	44.4	44.4	.0	11.1	88.9	100.0	4.33
■ 연령	10대	(11)	.0	.0	45.5	36.4	18.2	.0	45.5	54.5	100.0	3.73
	20대	(25)	.0	.0	20.0	60.0	20.0	.0	20.0	80.0	100.0	4.00
	30대	(80)	.0	5.0	16.3	42.5	36.3	5.0	16.3	78.8	100.0	4.10
	40대	(61)	.0	.0	24.6	50.8	24.6	.0	24.6	75.4	100.0	4.00
	50대	(20)	.0	.0	35.0	40.0	25.0	.0	35.0	65.0	100.0	3.90
	60대 이상	(5)	.0	.0	60.0	40.0	.0	.0	60.0	40.0	100.0	3.40
■ 성별	남자	(84)	.0	1.2	25.0	52.4	21.4	1.2	25.0	73.8	100.0	3.94
	여자	(117)	.0	2.6	22.2	42.7	32.5	2.6	22.2	75.2	100.0	4.05
	기타	(1)	.0	.0	100.0	.0	.0	.0	100.0	.0	100.0	3.00
■ 지역	수도권	(140)	.0	2.9	22.1	46.4	28.6	2.9	22.1	75.0	100.0	4.01
	비수도권	(62)	.0	.0	27.4	46.8	25.8	.0	27.4	72.6	100.0	3.98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0	.0	33.3	46.7	20.0	.0	33.3	66.7	100.0	3.87
	1년 이상 ~ 5년 미만	(75)	.0	4.0	20.0	44.0	32.0	4.0	20.0	76.0	100.0	4.04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0	1.5	18.5	52.3	27.7	1.5	18.5	80.0	100.0	4.06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0	.0	31.3	37.5	31.3	.0	31.3	68.8	100.0	4.00
	20년 이상	(1)	.0	.0	100.0	.0	.0	.0	100.0	.0	100.0	3.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0	.0	26.7	53.3	20.0	.0	26.7	73.3	100.0	3.93
	잘 모르는 편이다	(60)	.0	1.7	33.3	41.7	23.3	1.7	33.3	65.0	100.0	3.87
	보통	(62)	.0	.0	29.0	48.4	22.6	.0	29.0	71.0	100.0	3.94
	잘 아는 편이다	(43)	.0	2.3	7.0	60.5	30.2	2.3	7.0	90.7	100.0	4.19
	매우 잘 안다	(22)	.0	9.1	13.6	22.7	54.5	9.1	13.6	77.3	100.0	4.23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0	.0	.0	57.1	42.9	.0	.0	100.0	100.0	4.43
	약간 불만족	(13)	.0	7.7	23.1	23.1	46.2	7.7	23.1	69.2	100.0	4.08
	보통	(86)	.0	1.2	26.7	45.3	26.7	1.2	26.7	72.1	100.0	3.98
	약간 만족	(33)	.0	6.1	24.2	42.4	27.3	6.1	24.2	69.7	100.0	3.91
	매우 만족	(7)	.0	.0	28.6	42.9	28.6	.0	28.6	71.4	100.0	4.00
	잘 모르겠다	(56)	.0	.0	21.4	55.4	23.2	.0	21.4	78.6	100.0	4.02

[표 5-6] [1. 독립출판물 관련 경험과 인식] 독립출판물에 대한 생각

6) 독립출판물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문 Q5]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비동의 (①,②)	● 보통 (③)	● 동의 (④,⑤)	계	▶ 평균	▶ 평균
		빈도	%	%	%	%	%	%	%	%	(5점 척도)	(100 점)	
※BASE : 전체 응답자													
■전체■		(202)	.5	3.5	27.2	43.6	25.2	4.0	27.2	68.8	100.0	3.90	72.4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0	2.0	31.4	37.3	29.4	2.0	31.4	66.7	100.0	3.94	73.5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0	13.3	40.0	46.7	.0	13.3	86.7	100.0	4.33	83.3
	유통사	(13)	.0	.0	38.5	53.8	7.7	.0	38.5	61.5	100.0	3.69	67.3
	독립서점	(63)	.0	7.9	23.8	50.8	17.5	7.9	23.8	68.3	100.0	3.78	69.4
	기타	(9)	11.1	.0	11.1	55.6	22.2	11.1	11.1	77.8	100.0	3.78	69.4
■ 연령	10대	(11)	.0	.0	18.2	63.6	18.2	.0	18.2	81.8	100.0	4.00	75.0
	20대	(25)	.0	.0	28.0	56.0	16.0	.0	28.0	72.0	100.0	3.88	72.0
	30대	(80)	1.3	6.3	23.8	35.0	33.8	7.5	23.8	68.8	100.0	3.94	73.4
	40대	(61)	.0	3.3	29.5	45.9	21.3	3.3	29.5	67.2	100.0	3.85	71.3
	50대	(20)	.0	.0	35.0	40.0	25.0	.0	35.0	65.0	100.0	3.90	72.5
	60대 이상	(5)	.0	.0	40.0	60.0	.0	.0	40.0	60.0	100.0	3.60	65.0
■ 성별	남자	(84)	1.2	2.4	28.6	50.0	17.9	3.6	28.6	67.9	100.0	3.81	70.2
	여자	(117)	.0	4.3	26.5	38.5	30.8	4.3	26.5	69.2	100.0	3.96	73.9
	기타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4.00	75.0
■ 지역	수도권	(140)	.0	4.3	23.6	46.4	25.7	4.3	23.6	72.1	100.0	3.94	73.4
	비수도권	(62)	1.6	1.6	35.5	37.1	24.2	3.2	35.5	61.3	100.0	3.81	70.2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0	2.2	24.4	57.8	15.6	2.2	24.4	73.3	100.0	3.87	71.7
	1년 이상 ~ 5년 미만	(75)	.0	5.3	24.0	41.3	29.3	5.3	24.0	70.7	100.0	3.95	73.7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1.5	3.1	32.3	33.8	29.2	4.6	32.3	63.1	100.0	3.86	71.5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0	.0	31.3	50.0	18.8	.0	31.3	68.8	100.0	3.87	71.9
	20년 이상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4.00	75.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0	6.7	26.7	60.0	6.7	6.7	26.7	66.7	100.0	3.67	66.7
	잘 모르는 편이다	(60)	.0	3.3	33.3	40.0	23.3	3.3	33.3	63.3	100.0	3.83	70.8
	보통	(62)	.0	1.6	22.6	54.8	21.0	1.6	22.6	75.8	100.0	3.95	73.8
	잘 아는 편이다	(43)	.0	2.3	27.9	44.2	25.6	2.3	27.9	69.8	100.0	3.93	73.3
	매우 잘 안다	(22)	4.5	9.1	22.7	9.1	54.5	13.6	22.7	63.6	100.0	4.00	75.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0	14.3	42.9	14.3	28.6	14.3	42.9	42.9	100.0	3.57	64.3
	약간 불만족	(13)	.0	7.7	7.7	46.2	38.5	7.7	7.7	84.6	100.0	4.15	78.8
	보통	(86)	.0	1.2	24.4	46.5	27.9	1.2	24.4	74.4	100.0	4.01	75.3
	약간 만족	(33)	.0	6.1	24.2	48.5	21.2	6.1	24.2	69.7	100.0	3.85	71.2
	매우 만족	(7)	.0	.0	28.6	28.6	42.9	.0	28.6	71.4	100.0	4.14	78.6
	잘 모르겠다	(56)	1.8	3.6	35.7	41.1	17.9	5.4	35.7	58.9	100.0	3.70	67.4

[표 6] [Ⅱ. 납본 관련 경험] 납본 제도 인지 여부

[문 Q6]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안다	● 비인지 (①,②)	● 보통 (③)	● 인지 (④,⑤)	계	▶ 평균
		빈도	%	%	%	%	%	%	%	%	(5점 척도)	(100 점)
■ 전체		(202)	7.4	29.7	30.7	21.3	10.9	37.1	30.7	32.2	100.0	2.99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8.8	40.2	26.5	14.7	9.8	49.0	26.5	24.5	100.0	2.76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6.7	26.7	33.3	33.3	6.7	26.7	66.7	100.0	3.93
	유통사	(13)	.0	15.4	53.8	23.1	7.7	15.4	53.8	30.8	100.0	3.23
	독립서점	(63)	9.5	25.4	34.9	25.4	4.8	34.9	34.9	30.2	100.0	2.90
	기타	(9)	.0	.0	22.2	44.4	33.3	.0	22.2	77.8	100.0	4.11
■ 연령	10대	(11)	9.1	90.9	.0	.0	.0	100.0	.0	.0	100.0	1.91
	20대	(25)	12.0	32.0	40.0	12.0	4.0	44.0	40.0	16.0	100.0	2.64
	30대	(80)	6.3	23.8	32.5	18.8	18.8	30.0	32.5	37.5	100.0	3.20
	40대	(61)	3.3	24.6	36.1	29.5	6.6	27.9	36.1	36.1	100.0	3.11
	50대	(20)	5.0	30.0	20.0	35.0	10.0	35.0	20.0	45.0	100.0	3.15
	60대 이상	(5)	60.0	40.0	.0	.0	.0	100.0	.0	.0	100.0	1.40
■ 성별	남자	(84)	4.8	25.0	38.1	22.6	9.5	29.8	38.1	32.1	100.0	3.07
	여자	(117)	9.4	32.5	25.6	20.5	12.0	41.9	25.6	32.5	100.0	2.93
	기타	(1)	.0	100.0	.0	.0	.0	100.0	.0	.0	100.0	2.00
■ 지역	수도권	(140)	6.4	30.0	31.4	20.0	12.1	36.4	31.4	32.1	100.0	3.01
	비수도권	(62)	9.7	29.0	29.0	24.2	8.1	38.7	29.0	32.3	100.0	2.92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17.8	51.1	28.9	2.2	.0	68.9	28.9	2.2	100.0	2.16
	1년 이상 ~ 5년 미만	(75)	6.7	32.0	28.0	21.3	12.0	38.7	28.0	33.3	100.0	3.0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3.1	13.8	33.8	30.8	18.5	16.9	33.8	49.2	100.0	3.48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0	18.8	37.5	37.5	6.3	18.8	37.5	43.8	100.0	3.31
	20년 이상	(1)	.0	100.0	.0	.0	.0	100.0	.0	.0	100.0	2.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100.0	.0	.0	.0	.0	100.0	.0	.0	100.0	1.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0	100.0	.0	.0	.0	100.0	.0	.0	100.0	2.00
	보통	(62)	.0	.0	100.0	.0	.0	.0	100.0	.0	100.0	3.00
	잘 아는 편이다	(43)	.0	.0	.0	100.0	.0	.0	.0	100.0	100.0	4.00
	매우 잘 안다	(22)	.0	.0	.0	.0	100.0	.0	.0	100.0	100.0	5.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0	.0	28.6	28.6	42.9	.0	28.6	71.4	100.0	4.14
	약간 불만족	(13)	.0	23.1	23.1	46.2	7.7	23.1	23.1	53.8	100.0	3.38
	보통	(86)	7.0	32.6	36.0	20.9	3.5	39.5	36.0	24.4	100.0	2.81
	약간 만족	(33)	3.0	21.2	27.3	24.2	24.2	24.2	27.3	48.5	100.0	3.45
	매우 만족	(7)	.0	.0	.0	42.9	57.1	.0	.0	100.0	100.0	4.57
	잘 모르겠다	(56)	14.3	39.3	30.4	10.7	5.4	53.6	30.4	16.1	100.0	2.54

[표 7] [Ⅱ. 납본 관련 경험] 독립출판물 관련 납본/납본 권유 경험

[문 Q7]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전혀 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했다	빠짐없이 했다	잘 모르겠다	계
		빈도	%	%	%	%	%
■전체■		(202)	23.8	35.6	16.3	24.3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20.6	22.5	15.7	41.2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60.0	40.0	.0	100.0
	유통사	(13)	.0	46.2	23.1	30.8	100.0
	독립서점	(63)	41.3	46.0	9.5	3.2	100.0
	기타	(9)	11.1	55.6	22.2	11.1	100.0
■ 연령	10대	(11)	9.1	.0	.0	90.9	100.0
	20대	(25)	20.0	16.0	8.0	56.0	100.0
	30대	(80)	23.8	40.0	18.8	17.5	100.0
	40대	(61)	23.0	44.3	23.0	9.8	100.0
	50대	(20)	35.0	40.0	10.0	15.0	100.0
	60대 이상	(5)	40.0	20.0	.0	40.0	100.0
■ 성별	남자	(84)	19.0	46.4	14.3	20.2	100.0
	여자	(117)	27.4	27.4	17.9	27.4	100.0
	기타	(1)	.0	100.0	.0	.0	100.0
■ 지역	수도권	(140)	22.1	31.4	17.1	29.3	100.0
	비수도권	(62)	27.4	45.2	14.5	12.9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22.2	8.9	.0	68.9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29.3	34.7	18.7	17.3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23.1	44.6	24.6	7.7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6.3	75.0	18.8	.0	100.0
	20년 이상	(1)	.0	100.0	.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66.7	13.3	.0	20.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35.0	15.0	.0	50.0	100.0
	보통	(62)	14.5	56.5	3.2	25.8	100.0
	잘 아는 편이다	(43)	14.0	44.2	41.9	.0	100.0
	매우 잘 안다	(22)	9.1	31.8	59.1	.0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14.3	71.4	14.3	.0	100.0
	약간 불만족	(13)	15.4	46.2	30.8	7.7	100.0
	보통	(86)	23.3	38.4	12.8	25.6	100.0
	약간 만족	(33)	6.1	51.5	30.3	12.1	100.0
	매우 만족	(7)	.0	28.6	71.4	.0	100.0
	잘 모르겠다	(56)	41.1	16.1	3.6	39.3	100.0

[표 7-1] [Ⅱ. 납본 관련 경험] 납본을 하거나 납본을 권유한 이유							
[문 Q7-1]							
※BASE : 독립출판물 관련 납본 또는 납본 권유 경험이 있는 관계자		사례수	법 준수를 위해	제도의 취지에 동의해서	기타	주변의 권유로	계
		빈도	%	%	%	%	%
■전체■		(105)	44.8	36.2	9.5	9.5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39)	35.9	38.5	15.4	10.3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53.3	46.7	.0	.0	100.0
	유통사	(9)	55.6	11.1	.0	33.3	100.0
	독립서점	(35)	48.6	34.3	8.6	8.6	100.0
	기타	(7)	42.9	42.9	14.3	.0	100.0
■ 연령	10대	(0)	.0	.0	.0	.0	100.0
	20대	(6)	50.0	16.7	.0	33.3	100.0
	30대	(47)	40.4	40.4	10.6	8.5	100.0
	40대	(41)	46.3	34.1	12.2	7.3	100.0
	50대	(10)	60.0	40.0	.0	.0	100.0
	60대 이상	(1)	.0	.0	.0	100.0	100.0
■ 성별	남자	(51)	41.2	37.3	5.9	15.7	100.0
	여자	(53)	47.2	35.8	13.2	3.8	100.0
	기타	(1)	100.0	.0	.0	.0	100.0
■ 지역	수도권	(68)	41.2	39.7	8.8	10.3	100.0
	비수도권	(37)	51.4	29.7	10.8	8.1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	50.0	25.0	.0	25.0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40)	42.5	37.5	10.0	10.0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45)	40.0	40.0	8.9	11.1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	60.0	26.7	13.3	.0	100.0
	20년 이상	(1)	100.0	.0	.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2)	.0	50.0	.0	50.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9)	44.4	22.2	11.1	22.2	100.0
	보통	(37)	67.6	13.5	5.4	13.5	100.0
	잘 아는 편이다	(37)	35.1	48.6	10.8	5.4	100.0
	매우 잘 안다	(20)	25.0	60.0	15.0	.0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6)	50.0	.0	50.0	.0	100.0
	약간 불만족	(10)	20.0	70.0	10.0	.0	100.0
	보통	(44)	63.6	22.7	2.3	11.4	100.0
	약간 만족	(27)	44.4	40.7	7.4	7.4	100.0
	매우 만족	(7)	.0	85.7	14.3	.0	100.0
	잘 모르겠다	(11)	18.2	36.4	18.2	27.3	100.0

[표 7-2] [Ⅱ. 납본 관련 경험] 납본 또는 납본 권유를 하지 않은 이유

[문 Q7-2]								
※BASE : 독립출판물 관련 납본 또는 납본 권유 경험이 없는 관계자		사례수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납본 방법을 잘 몰라서	기타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아서
		빈도	%	%	%	%	%	%
■전체■		(48)	39.6	20.8	20.8	14.6	2.1	2.1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21)	52.4	4.8	14.3	23.8	.0	4.8
	출판사(제작대행사)	(0)	.0	.0	.0	.0	.0	.0
	유통사	(0)	.0	.0	.0	.0	.0	.0
	독립서점	(26)	30.8	34.6	23.1	7.7	3.8	.0
	기타	(1)	.0	.0	100.0	.0	.0	.0
■ 연령	10대	(1)	100.0	.0	.0	.0	.0	.0
	20대	(5)	60.0	.0	20.0	.0	.0	20.0
	30대	(19)	42.1	21.1	21.1	15.8	.0	.0
	40대	(14)	35.7	28.6	28.6	7.1	.0	.0
	50대	(7)	14.3	28.6	14.3	28.6	14.3	.0
	60대 이상	(2)	50.0	.0	.0	50.0	.0	.0
■ 성별	남자	(16)	31.3	18.8	18.8	31.3	.0	.0
	여자	(32)	43.8	21.9	21.9	6.3	3.1	3.1
	기타	(0)	.0	.0	.0	.0	.0	.0
■ 지역	수도권	(31)	38.7	19.4	19.4	16.1	3.2	3.2
	비수도권	(17)	41.2	23.5	23.5	11.8	.0	.0
■ 종사 기간	1년 미만	(10)	40.0	.0	10.0	50.0	.0	.0
	1년 이상 ~ 5년 미만	(22)	50.0	22.7	13.6	9.1	.0	4.5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26.7	33.3	33.3	.0	6.7	.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	.0	.0	100.0	.0	.0	.0
	20년 이상	(0)	.0	.0	.0	.0	.0	.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0)	80.0	.0	.0	20.0	.0	.0
	잘 모르는 편이다	(21)	42.9	23.8	14.3	19.0	.0	.0
	보통	(9)	22.2	22.2	44.4	11.1	.0	.0
	잘 아는 편이다	(6)	.0	33.3	33.3	.0	16.7	16.7
	매우 잘 안다	(2)	.0	50.0	50.0	.0	.0	.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0	.0	.0	.0	.0	100.0
	약간 불만족	(2)	50.0	50.0	.0	.0	.0	.0
	보통	(20)	50.0	10.0	20.0	15.0	5.0	.0
	약간 만족	(2)	.0	50.0	.0	50.0	.0	.0
	매우 만족	(0)	.0	.0	.0	.0	.0	.0
	잘 모르겠다	(23)	34.8	26.1	26.1	13.0	.0	.0

[표 8] [Ⅱ. 납본 관련 경험]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 인지도

[표 8] [Ⅱ. 납본 관련 경험]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 인지도													
[문 Q8]													
		사례수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	④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안다	● 비인지 (①,②)	● 보통 (③)	● 인지 (④,⑤)	계	▶ 평균	▶ 평균
		빈도	%	%	%	%	%	%	%	%	%	(5점 척도)	(100 점)
※BASE : 전체 응답자													
■ 전체		(202)	.5	16.8	20.8	40.6	21.3	17.3	20.8	61.9	100.0	3.65	66.3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1.0	29.4	18.6	34.3	16.7	30.4	18.6	51.0	100.0	3.36	59.1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0	20.0	26.7	53.3	.0	20.0	80.0	100.0	4.33	83.3
	유통사	(13)	.0	7.7	38.5	46.2	7.7	7.7	38.5	53.8	100.0	3.54	63.5
	독립서점	(63)	.0	4.8	22.2	50.8	22.2	4.8	22.2	73.0	100.0	3.90	72.6
	기타	(9)	.0	.0	11.1	55.6	33.3	.0	11.1	88.9	100.0	4.22	80.6
■ 연령	10대	(11)	9.1	81.8	9.1	.0	.0	90.9	9.1	.0	100.0	2.00	25.0
	20대	(25)	.0	44.0	32.0	16.0	8.0	44.0	32.0	24.0	100.0	2.88	47.0
	30대	(80)	.0	2.5	20.0	42.5	35.0	2.5	20.0	77.5	100.0	4.10	77.5
	40대	(61)	.0	6.6	21.3	60.7	11.5	6.6	21.3	72.1	100.0	3.77	69.3
	50대	(20)	.0	20.0	20.0	30.0	30.0	20.0	20.0	60.0	100.0	3.70	67.5
	60대 이상	(5)	.0	80.0	.0	20.0	.0	80.0	.0	20.0	100.0	2.40	35.0
■ 성별	남자	(84)	1.2	10.7	26.2	41.7	20.2	11.9	26.2	61.9	100.0	3.69	67.3
	여자	(117)	.0	21.4	17.1	39.3	22.2	21.4	17.1	61.5	100.0	3.62	65.6
	기타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4.00	75.0
■ 지역	수도권	(140)	.7	20.7	20.7	35.7	22.1	21.4	20.7	57.9	100.0	3.58	64.5
	비수도권	(62)	.0	8.1	21.0	51.6	19.4	8.1	21.0	71.0	100.0	3.82	70.6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2.2	55.6	28.9	11.1	2.2	57.8	28.9	13.3	100.0	2.56	38.9
	1년 이상 ~ 5년 미만	(75)	.0	9.3	17.3	52.0	21.3	9.3	17.3	73.3	100.0	3.85	71.3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0	1.5	18.5	44.6	35.4	1.5	18.5	80.0	100.0	4.14	78.5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0	6.3	25.0	50.0	18.8	6.3	25.0	68.8	100.0	3.81	70.3
	20년 이상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4.00	75.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0	40.0	20.0	33.3	6.7	40.0	20.0	40.0	100.0	3.07	51.7
	잘 모르는 편이다	(60)	1.7	40.0	15.0	40.0	3.3	41.7	15.0	43.3	100.0	3.03	50.8
	보통	(62)	.0	6.5	48.4	33.9	11.3	6.5	48.4	45.2	100.0	3.50	62.5
	잘 아는 편이다	(43)	.0	.0	.0	69.8	30.2	.0	.0	100.0	100.0	4.30	82.6
	매우 잘 안다	(22)	.0	.0	.0	9.1	90.9	.0	.0	100.0	100.0	4.91	97.7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0	.0	.0	57.1	42.9	.0	.0	100.0	100.0	4.43	85.7
	약간 불만족	(13)	.0	7.7	.0	46.2	46.2	7.7	.0	92.3	100.0	4.31	82.7
	보통	(86)	.0	15.1	31.4	44.2	9.3	15.1	31.4	53.5	100.0	3.48	61.9
	약간 만족	(33)	.0	6.1	18.2	30.3	45.5	6.1	18.2	75.8	100.0	4.15	78.8
	매우 만족	(7)	.0	.0	.0	42.9	57.1	.0	.0	100.0	100.0	4.57	89.3
	잘 모르겠다	(56)	1.8	32.1	16.1	37.5	12.5	33.9	16.1	50.0	100.0	3.27	56.7

[표 9] [Ⅱ. 납본 관련 경험] 유통 및 판매하는 독립출판물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착 정도

【문 Q9】													
		사례수	① 전혀 없음	② 대체로 없음	③ 보통	④ 대체로 있음	⑤ 모두 있음	비인지 (①,②)	보통 (③)	인지 (④,⑤)	계	평균 (5점 척도)	평균 (100 점)
		빈도	%	%	%	%	%	%	%	%	%		
※BASE : 전체 응답자													
■전체■		(202)	6.4	7.9	19.3	46.0	20.3	14.4	19.3	66.3	100.0	3.66	66.5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9.8	2.9	21.6	44.1	21.6	12.7	21.6	65.7	100.0	3.65	66.2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0	6.7	40.0	53.3	.0	6.7	93.3	100.0	4.47	86.7
	유통사	(13)	7.7	.0	15.4	46.2	30.8	7.7	15.4	76.9	100.0	3.92	73.1
	독립서점	(63)	3.2	19.0	20.6	50.8	6.3	22.2	20.6	57.1	100.0	3.38	59.5
	기타	(9)	.0	11.1	11.1	44.4	33.3	11.1	11.1	77.8	100.0	4.00	75.0
■ 연령	10대	(11)	.0	.0	45.5	45.5	9.1	.0	45.5	54.5	100.0	3.64	65.9
	20대	(25)	4.0	4.0	36.0	28.0	28.0	8.0	36.0	56.0	100.0	3.72	68.0
	30대	(80)	8.8	8.8	7.5	52.5	22.5	17.5	7.5	75.0	100.0	3.71	67.8
	40대	(61)	4.9	11.5	18.0	49.2	16.4	16.4	18.0	65.6	100.0	3.61	65.2
	50대	(20)	5.0	5.0	30.0	35.0	25.0	10.0	30.0	60.0	100.0	3.70	67.5
	60대 이상	(5)	20.0	.0	40.0	40.0	.0	20.0	40.0	40.0	100.0	3.00	50.0
■ 성별	남자	(84)	4.8	8.3	14.3	51.2	21.4	13.1	14.3	72.6	100.0	3.76	69.0
	여자	(117)	7.7	7.7	23.1	41.9	19.7	15.4	23.1	61.5	100.0	3.58	64.5
	기타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4.00	75.0
■ 지역	수도권	(140)	5.7	7.9	19.3	45.0	22.1	13.6	19.3	67.1	100.0	3.70	67.5
	비수도권	(62)	8.1	8.1	19.4	48.4	16.1	16.1	19.4	64.5	100.0	3.56	64.1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0	.0	40.0	44.4	15.6	.0	40.0	60.0	100.0	3.76	68.9
	1년 이상 ~ 5년 미만	(75)	10.7	9.3	16.0	44.0	20.0	20.0	16.0	64.0	100.0	3.53	63.3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7.7	12.3	10.8	46.2	23.1	20.0	10.8	69.2	100.0	3.65	66.2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0	6.3	12.5	56.3	25.0	6.3	12.5	81.3	100.0	4.00	75.0
	20년 이상	(1)	.0	.0	.0	100.0	.0	.0	.0	100.0	100.0	4.00	75.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13.3	13.3	46.7	26.7	.0	26.7	46.7	26.7	100.0	2.87	46.7
	잘 모르는 편이다	(60)	15.0	10.0	28.3	40.0	6.7	25.0	28.3	46.7	100.0	3.13	53.3
	보통	(62)	1.6	3.2	11.3	61.3	22.6	4.8	11.3	83.9	100.0	4.00	75.0
	잘 아는 편이다	(43)	2.3	11.6	11.6	39.5	34.9	14.0	11.6	74.4	100.0	3.93	73.3
	매우 잘 안다	(22)	.0	4.5	13.6	45.5	36.4	4.5	13.6	81.8	100.0	4.14	78.4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14.3	.0	14.3	42.9	28.6	14.3	14.3	71.4	100.0	3.71	67.9
	약간 불만족	(13)	7.7	15.4	7.7	61.5	7.7	23.1	7.7	69.2	100.0	3.46	61.5
	보통	(86)	3.5	9.3	22.1	47.7	17.4	12.8	22.1	65.1	100.0	3.66	66.6
	약간 만족	(33)	3.0	3.0	9.1	48.5	36.4	6.1	9.1	84.8	100.0	4.12	78.0
	매우 만족	(7)	.0	.0	.0	57.1	42.9	.0	.0	100.0	100.0	4.43	85.7
	잘 모르겠다	(56)	12.5	8.9	26.8	37.5	14.3	21.4	26.8	51.8	100.0	3.32	58.0
◆[Ⅱ. 납본 관련 경험] 국제표준자료번 호 인지도	① 전혀 모른다	(1)	.0	.0	100.0	.0	.0	.0	100.0	.0	100.0	3.00	50.0
	② 모르는 편이다	(34)	2.9	2.9	52.9	32.4	8.8	5.9	52.9	41.2	100.0	3.41	60.3
	③ 보통	(42)	4.8	4.8	16.7	59.5	14.3	9.5	16.7	73.8	100.0	3.74	68.5
	④ 아는 편이다	(82)	9.8	12.2	11.0	48.8	18.3	22.0	11.0	67.1	100.0	3.54	63.4
	⑤ 매우 잘 안다	(43)	4.7	7.0	9.3	39.5	39.5	11.6	9.3	79.1	100.0	4.02	75.6

[표 9-1] [Ⅱ. 납본 관련 경험]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							
[문 Q9-1]							
※BASE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관계자		사례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발급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기타	계
		빈도	%	%	%	%	%
■전체■		(29)	51.7	27.6	13.8	6.9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3)	61.5	15.4	15.4	7.7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0)	.0	.0	.0	.0	100.0
	유통사	(1)	.0	100.0	.0	.0	100.0
	독립서점	(14)	42.9	35.7	14.3	7.1	100.0
	기타	(1)	100.0	.0	.0	.0	100.0
■ 연령	10대	(0)	.0	.0	.0	.0	100.0
	20대	(2)	50.0	50.0	.0	.0	100.0
	30대	(14)	71.4	7.1	14.3	7.1	100.0
	40대	(10)	30.0	50.0	10.0	10.0	100.0
	50대	(2)	50.0	.0	50.0	.0	100.0
■ 성별	60대 이상	(1)	.0	100.0	.0	.0	100.0
	남자	(11)	54.5	36.4	9.1	.0	100.0
	여자	(18)	50.0	22.2	16.7	11.1	100.0
■ 지역	기타	(0)	.0	.0	.0	.0	100.0
	수도권	(19)	57.9	21.1	15.8	5.3	100.0
	비수도권	(10)	40.0	40.0	10.0	10.0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0)	.0	.0	.0	.0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15)	60.0	20.0	13.3	6.7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13)	38.5	38.5	15.4	7.7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	100.0	.0	.0	.0	100.0
	20년 이상	(0)	.0	.0	.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4)	50.0	25.0	.0	25.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15)	46.7	33.3	13.3	6.7	100.0
	보통	(3)	33.3	33.3	33.3	.0	100.0
	잘 아는 편이다	(6)	66.7	16.7	16.7	.0	100.0
	매우 잘 안다	(1)	100.0	.0	.0	.0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100.0	.0	.0	.0	100.0
	약간 불만족	(3)	33.3	.0	66.7	.0	100.0
	보통	(11)	54.5	36.4	9.1	.0	100.0
	약간 만족	(2)	50.0	.0	.0	50.0	100.0
	매우 만족	(0)	.0	.0	.0	.0	100.0
	잘 모르겠다	(12)	50.0	33.3	8.3	8.3	100.0
◆[Ⅱ. 납본 관련 경험] 국제표준자료번 호(ISBN, ISSN) 인지도	① 전혀 모른다	(0)	.0	.0	.0	.0	100.0
	② 모르는 편이다	(2)	.0	100.0	.0	.0	100.0
	③ 보통	(4)	50.0	25.0	25.0	.0	100.0
	④ 아는 편이다	(18)	61.1	22.2	11.1	5.6	100.0
	⑤ 매우 잘 안다	(5)	40.0	20.0	20.0	20.0	100.0

[표 10] [Ⅲ.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제안] 현재의 독립출판물 납본 만족도														
[문 Q10]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 불만족 (①,②)	● 보통 (③)	● 만족 (④,⑤)	잘 모르 겠다	계	▶ 평균	▶ 평균
		빈도	%	%	%	%	%	%	%	%	%	%	(5점 척도)	(100 점)
■ 전체 ■		(202)	3.5	6.4	42.6	16.3	3.5	9.9	42.6	19.8	27.7	100.0	3.14	53.4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2.9	6.9	39.2	14.7	3.9	9.8	39.2	18.6	32.4	100.0	3.14	53.6
	출판사(제작대행사)	(15)	6.7	.0	46.7	20.0	13.3	6.7	46.7	33.3	13.3	100.0	3.38	59.6
	유통사	(13)	.0	7.7	46.2	30.8	.0	7.7	46.2	30.8	15.4	100.0	3.27	56.8
	독립서점	(63)	3.2	7.9	49.2	11.1	1.6	11.1	49.2	12.7	27.0	100.0	3.00	50.0
	기타	(9)	11.1	.0	22.2	44.4	.0	11.1	22.2	44.4	22.2	100.0	3.29	57.1
■ 연령	10대	(11)	.0	9.1	36.4	.0	.0	9.1	36.4	.0	54.5	100.0	2.80	45.0
	20대	(25)	4.0	.0	48.0	12.0	.0	4.0	48.0	12.0	36.0	100.0	3.06	51.6
	30대	(80)	3.8	10.0	35.0	21.3	3.8	13.8	35.0	25.0	26.3	100.0	3.15	53.8
	40대	(61)	3.3	3.3	47.5	18.0	4.9	6.6	47.5	23.0	23.0	100.0	3.23	55.9
	50대	(20)	5.0	10.0	55.0	10.0	5.0	15.0	55.0	15.0	15.0	100.0	3.00	50.0
■ 성별	60대 이상	(5)	.0	.0	40.0	.0	.0	.0	40.0	.0	60.0	100.0	3.00	50.0
	남자	(84)	2.4	8.3	42.9	17.9	1.2	10.7	42.9	19.0	27.4	100.0	3.10	52.5
	여자	(117)	4.3	5.1	41.9	15.4	5.1	9.4	41.9	20.5	28.2	100.0	3.17	54.2
■ 지역	기타	(1)	.0	.0	100.0	.0	.0	.0	100.0	.0	.0	100.0	3.00	50.0
	수도권	(140)	4.3	5.7	39.3	20.7	4.3	10.0	39.3	25.0	25.7	100.0	3.20	55.0
	비수도권	(62)	1.6	8.1	50.0	6.5	1.6	9.7	50.0	8.1	32.3	100.0	2.98	49.4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0	2.2	37.8	11.1	.0	2.2	37.8	11.1	48.9	100.0	3.17	54.3
	1년 이상 ~ 5년 미만	(75)	4.0	9.3	52.0	13.3	5.3	13.3	52.0	18.7	16.0	100.0	3.08	52.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4.6	4.6	35.4	21.5	4.6	9.2	35.4	26.2	29.2	100.0	3.24	56.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6.3	12.5	37.5	25.0	.0	18.8	37.5	25.0	18.8	100.0	3.00	50.0
	20년 이상	(1)	.0	.0	100.0	.0	.0	.0	100.0	.0	.0	100.0	3.00	5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0	.0	40.0	6.7	.0	.0	40.0	6.7	53.3	100.0	3.14	53.6
	잘 모르는 편이다	(60)	.0	5.0	46.7	11.7	.0	5.0	46.7	11.7	36.7	100.0	3.11	52.6
	보통	(62)	3.2	4.8	50.0	14.5	.0	8.1	50.0	14.5	27.4	100.0	3.04	51.1
	잘 아는 편이다	(43)	4.7	14.0	41.9	18.6	7.0	18.6	41.9	25.6	14.0	100.0	3.11	52.7
	매우 잘 안다	(22)	13.6	4.5	13.6	36.4	18.2	18.2	13.6	54.5	13.6	100.0	3.47	61.8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100.0	.0	.0	.0	.0	100.0	.0	.0	.0	100.0	1.00	.0
	약간 불만족	(13)	.0	100.0	.0	.0	.0	100.0	.0	.0	.0	100.0	2.00	25.0
	보통	(86)	.0	.0	100.0	.0	.0	.0	100.0	.0	.0	100.0	3.00	50.0
	약간 만족	(33)	.0	.0	.0	100.0	.0	.0	.0	100.0	.0	100.0	4.00	75.0
	매우 만족	(7)	.0	.0	.0	.0	100.0	.0	.0	100.0	.0	100.0	5.00	100.0
	잘 모르겠다	(56)	.0	.0	.0	.0	.0	.0	.0	.0	100.0	100.0		.

[표 11] [Ⅲ.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독립출판물 납본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문 Q11]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편리한 납본 절차	납본 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독립출판물 납본 도서 목록 공개	기타	계
		빈도	%	%	%	%	%
■전체■		(202)	49.0	31.7	13.4	5.9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49.0	36.3	9.8	4.9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60.0	13.3	20.0	6.7	100.0
	유통사	(13)	53.8	30.8	15.4	.0	100.0
	독립서점	(63)	47.6	30.2	14.3	7.9	100.0
	기타	(9)	33.3	22.2	33.3	11.1	100.0
■ 연령	10대	(11)	63.6	36.4	.0	.0	100.0
	20대	(25)	52.0	32.0	4.0	12.0	100.0
	30대	(80)	43.8	31.3	18.8	6.3	100.0
	40대	(61)	50.8	31.1	13.1	4.9	100.0
	50대	(20)	55.0	30.0	10.0	5.0	100.0
	60대 이상	(5)	40.0	40.0	20.0	.0	100.0
■ 성별	남자	(84)	51.2	26.2	17.9	4.8	100.0
	여자	(117)	47.9	35.9	9.4	6.8	100.0
	기타	(1)	.0	.0	100.0	.0	100.0
■ 지역	수도권	(140)	52.9	30.7	10.7	5.7	100.0
	비수도권	(62)	40.3	33.9	19.4	6.5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53.3	31.1	11.1	4.4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48.0	36.0	12.0	4.0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46.2	32.3	15.4	6.2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56.3	12.5	12.5	18.8	100.0
	20년 이상	(1)	.0	.0	100.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26.7	60.0	6.7	6.7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53.3	36.7	10.0	.0	100.0
	보통	(62)	58.1	24.2	12.9	4.8	100.0
	잘 아는 편이다	(43)	41.9	23.3	20.9	14.0	100.0
	매우 잘 안다	(22)	40.9	36.4	13.6	9.1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57.1	14.3	.0	28.6	100.0
	약간 불만족	(13)	69.2	15.4	7.7	7.7	100.0
	보통	(86)	46.5	33.7	17.4	2.3	100.0
	약간 만족	(33)	54.5	24.2	15.2	6.1	100.0
	매우 만족	(7)	28.6	28.6	42.9	.0	100.0
	잘 모르겠다	(56)	46.4	39.3	5.4	8.9	100.0

[표 12-1] [Ⅲ.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독립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나 정책 (1순위)

[문 Q13]									
		사례수	정부와 지자체의 독립출판물 퍼지워/독립 출판물 기회로 활용)	독립 출판물 목록/판매 처 사이트 운영	독립 출판물 등록/통계 정보 사이트 운영	우수 출판물 선정/상업 제도	정기적인 전국 독립 출판물 셀러 공표 (독립서점 집계 등)	기타	계
		빈도	%	%	%	%	%	%	%
※BASE : 전체 응답자									
■전체■		(202)	47.5	12.4	12.4	12.4	9.4	5.9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59.8	7.8	12.7	11.8	5.9	2.0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20.0	.0	13.3	33.3	20.0	13.3	100.0
	유통사	(13)	15.4	23.1	15.4	15.4	30.8	.0	100.0
	독립서점	(63)	41.3	20.6	11.1	9.5	7.9	9.5	100.0
	기타	(9)	44.4	11.1	11.1	.0	11.1	22.2	100.0
■ 연령	10대	(11)	72.7	.0	9.1	9.1	9.1	.0	100.0
	20대	(25)	44.0	.0	8.0	24.0	20.0	4.0	100.0
	30대	(80)	50.0	12.5	13.8	12.5	5.0	6.3	100.0
	40대	(61)	42.6	18.0	14.8	8.2	9.8	6.6	100.0
	50대	(20)	45.0	15.0	10.0	10.0	10.0	10.0	100.0
	60대 이상	(5)	40.0	20.0	.0	20.0	20.0	.0	100.0
■ 성별	남자	(84)	44.0	13.1	11.9	13.1	10.7	7.1	100.0
	여자	(117)	50.4	11.1	12.8	12.0	8.5	5.1	100.0
	기타	(1)	.0	100.0	.0	.0	.0	.0	100.0
■ 지역	수도권	(140)	48.6	8.6	11.4	14.3	10.7	6.4	100.0
	비수도권	(62)	45.2	21.0	14.5	8.1	6.5	4.8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64.4	2.2	11.1	11.1	11.1	.0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44.0	14.7	8.0	22.7	4.0	6.7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47.7	16.9	15.4	4.6	10.8	4.6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18.8	12.5	25.0	.0	18.8	25.0	100.0
	20년 이상	(1)	.0	.0	.0	.0	100.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40.0	13.3	6.7	26.7	.0	13.3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50.0	13.3	13.3	10.0	11.7	1.7	100.0
	보통	(62)	45.2	8.1	17.7	16.1	12.9	.0	100.0
	잘 아는 편이다	(43)	46.5	20.9	4.7	4.7	7.0	16.3	100.0
	매우 잘 안다	(22)	54.5	4.5	13.6	13.6	4.5	9.1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28.6	.0	14.3	.0	.0	57.1	100.0
	약간 불만족	(13)	53.8	7.7	7.7	15.4	.0	15.4	100.0
	보통	(86)	43.0	16.3	12.8	14.0	9.3	4.7	100.0
	약간 만족	(33)	54.5	3.0	6.1	18.2	18.2	.0	100.0
	매우 만족	(7)	42.9	14.3	28.6	14.3	.0	.0	100.0
	잘 모르겠다	(56)	51.8	14.3	14.3	7.1	8.9	3.6	100.0

[표 12-2] [Ⅲ.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독립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나 정책 (2순위)

[문 Q13]

		사례수	독립출판물 목록/ 판매처 검색 사이트 운영	우수출판물 선정/상 영	독립출판물 등록/통 계	독립출판물 정보 포 털	정부와 지자체의 독립출 판물 제 어/추진 책(우수 출판물 퍼지독 립의 출 판 기회 활용)	정기적인 전국독 립출판 물 베스트 셀러 표 시(독립 출판물 판매량 등)	기타	계
※BASE : 전체 응답자		빈도	%	%	%	%	%	%	%	%
■ 전체 ■		(182)	23.6	23.1	20.9	19.2	9.9	3.3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95)	20.0	27.4	25.3	13.7	12.6	1.1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3)	38.5	.0	7.7	46.2	.0	7.7	100.0	
	유통사	(13)	23.1	15.4	30.8	30.8	.0	.0	100.0	
	독립서점	(54)	24.1	22.2	16.7	22.2	9.3	5.6	100.0	
	기타	(7)	42.9	28.6	.0	.0	14.3	14.3	100.0	
■ 연령	10대	(11)	.0	54.5	36.4	.0	9.1	.0	100.0	
	20대	(24)	20.8	25.0	20.8	25.0	4.2	4.2	100.0	
	30대	(71)	19.7	29.6	18.3	18.3	12.7	1.4	100.0	
	40대	(54)	29.6	9.3	24.1	22.2	9.3	5.6	100.0	
	50대	(17)	35.3	11.8	11.8	23.5	11.8	5.9	100.0	
	60대 이상	(5)	40.0	40.0	20.0	.0	.0	.0	100.0	
■ 성별	남자	(77)	24.7	15.6	20.8	16.9	16.9	5.2	100.0	
	여자	(104)	23.1	28.8	20.2	21.2	4.8	1.9	100.0	
	기타	(1)	.0	.0	100.0	.0	.0	.0	100.0	
■ 지역	수도권	(125)	23.2	26.4	15.2	21.6	10.4	3.2	100.0	
	비수도권	(57)	24.6	15.8	33.3	14.0	8.8	3.5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3)	18.6	32.6	23.3	14.0	11.6	.0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68)	17.6	19.1	25.0	22.1	13.2	2.9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59)	33.9	20.3	15.3	16.9	6.8	6.8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1)	18.2	27.3	18.2	36.4	.0	.0	100.0	
	20년 이상	(1)	100.0	.0	.0	.0	.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4)	28.6	28.6	21.4	21.4	.0	.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55)	16.4	20.0	36.4	12.7	12.7	1.8	100.0	
	보통	(61)	21.3	26.2	16.4	24.6	11.5	.0	100.0	
	잘 아는 편이다	(33)	36.4	21.2	9.1	21.2	6.1	6.1	100.0	
	매우 잘 안다	(19)	26.3	21.1	10.5	15.8	10.5	15.8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3)	66.7	.0	.0	.0	33.3	.0	100.0	
	약간 불만족	(11)	27.3	27.3	9.1	27.3	9.1	.0	100.0	
	보통	(79)	25.3	19.0	26.6	20.3	7.6	1.3	100.0	
	약간 만족	(31)	12.9	32.3	12.9	29.0	6.5	6.5	100.0	
	매우 만족	(6)	33.3	16.7	.0	33.3	.0	16.7	100.0	
	잘 모르겠다	(52)	23.1	25.0	23.1	9.6	15.4	3.8	100.0	

[표 12-3] [Ⅲ. 독립출판물 납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독립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나 정책 (1+2순위)_복수응답								
[문 Q13]								
	사례수	정부와 지자체의 독립출판물 지원/촉진 책(독립출판 물의 상업 기회로 활용)	독립출판물 목록/판매 처 검색 사이트 운영	우수 독립출판물 선정/시상 제도 운영	독립출판물 등록/통계 정보 사이트 운영	정기적인 전국 독립출판물 베스트셀러 목록 공표 (독립서점 판매장 등)	기타	
※BASE : 전체 응답자	빈도	%	%	%	%	%	%	
■전체■	(202)	64.9	33.7	33.2	31.2	18.3	8.9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72.5	26.5	37.3	36.3	17.6	2.9
	출판사(제작대행사)	(15)	60.0	33.3	33.3	20.0	20.0	20.0
	유통사	(13)	46.2	46.2	30.8	46.2	30.8	.0
	독립서점	(63)	60.3	41.3	28.6	25.4	15.9	14.3
	기타	(9)	44.4	44.4	22.2	11.1	22.2	33.3
▣ 연령	10대	(11)	72.7	.0	63.6	45.5	18.2	.0
	20대	(25)	68.0	20.0	48.0	28.0	24.0	8.0
	30대	(80)	66.3	30.0	38.8	30.0	16.3	7.5
	40대	(61)	62.3	44.3	16.4	36.1	18.0	11.5
	50대	(20)	65.0	45.0	20.0	20.0	20.0	15.0
	60대 이상	(5)	40.0	60.0	60.0	20.0	20.0	.0
▣ 성별	남자	(84)	59.5	35.7	27.4	31.0	26.2	11.9
	여자	(117)	69.2	31.6	37.6	30.8	12.8	6.8
	기타	(1)	.0	100.0	.0	100.0	.0	.0
▣ 지역	수도권	(140)	67.9	29.3	37.9	25.0	20.0	9.3
	비수도권	(62)	58.1	43.5	22.6	45.2	14.5	8.1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77.8	20.0	42.2	33.3	22.2	.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64.0	30.7	40.0	30.7	16.0	9.3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63.1	47.7	23.1	29.2	16.9	10.8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43.8	25.0	18.8	37.5	18.8	25.0
	20년 이상	(1)	.0	100.0	.0	.0	100.0	.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60.0	40.0	53.3	26.7	.0	13.3
	잘 모르는 편이다	(60)	61.7	28.3	28.3	46.7	23.3	3.3
	보통	(62)	69.4	29.0	41.9	33.9	24.2	.0
	잘 아는 편이다	(43)	62.8	48.8	20.9	11.6	11.6	20.9
	매우 잘 안다	(22)	68.2	27.3	31.8	22.7	13.6	22.7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28.6	28.6	.0	14.3	14.3	57.1
	약간 불만족	(13)	76.9	30.8	38.5	15.4	7.7	15.4
	보통	(86)	61.6	39.5	31.4	37.2	16.3	5.8
	약간 만족	(33)	81.8	15.2	48.5	18.2	24.2	6.1
	매우 만족	(7)	71.4	42.9	28.6	28.6	.0	14.3
	잘 모르겠다	(56)	60.7	35.7	30.4	35.7	23.2	7.1

[표 13] [응답자 특성] 연령

[문 SQ1]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빈도	%	%	%	%	%	%
■ 전체 ■		(202)	5.4	12.4	39.6	30.2	9.9	2.5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10.8	17.6	44.1	17.6	6.9	2.9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20.0	26.7	40.0	13.3	.0
	유통사	(13)	.0	23.1	46.2	23.1	.0	7.7
	독립서점	(63)	.0	1.6	33.3	46.0	17.5	1.6
	기타	(9)	.0	.0	44.4	55.6	.0	.0
■ 연령	10대	(11)	100.0	.0	.0	.0	.0	.0
	20대	(25)	.0	100.0	.0	.0	.0	.0
	30대	(80)	.0	.0	100.0	.0	.0	.0
	40대	(61)	.0	.0	.0	100.0	.0	.0
	50대	(20)	.0	.0	.0	.0	100.0	.0
	60대 이상	(5)	.0	.0	.0	.0	.0	100.0
■ 성별	남자	(84)	6.0	8.3	38.1	33.3	11.9	2.4
	여자	(117)	5.1	15.4	41.0	27.4	8.5	2.6
	기타	(1)	.0	.0	.0	100.0	.0	.0
■ 지역	수도권	(140)	7.9	15.0	40.0	27.1	8.6	1.4
	비수도권	(62)	.0	6.5	38.7	37.1	12.9	4.8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22.2	35.6	17.8	8.9	8.9	6.7
	1년 이상 ~ 5년 미만	(75)	1.3	12.0	52.0	28.0	6.7	.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0	.0	40.0	46.2	10.8	3.1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0	.0	43.8	37.5	18.8	.0
	20년 이상	(1)	.0	.0	.0	.0	100.0	.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6.7	20.0	33.3	13.3	6.7	2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16.7	13.3	31.7	25.0	10.0	3.3
	보통	(62)	.0	16.1	41.9	35.5	6.5	.0
	잘 아는 편이다	(43)	.0	7.0	34.9	41.9	16.3	.0
	매우 잘 안다	(22)	.0	4.5	68.2	18.2	9.1	.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0	14.3	42.9	28.6	14.3	.0
	약간 불만족	(13)	7.7	.0	61.5	15.4	15.4	.0
	보통	(86)	4.7	14.0	32.6	33.7	12.8	2.3
	약간 만족	(33)	.0	9.1	51.5	33.3	6.1	.0
	매우 만족	(7)	.0	.0	42.9	42.9	14.3	.0
	잘 모르겠다	(56)	10.7	16.1	37.5	25.0	5.4	5.4

[표 14] [응답자 특성] 성별						
[문 SQ2]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남자	여자	기타	계
		빈도	%	%	%	%
■전체■		(202)	41.6	57.9	.5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33.3	66.7	.0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60.0	40.0	.0	100.0
	유통사	(13)	69.2	30.8	.0	100.0
	독립서점	(63)	41.3	57.1	1.6	100.0
	기타	(9)	66.7	33.3	.0	100.0
■ 연령	10대	(11)	45.5	54.5	.0	100.0
	20대	(25)	28.0	72.0	.0	100.0
	30대	(80)	40.0	60.0	.0	100.0
	40대	(61)	45.9	52.5	1.6	100.0
	50대	(20)	50.0	50.0	.0	100.0
	60대 이상	(5)	40.0	60.0	.0	100.0
■ 성별	남자	(84)	100.0	.0	.0	100.0
	여자	(117)	.0	100.0	.0	100.0
	기타	(1)	.0	.0	100.0	100.0
■ 지역	수도권	(140)	41.4	58.6	.0	100.0
	비수도권	(62)	41.9	56.5	1.6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40.0	60.0	.0	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75)	30.7	68.0	1.3	1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65)	46.2	53.8	.0	1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16)	75.0	25.0	.0	100.0
	20년 이상	(1)	100.0	.0	.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26.7	73.3	.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35.0	63.3	1.7	100.0
	보통	(62)	51.6	48.4	.0	100.0
	잘 아는 편이다	(43)	44.2	55.8	.0	100.0
	매우 잘 안다	(22)	36.4	63.6	.0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28.6	71.4	.0	100.0
	약간 불만족	(13)	53.8	46.2	.0	100.0
	보통	(86)	41.9	57.0	1.2	100.0
	약간 만족	(33)	45.5	54.5	.0	100.0
	매우 만족	(7)	14.3	85.7	.0	100.0
	잘 모르겠다	(56)	41.1	58.9	.0	100.0

[표 15] [응답자 특성] 거주지

		[문 SQ3]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계
		빈도	%	%	%	%	%	%	%	%	%	%	%	%	%	%	%	%	%
■전체■		(202)	31.2	5.0	1.5	4.0	1.5	6.9	.5	1.5	34.2	4.0	1.5	1.0	1.5	1.0	.5	4.5	100.0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28.4	2.0	.0	2.9	.0	3.9	1.0	2.0	47.1	2.0	2.0	1.0	.0	1.0	1.0	5.9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33.3	.0	6.7	.0	.0	6.7	.0	.0	26.7	.0	6.7	.0	6.7	.0	.0	13.3	100.0
	유통사	(13)	15.4	.0	.0	15.4	15.4	7.7	.0	.0	46.2	.0	.0	.0	.0	.0	.0	.0	100.0
	독립서점	(63)	36.5	12.7	1.6	4.8	1.6	11.1	.0	1.6	15.9	7.9	.0	.0	3.2	1.6	.0	1.6	100.0
	기타	(9)	44.4	.0	11.1	.0	.0	11.1	.0	.0	11.1	11.1	.0	11.1	.0	.0	.0	.0	100.0
연령	10대	(11)	63.6	.0	.0	.0	.0	.0	.0	.0	36.4	.0	.0	.0	.0	.0	.0	.0	100.0
	20대	(25)	8.0	4.0	.0	4.0	.0	.0	.0	4.0	72.0	.0	4.0	.0	4.0	.0	.0	.0	100.0
	30대	(80)	36.3	2.5	2.5	3.8	2.5	5.0	1.3	1.3	30.0	2.5	2.5	2.5	2.5	.0	.0	5.0	100.0
	40대	(61)	31.1	8.2	1.6	6.6	.0	13.1	.0	.0	24.6	6.6	.0	.0	.0	.0	1.6	6.6	100.0
	50대	(20)	30.0	10.0	.0	.0	5.0	5.0	.0	5.0	30.0	5.0	.0	.0	.0	5.0	.0	5.0	100.0
	60대 이상	(5)	.0	.0	.0	.0	.0	20.0	.0	.0	40.0	20.0	.0	.0	.0	20.0	.0	.0	100.0
성별	남자	(84)	32.1	6.0	3.6	4.8	3.6	3.6	.0	1.2	32.1	4.8	1.2	1.2	2.4	.0	1.2	2.4	100.0
	여자	(117)	30.8	4.3	.0	3.4	.0	9.4	.9	1.7	35.9	2.6	1.7	.9	.9	1.7	.0	6.0	100.0
	기타	(1)	.0	.0	.0	.0	.0	.0	.0	.0	.0	100.0	.0	.0	.0	.0	.0	.0	100.0
지역	수도권	(140)	45.0	.0	.0	5.7	.0	.0	.0	.0	49.3	.0	.0	.0	.0	.0	.0	.0	100.0
	비수도권	(62)	.0	16.1	4.8	.0	4.8	22.6	1.6	4.8	.0	12.9	4.8	3.2	4.8	3.2	1.6	14.5	100.0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17.8	.0	2.2	.0	.0	2.2	.0	4.4	64.4	2.2	.0	.0	.0	2.2	.0	4.4	100.0
	1년 이상~5년 미만	(75)	32.0	5.3	1.3	6.7	1.3	6.7	1.3	.0	33.3	2.7	2.7	.0	1.3	.0	.0	5.3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65)	38.5	4.6	1.5	4.6	3.1	9.2	.0	1.5	20.0	7.7	.0	3.1	1.5	1.5	.0	3.1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16)	31.3	18.8	.0	.0	.0	12.5	.0	.0	12.5	.0	6.3	.0	6.3	.0	6.3	6.3	100.0
	20년 이상	(1)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13.3	6.7	6.7	13.3	.0	13.3	.0	.0	33.3	6.7	.0	.0	.0	6.7	.0	.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28.3	1.7	.0	1.7	.0	11.7	.0	3.3	40.0	6.7	1.7	1.7	.0	1.7	1.7	.0	100.0
	보통	(62)	27.4	8.1	1.6	6.5	1.6	1.6	1.6	.0	37.1	3.2	1.6	.0	3.2	.0	.0	6.5	100.0
	잘 아는 편이다	(43)	39.5	7.0	2.3	2.3	2.3	7.0	.0	2.3	23.3	.0	2.3	2.3	2.3	.0	.0	7.0	100.0
	매우 잘 안다	(22)	45.5	.0	.0	.0	4.5	4.5	.0	.0	31.8	4.5	.0	.0	.0	.0	.0	9.1	100.0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28.6	.0	.0	28.6	.0	.0	.0	.0	28.6	.0	.0	.0	.0	.0	.0	14.3	100.0
	약간 불만족	(13)	38.5	15.4	.0	.0	.0	7.7	.0	.0	23.1	.0	.0	.0	.0	.0	.0	15.4	100.0
	보통	(86)	31.4	7.0	1.2	3.5	2.3	5.8	1.2	1.2	29.1	5.8	2.3	.0	1.2	1.2	1.2	5.8	100.0
	약간 만족	(33)	39.4	.0	.0	3.0	.0	9.1	.0	.0	45.5	.0	.0	3.0	.0	.0	.0	.0	100.0
	매우 만족	(7)	71.4	14.3	.0	.0	.0	.0	.0	.0	14.3	.0	.0	.0	.0	.0	.0	.0	100.0
	잘 모르겠다	(56)	19.6	1.8	3.6	3.6	1.8	8.9	.0	3.6	41.1	5.4	1.8	1.8	3.6	1.8	.0	1.8	100.0

[표 16] [응답자 특성] 종사 기간

[표 16] [응답자 특성] 종사 기간								
[문 SQ4]								
※BASE : 전체 응답자	사례수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20년 이상	계	
	빈도	%	%	%	%	%	%	
■전체■		(202)	22.3	37.1	32.2	7.9	.5	100.0
▣ 응답자 구분	창작자(저자)	(102)	41.2	39.2	17.6	2.0	.0	100.0
	출판사(제작대행사)	(15)	.0	40.0	26.7	26.7	6.7	100.0
	유통사	(13)	.0	46.2	46.2	7.7	.0	100.0
	독립서점	(63)	3.2	33.3	50.8	12.7	.0	100.0
	기타	(9)	11.1	22.2	55.6	11.1	.0	100.0
▣ 연령	10대	(11)	90.9	9.1	.0	.0	.0	100.0
	20대	(25)	64.0	36.0	.0	.0	.0	100.0
	30대	(80)	10.0	48.8	32.5	8.8	.0	100.0
	40대	(61)	6.6	34.4	49.2	9.8	.0	100.0
	50대	(20)	20.0	25.0	35.0	15.0	5.0	100.0
	60대 이상	(5)	60.0	.0	40.0	.0	.0	100.0
▣ 성별	남자	(84)	21.4	27.4	35.7	14.3	1.2	100.0
	여자	(117)	23.1	43.6	29.9	3.4	.0	100.0
	기타	(1)	.0	100.0	.0	.0	.0	100.0
▣ 지역	수도권	(140)	26.4	38.6	29.3	5.0	.7	100.0
	비수도권	(62)	12.9	33.9	38.7	14.5	.0	100.0
▣ 종사 기간	1년 미만	(45)	100.0	.0	.0	.0	.0	100.0
	1년 이상~5년 미만	(75)	.0	100.0	.0	.0	.0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65)	.0	.0	100.0	.0	.0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16)	.0	.0	.0	100.0	.0	100.0
	20년 이상	(1)	.0	.0	.0	.0	100.0	100.0
▣ 납본 제도 인지도	전혀 모른다	(15)	53.3	33.3	13.3	.0	.0	100.0
	잘 모르는 편이다	(60)	38.3	40.0	15.0	5.0	1.7	100.0
	보통	(62)	21.0	33.9	35.5	9.7	.0	100.0
	잘 아는 편이다	(43)	2.3	37.2	46.5	14.0	.0	100.0
	매우 잘 안다	(22)	.0	40.9	54.5	4.5	.0	100.0
▣ 납본 제도 만족도	매우 불만족	(7)	.0	42.9	42.9	14.3	.0	100.0
	약간 불만족	(13)	7.7	53.8	23.1	15.4	.0	100.0
	보통	(86)	19.8	45.3	26.7	7.0	1.2	100.0
	약간 만족	(33)	15.2	30.3	42.4	12.1	.0	100.0
	매우 만족	(7)	.0	57.1	42.9	.0	.0	100.0
	잘 모르겠다	(56)	39.3	21.4	33.9	5.4	.0	100.0

